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APR 19 1982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799~800 1982년 4월 16일(금) 17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Friday & Saturday, April 16 & 17,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정 서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연합회, 한인이민 증가위해 총력
1만명 서명운동 착수
8월말 목표, "단결과시"도 겸한 효과

교포 이민자를 늘이기 위한 교포배가 1만명 서명운동이 드디어 킥·오프됐다.

캐나다한인총연합회의 오기송회장(콩코디아대학 정치학교수)은 지난주 "한인사회의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시하고 우리사회의 단결을 과시하는 서명운동에 전 교민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하면서 성명·주소·서명란이 기재된 서명서 양식을 공개했다.

오회장은 "캐나다 전국에는 실업자가 1백만명 이상이 있지만 금년에는 13만명의 이민을 받는다. 그렇다면 캐나다는 다른 인종에 앞서 우수한 한국인들을 더 많이 받아 들여야 할 것이 아닌가?"고 묻으면서 그러기 위한 한 단계는 한국주재 이민관의 수를 늘려 많은 한인신청자의 서류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등의 행정적 조절이라고 밝혔다.

매년 그해의 총이민자수를 결정하는 캐나다는 인종 또는 국가별 쿼터를 정하지는 않지만 이민심사사무실과 주재 이민관의 수로 이민신청을 간접 조절하는 합법적인 차별정책을 쓴다.

현재 한국에는 서울 캐나다대사관 1개소에서 단 2명의 이민관이 한국인들의 이민심사를 담당, 이민수속이 크게 지연되기 때문에 한인이민자가 그만큼 적은 것이다.

80년도 연방정부 통계에 의하면 캐나다가 받아들인 총 143,117명의 이민자중 한인은 불과 957명이었고, 81년6월까지의 통계는 총이민자 56,524명중 한인은 553명이었다.

오는 8월말 서명완료를 목표로 한 서명운동을 「애족 대운동」이라고 지칭한 오회장은 서명서를 10월2일 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캐나다정부 대표자, 한국정부에 1부씩 전할 것을 바라고 있다.

오박사는 "일부에서는 서명운동의 필요성에 의문을 표시하지만 민주사회에서의 단체적인 의사표시는 권익확보에 크게 유효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서명운동으로 당장 큰 효과를 기대하는 등의 조급성도 경계했다.

연합회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진 교포로 이 운동의 뜻을 이해하고 찬동하는 자는 1가정에서 몇명이라도 서명하기를 요망했다. 보낼 곳은 각지역 한인회 또는 연합회이다.

◇오기송 박사

◆한인총연합회가 추진하는 서명운동 용지.

	성 명	주 소	서 명
1	성춘향	1025 Dupont St. TORONTO	C. H. Sung
2	이몽룡	1025 Dupont St. Toronto	Mong Lee
3		보낼곳 : 각지역 한인회장 또는 Dr. Ki Song Oh P.O. Box 584, Cote St. Luc, Montreal, P.Q. H4N 2Z2	

82미스코리아 캐나다—
예행연습·심사위원진 결정

토론토한인회 캐라반위원회(위원장 이대환)는 13일밤 이대환부동산회사에서 미인대회 준비회를 갖고, 10일후로 다가온 제7회 캐나다미스코리아선발대회의 중요한 안건 몇가지를 결정했다.

미인대회 진행겸 연습총지휘에 이광민씨를 위촉하고, 아래와 같이 연습날짜를 결정했다. 출전후보들은 빠짐없이 연습날에 모여야 한다.

◆미인예비소집
1차: 4월21일(수) 하오6시
모일곳: 토론토한인회관
※대회진행 요령과 알아둘일 설명, 심사위원들과 대면
2차: 4월23일(금) 하오6시
모일곳: 토론토한인회관
※예행연습, 특기 예선
3차: 4월24일(토) 하오2시
모일곳: 다운타운 홀리데이·인(토론토시청 뒤)
※대회장 무대에서 총연습

한편 이번 제7회 미인대회 심사위원(8명)이 확정됐다. 이번 심사위원은 문화 각분야의 전문직에서 한명씩 뽑고, 예년과 달리 미용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특색이다.

◆제7회 미인대회 심사위원
문학—이석현(문협고문)
미술—김 효(전 미협회장)
음악—유희자(피아니스트)
사진—전경수(사진협회장)
연기—나옥녀(전 탈렌트)
모델—전인숙(직업모델)
의학—구상회(의사)
외국인—(미정)

이번 미인대회 입장권($30)은 아래 각업체에서 예매하고 있다.
중부=제1여행사(649A Bloor St. W. 전화 535—2377)
동부=서울식품·동부한국식품
서부=한밭식품·삼복식품

후보제6호 정상미양
팻션디자이너가꿈인 태권도인

캐나다 한인계 정상미녀를 꿈꾸는 후보제6호는 고교생 이정숙(수자 20세)양 태권도로 다져진 탄탄한 몸매에 아무일에나 자신이 넘치는 태도가 관심을 끈다. 정숙양은 태권도장 수련생활 3년에 붉은벨트를 따냈다.

취미는 각종스포츠, 댄스를 즐기며, 장래의 희망은 팻숀디자이너.

지난73년2월 충북 충주국교 4년때 토론토로 이민와서 현재 고교13학년에다니고 있다.

한인상가 불루어 거리에서 최근「내고향 통닭집」을 개업, 경영중인 이종소씨(48)와 박숙화(46)여사 의 4녀중 둘째딸로 밝은 미래를 그리는 정숙양의 신체조건은, 키 164cm, 무게 127파운드, 36—27—36이다.

◆미녀후보 제6호 이정숙양

◆미녀후보제7호 함승희양

후보제7호 함승희양
스키선수인 디자이너

전문적 의상디자이너 함승희(제니퍼 22세)양이 미녀후보 제7호로 등록됐다.

특기는 스키, 은세계를누비는 폼이 새같다고 평할정도로 스키를 잘탄다.

취미로 골동품수집과 실내장식을 즐긴다.

장래희망은 전공분야인 일류 디자이너가 되는것.

지난 72년 선익여중 1년때 캐나다로 이민온후 78년 쉐리단·칼레지(의상디자인)를 나왔고, 이어 프랑스로 유학, 파리에서 High Fashion Private School (의상디자인)을 졸업했으며, 현재는 훌트·리안의 구찌백화점 부지배인으로 근무중이다.

올림픽후원회장 함 의현씨(50)와 이채은 여사의 2남2녀중 장녀로 승희양 의 신체조건은 키 165cm, 무게 110파운드, 36—23—36

◆미녀후보 제8호 안주리양

후보제8호 안주리양
고전춤·현대무용의능수

고전무용 현대무용에 뛰어난 안주리양(19세)이 미녀후보 제8호이다.

늘씬한 키에 무용으로다져진 몸매가 시원스럽고마스크도 잘 다져진 인상을 준다. 취미도 수영, 드레스만들기, 음악감상등 다양하다. 장래지망은 여류변호사.

지난해에는 모교(Emery C.I.)추천으로 81년도 미스토론토 선발대회에 출전 80여명과 경합하여 예선통과하는 실력을 과시했으며, 지난 3월에는 학교 햇션쇼에 모델로 나서기도…현재 고3재학의 학생.

71년 대구 대봉국교 3년때 이민왔다. 작년도 경북향우회장을 지낸 안수용씨(49 회사원)과 정금련여사의 2남2녀중 장녀로 주리양의 신체조건은 키 169cm 무게 116파운드, 36—23—36이다.

"釜山 美文化院 방화사건은 前例없는 反美감정"
NYT, 崔신부 拘束사태등 解說기사

(뉴욕지사) 뉴욕타임스지는 11일자 일요판에서 부산의 미국문화원방화사건과 이에 따른 원주교구 최기식신부의 구속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해설기사를 싣고 부산사건은 한국에서의 반미감정에 대한 연구사례라고 보도했다.

헨리·스타스동경특파원의 부산발보도로 된 이 칼럼은 한국정부관리나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부산사건을 소수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탈선정도로 보고 있지만 많은 한국의 지식인들이나 교회지도자들및 전두환대통령의 비판자들은 부산 미문화원의 방화사건이 점증하고 있는 한국내 반미감정의 신호라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이기사는 부산미문화원에서 방화직후 살포된 전단이 『미국은 이땅에서 떠나라』고 '요구했다고 전하면서 이러한 요구는 남한 지도자나 야당대변인 어느 누구에게서도 일찌기 나온적이 없었던것 이라고 말하고 이것은 오히려 북한의 김일성이 매년 되풀이하고 있는 요구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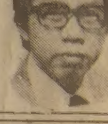
약 16개월전에 광주미문화원에서 있었던 소규모의 방화사건을 제외한다면 미국이 지난 30년간 한국에 군사적, 경제적진주를 해온이래 부산에서의 공격은 일찌기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원 방화사건
유성열체포

(부산15일=연합)경찰은 미문화원 방화사건과 관련 9번째 혐의자로 부산대학교 3년생 유성열(21)군을 체포했다.

14일 부산동래에서 체포된 유군은 동사건의 주범 문부식이 만들은 것으로알려진 반정부 전단200장 을 뿌린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지난3월18일 부산미문화원 화재발생 당시 유군은 민근식당에서 전단을 뿌린후 도망쳤다고 말했다. 이 방화사건으로 1명의 대학생이 소사하고 3명이 화상을 입었다.

Without fear
or
favor
—The Korea Times—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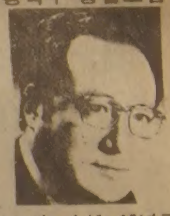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 - 1692
(R) 245 - 3539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오늘의 예금금리

종 별	기 간	신 용 조 합	일 반 은 행
정기예금	30일	14%	12.75~15%
	90일	14.25%	
	180일	14.5%	
	365일	15%	
	2년	16%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희소식
SPECIALIZING IN OIL TO GAS CHANGEOVERS
HOME Energy CONVERTORS
A DIVISION OF ADONO CORPORATION
(Formerly a Division of Delemere Distributors Ltd. — 1954)

"oil Furnace를 Gas Furnace로 교환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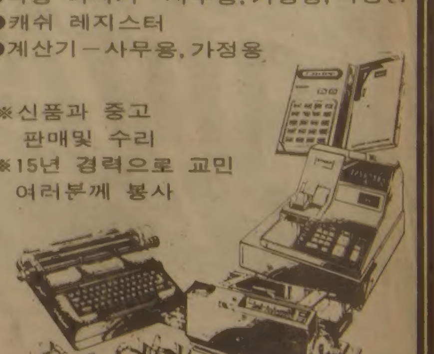
지난 겨울동안 oil을 사용하시는 가구주는 히팅값이 천연가스에 비해 약 30% 정도 더 소비가 됐읍니다.
다음 겨울에는 약 40% 정도로 연료비가 더 소비하게 될것입니다.
현재 캐나다 정부에서는 oil난방비를 가스로 바꾸는 경우, 그 경비의 약 절반을 보조해 주고 있읍니다.
연료비 절약을 위해 금년에는 꼭 가스로 난방을 바꾸십시요.

CONSUMER GAS LINE을 금년 봄에 신청하면 약2개월이 소요됨

연락처 ☎ : 221—6700
535—2804 김 상 표

○사고시 보험 관계 일체 처리
○수리중 차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사고차량 TOWING SERVICE
○페인팅(OVEN BAKE FINISHES)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현

SKY WAY
●각종 복사기
●각종 타자기—사무용, 가정용, 학생용
●캐쉬 레지스터
●계산기—사무용, 가정용
※신품과 중고
판매및 수리
※15년 경력으로 교민
여러분께 봉사

OLIVETTI, SHARP, 3M
MITACOPYSTAR, IBM, SANYO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김인환
(B)675—1295~6 (R)671—0938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0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트루도수상과 염문을 남기도한 기타리스트 로나·보이드. 최우수연주자상을 탔다.

시카고교포자녀 4
천재교육 프로그램에

【시카고지사】이민1세들이 초기의 정착과정에서 온갖 고생을 무릅쓰고 2세 교육을 위해 헌신한 결과가 서서히 열매를 맺고 있다.

우리의 2세들이 각급 학교에서 또는 각종 예능콩쿨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례가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 끊임없이 알려지고 있었으나 이번에 전세계적으로 그 권위가 인정된 천재교육프로그램인 인터내셔널·배커로리트(국제학위) 프로그램에 4명의 시카고교민자녀가 포함돼 한국인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인터내셔널 배커로리트(I.B.) 프로그램은 원래 외국으로 자주 전근다니는 외교관 자녀들을 위한 특수프로그램이었으나 이것이 천재교육 프로그램으로 변질된 것이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이 특수교육제도는 전세계에 우수학교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미국에도 33개의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나 일리노이주에는 Lincoin Park 하이스쿨 단 한 곳 뿐이다.

이 프로그램을 마치게 되면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하바드나 예일 프린스턴등 미국의 명문대학은 물론 구라파의 명문대학의 입학도 가능하다고 한다.

국민학교 졸업반인 8학년을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필기, 면접시험을 통해 수재들을 선발하는데 금년에는 2천명의 응모자중에서 서류심사후 200명을 추려, 필기, 면접시험시험을 거쳐 35명의 수재들을 뽑았는데 이중에 4명의 한인학생이 끼어 있어 시카고 교육국에서 조차 놀라움을 나타냈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캐나다 내셔널리즘의 밤"
주노상 시상식 성료
최우수가수에 앤·머리와 브루스·콕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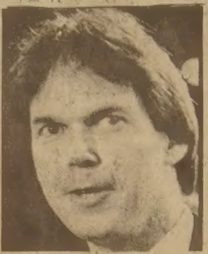
◇최우수가수상의 브루스·콕번

캐나다 팝·뮤직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주노(Juno)상 시상식이 14일밤 토론토의 힐튼·하버·캐슬호텔에서 거행됐다.

프랜시스·팍스 연방고뮤니케이션즈 장관이"캐나다 문화제국건설"에 관해 연설, 캐나다 내셔널리즘(미국의 영향권을 벗어난 캐나다 국가정신을 뜻한다.)의 밤으로 기억될만한 이날행사에서 앤머리와 브루스·콕번이 3년연속 최고가수상을 차지했다.

뱅쿠버의 그룹러버·보이(Lover Boy)는 최우수 그룹, 최우수싱글, 최우수 앨범, 최우수 작곡가, 최우수 제작자, 최우수 기술상등 6개부문을 휩쓸어 12년전주노상이 생긴이래 신기록을 세웠다.

미모의 기타주자 로나·보이드양은 최우수 연주자로, 가수 닐·영(Neil Young)은 최고 명예상, 보컬그룹 사가(Saga)는 신인상을차지했다.



◇최고명예상 수상가수 닐·영

◇6개상을 휩쓴 뱅쿠버출신·그룹 〈러브·보이〉

한국教育開發院서
教育學부문 전문가 초빙
博士학위 所持者대상, 國立大교수와 동등대우

한국 교육개발원(KEDI)는 해외 두뇌유치 계획에 따라 교육학 여러분야의 전문가를 한국에 초빙한다.

초빙분야는 교육심리, 교육과정, 교육정책, 교육행정 재정및 체제분석, 직업및 기술교육, 교육공학, 교육통계 평가및 측정, 수학교육, 음악교육, 미술교육 등이다.

대상은 원칙적으로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영구귀국 희망자를 환영하고있다.

보수는 국립대학 교수봉급과 동등하며 기타 자세한 조건및 사항은 (문의처는 한국 서울 강남구 우면동 산 20-1번지 한국 교육개발원 신세호부원장).

한국 교육개발원은 한국교육의 이념 목표 내용및 방법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연구를 하는 기관이며 한국정부가 그 예산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체다.

존·업다이크小說「토끼는 富者다」
波事態보도 뉴욕타임스 두記者 등
풀리처賞 수상자 決定

〈뉴욕 〉존 업다이크의 『토끼는 부자다』가 12일 소설부문에서 82년도 풀리처상을 수상했다.

또한 뉴욕타임스지의 기자 존 단톤과 재 로젠달이 각각 국제보도 부문과 사설부문에서 수상했다.

존 단톤은 폴랜드사태에 대한 보도로 국제보도 부문에서 수상했다.

이밖의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국내보도-폴 헨더슨(시애틀 타임스지)
▲특집사진-존 H화이트(시카고 선 타임스지)
▲사설만화-벤 사전트(오스틴 어메리칸 스테이트맨지)
▲논평-아트 부크발트(로스엔젤스 타임스신디케이트)
▲평론-마틴 버하이마(로스엔젤스 타임스지)
▲논 픽션-트레이시 키더의 『새로운 기계의 영혼』
▲작곡-로저 서션스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시-고 실비아 프레이쓰의 「시선집」
▲전기-윌리엄 S. 멕필리의 「그랜트전기」
▲드라머-찰스 풀러의 「병정놀이」
▲역사-C 반 우드워드 편집의 「메어리 체스트나트의 내란」

▲퓨릿처상 받은 「레건대통령피격」-AP통신의 론에드먼즈기자가 찍은 이사진은 레건이 총에 맞은 순간을 잡은것이다.

〈논단〉

무엇을 이민사에 쓸 것인가?

김정근(이민사연구소연구원·본사 논설위원)

◇김정근논설위원

일반적으로 이민사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가령 어느 단체에 새 집행부가 들어섰을 때 사람들은 단순하게 이민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결론지어 버린다. 왜 중요한지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사업목표에 "이민사 편찬"이라고 포함시키고서는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사람들이 대단히 막연하게, 이유를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이민사란 중요하다"고 생각해 버리는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작용하고 있을까?

아마도 "이민사란 캐나다속의 한민족의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이라느니, "사람은 과거를 돌아다 볼 줄 아는 동물"이라느니 "이민사란 영원한 후세를 위한 값진 유산"이란 따위의 안이한 확신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나 아닌가 한다. 우리는 과연 이와 같은 구름잡기식의 이유 때문에 이민사를 써야하는가?

한인사회에 요즈음처럼 이민사에 대한 성실한 관심이 일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로 여겨진다. 이 기회에 이민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더 구체적이고 원칙적인 면에서 출발시켜 보는 것이 먼길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콤뮤니티의 성원들이 자기들의 이민생활경험을 역사로 꾸미는 작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떠 오른 생각을 심화시켜 가는데 있어서, 그 행동의 지침을 다음과 같은 구체성을 띤 질문들에서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무엇을 이민사에 쓸 것인가? 우리 이민들의 생활경험 가운데 과연 후세에 전해지도록 기록될 만한 중요한 내용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땀흘리며 고생한다는 이야기쯤은 우리 모두가 아는 일 아닌가? 다 아는 이야기를 넘어서는 어떤 깊숙한 이야기를 우리는 지니고 있는가?

그런 것이 있다고 하자. 그렇다 손치더라도, '다음에 오는 세대가 그것들을 찾아 내어 거기에서 어떤 즐거움과 교훈을 얻어 낸다면 그것으로 끝날 일 아닌가? 할 일이 많은 이민당대에서 구차스러운 자기생활에 대한 기록을 애써 남겨야 하는가? 지금 우리가 이민사 작업을 시작한다면 그 결과가 우리 이민당대에게 가져오는 의미란 무엇인가?

위의 질문들중 첫째 그룹은, 약간의 수사학적 과장법을 사용해 본다면, 우리들 이민생활의 내용 가운데 어떤 생명력과 세련된 복잡성을 지닌 독특한 음향과 색채가 있는가의 문제로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둘째 그룹은, 우리 이민당대가 자신의 생활내용을 조출한 역사로 꾸미고, 뒤따라오는 세대가 그 작업을 계속해 갈 수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을 때, 그것이 우리 콤뮤니티의 정신생활과 문화에 끼치는 의미가 무엇이겠는가를 묻는 것이 될 것이다.

위의 질문들 중 첫번째에 속하는 이민사의 내용에 대한 견해를 결론부터 말한다면, 필자는 이민사의 소재가 한국이나 캐나다의 어느 지방사의 그것못지 않게 풍부하다고 보는 입장이다.(위의 질문들중 두번째에 속하는 이민사의 효용성에 대한 견해는『이민사·한국사·캐나다사』제하의 별도의 글에서 다루어 보려고 한다.)

그럼 필자는 어떤 근거에서 이민의 생체험 속에 역사가의 관심 대상이 될만한 소재가 있다고 보는가? (궁극적으로)이 질문은 이민사회 속에도, 한국안의 한국인들 처럼, 또는 영·불계의 캐네디안들 처럼, 일과 땀이라고 하는 일차적 현상을 넘어서 풍부한 정신 기능을 가진 인간의 삶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 된다. 즉 인간적인 고통, 좌절, 희망, 환희, 사랑, 해학이 있는가의 문제이다. 생존을 위한 동물적 투쟁을 넘어선 정치, 경제, 문화가 있는가의 문제라고 하겠다. 이것은 이민사학계에서 논의 되고 있는 이민의 혼(Soul)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질문에 대하여 과학적이며 축조적인 대답을 시도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뜻에서 필자는 한 이민자의 시 두편을 인용해 봄으로써 일종의 우회적이며 상징성을 띤 대답을 해 보려고 한다.

이 시의 작가 권순창은 토론토에서 상업에 종사하면서 시작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로스엔젤스로 옮아가 살고 있다.

첫째 시의 제목은「생명유감」이다.

바람이 부는 계절이면
깃발을 올리고 싶다.

푸른 하늘을 향해
세차게 손짓하는…

바람이 지는 날에도
견딜 수 없도록 진동하는
…

바람이 부는 오후면
더더구나 터질 것 같은
오랜 염원의 밀도

바람이 부는 절기마다
그토록 펄럭이는

너의 가슴을 두드리고
나의 가슴을 두드리고

지칠줄 모르는 눈빛으로
나를 부둥켜안는
그 뜨거운 체온속에

찬란하게 율동하는
무한의 기폭
불타는 진홍의 생명.

이 시 속에서 독자는 한 한국적 조나단·시걸(Jonathan Seagull: 소설 갈매기의 꿈의 주인공)의 이미지를 보지 않는가고 물어보고 싶다. 거기에 스토아(상점)라고 하는 굴레에 갇혀서 스토아 바깥세계의 자유를 구하고 있는 이민의 모습이 보이는 듯하다. 그의 좌절과 우수를 우리는 거기에서 본다. 물론, 우리는 이 경우에 스토아의 굴레라는 말을 이민생활에 따르는 여러가지 속박을 의미할 수 있는 상징어로서 사용해 주어야 할 것이다.

같은 작자의 두번째 시는 아래「이민전선」이라고 제목붙여져 있다.

제국 기병의
발굽 사라진 밤
어두운 들녘
피비린내 속
그리운 향토의
솔바람 소리.
토론토 전선에
비가 내리네
찢어진 연대기에
찬비가 내리네.

오기로 부닥치던
낯선 거리에서
탄도에 구멍난
시린 가슴에
못다 부른 노래
폭죽처럼 터져
하늘을 치네
이민전선에
비는 내리네

또 다시
새벽이면
공격나팔은 불고
목이 메어라
군가를 외치며
땀에 젖은
전투병은
산을 오르네
아직도 해는 뜨지 않은채
토론토 전선엔
비만 내리네

이 시에서 우리는 한 이민이 처한 변경적 생활환경을 본다. 움직임의 속도는 빠르다. 시 속에는 한국에서의 생활체험과 이민으로서의 체험이 융화되어 있다.

이 재기 발랄한 시의 작자가 보여 주는 세계와 그 표현의 아름다움 정도면 감히『이민문화』를 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민사회의 다이내믹한 면과 생명성에 대한 또 다른 한가찌의 상징적 설명 수단으로, 런던(온타리오)에 있는 한 이민교회의 제직들이 어느해 마지막 날 밤 담임목사의 사택에 모여 즐겁게 놀고 있는 장면을 제시하려고 한다. 송년파티의 흥이 극에 달하면서, 모인 이들 중의 한사람이 훈장이 되어 일동에게 글짓기를 시킨다. 운자는 "축용띠". 다음에 소개하는 몇편이 이렇게 해서 쓰여진 "즉흥시"들이다.

축축히 젖은 바지를
움켜쥐고,
용빨히도 작은집 까지는
달려 왔는데,
띠가 풀리지 않아서
결국한 것도 바지에다
했단다.

축축합니다, 어째서,
용규 엄마 앉은 자리가.
띠띠티를 뿌릴까요?
드라이를 할까요?

축만 내는구나 우리집 쌀통
용서 못하겠다 이번만은
띠를 졸라맨 처가집 식

축 느러져서 대문안을
들어서는 꼴이
용서 받을 수 없는
실수가 있는 듯이,
띠띠거리며, 말까지 더듬
으며 하는 말 좀 보소
"여보 마누라, 오늘도
또 까졌어"

축하 하고,
용서 하니,
띠띠 미즈근 하구나.

축복받은 이몸이
용궁이라는 곳을 가보니,
띠보다도 더러운 놈들만
보이더라.

이들 소위 즉흥시편들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한국이민들의 낙천성, 풍부한 생활감각을 본다고 한다면 지나친 말이 되겠는가? 아마도, 이런 유의 유머가 있는 방울이 속에 신선한 생명의 요소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내 언론이나 캐나다의 언론에서는 아직 이민의 생체험을 종합적인 면에서 그려내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다. 그들의 시각은 지나친 스테레오타입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보다는 더 복잡한 심리적 요인이 이민에 대한 풍부한 묘사를 저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위에서 예거해 본 방법대로 **우리의 관심영역을 넓혀갈 때, 이민사의 소재로서의 독특한 음향과 색채는 이민사회의 구석구석**에서 발견된다. 그것들은 이민사회의 정치, 경제, 문학, 예술, 교육, 언론에서 발견되고, 밤 공장일, 지렁이잡이, 사진결혼에서 찾아진다. 가정마다 부부관계, 부모자식관계의 재조정이 있고, 노인의 소외가 있고 아이들의 반항이 있다. 그리하여, 이민사의 소재를 풍부하게 하여 준다.

프로축구를 즐깁시다

HOME GAMES AT Exhibition Stadium

Dates	Opponents	Times
Saturday, April 17	Tulsa Roughnecks	8:00 pm
Wednesday, April 21	Edmonton Drillers	8:00 pm
Saturday, May 1	Ft. Lauderdale Strikers	8:00 pm
Wednesday, May 5	New York Cosmos	8:00 pm
Saturday, May 15	Montreal Manic	8:00 pm
Thursday, May 20	Chicago Sting	8:00 pm
Tuesday, May 25	San Diego Sockers	8:00 pm
Wednesday, June 16	Portland Timbers	8:00 pm
Saturday, June 19	San Jose Earthquakes	8:00 pm
Wednesday, June 23	Seattle Sounders	8:00 pm
Wednesday, July 7	Montreal Manic	8:00 pm
Thursday, July 22	New York Cosmos	8:00 pm
Sunday, July 25	Vancouver Whitecaps	3:00 pm
Wednesday, July 28	Chicago Sting	8:00 pm
Saturday, Aug. 14	Jacksonville Tea Men	8:00 pm
Sunday, Aug. 22	Tampa Bay Rowdies	3:00 pm

홈게임 오픈

브리자드 : 툴사·러프넥스
4월17일(토)밤8시

장 소 : CNE 축구장
입장권 : $12(A석), $9(B석), $6(C석)
※학생및 유아, 노년입장권은 반액.

입장권예매처 : 한국일보사(4월초순부터)

Brandon Sports Co.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Willowdale

◎주택, 대지, 아파트
◎가게, 상가, 사업체
◎이민이나 면세를 위한 투자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 분
◎좋은 사업 계획에 투자나 동업

각종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신속 정확하게 성심 성의껏 노력하겠아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라옵니다.

채 준 성
(DAVID CHAE)

—경 력—

☆수퍼마켓 소유 운영 2년
☆무역회사 소유 운영 2년
☆부동산업 종사 7년 이상
☆캐나디안 대학 졸업
☆한국기원 아마바둑 4단

☎ (416) 633-7892(B)
(416) 497-8900(R)

새리스팅

◆TUCK SHOP(최소의 자본으로…)
600 s.f.+ Stock Rm. 인도인 주인, 타사업관계로 운영부진. 현 주매상 $3,000(더 올릴 가능성 많음) 주인이 몰게지 함. Ask $59,900 O.B.O

◆주택(식구는 많지만…)
2층의 벽돌집 5B.R + F.Rm. O.F.P., D.A.Gar. 3 Bath. Sauna. 수영장 등등. Ask $315,000 O.B.O(25?)

◆대지(백만불의 꿈이…)
36 acres in Ancaster(Hamilton에 근접) Frt. on Hwy.403 & 53. Sewer. 앞옆에 주택. Res. Subd. 가능 (120 lot이상 : ea.lot 가격 $30~35,000)개발이나 투자에 아주 적합. Ask $1,890,000

◆VARIETY STORE(나왔구나…)
Strip Shpg Center안. 900 s.f. 지하실. 좋은 장비. 좋은 리스. 일요일 휴업. 주매상 $4,000 이상. 부인혼자 운영. 건강문제로 팜. Ask $44,900

◆기타(더 없나?)
다른장소에 각종 가격의 많은 주택, 사업체, 투자처등이 있음. 사시거나 파시는 전의 분의 전화 환영(단 가게의 주소는 계약관계상 면접에 한해서만 알려줌)

적령기 처녀·총각의 실정

처녀<총각……………캐네디안
총각<처녀……………교포사회

총각보다는 혼기의 처녀가 더 많은 교포사회 현상과는 달리 토론토의 캐네디안 총각들은 80년대 중반부터는 신부감구하기가 힘들어 진다. 반대로 젊은 여성들은 남성들을 웃고르듯 취사선택할 수 있다.

이같이 으시시(?)한 예언을 한 사람은 캐나다인구동향을 연구한 "큰 세대(the Big Generation)의 저자이며 미래학자인 존·캐틀.

그는 결혼적령기 여성부족현상의 원인을 크게 2가지로 본다. 첫째는 61-66년 사이의 베이비·붐(Baby Boom)과 둘째로 남성들이 2-3살적은 여성들과 결혼하는 경향 때문이다.

「베이비붐」이 최고조였던 62년생 남성들(그해 캐나다에서는 21만명의 아들이 태어났음)을 예로 들어보자. 이들은 지금 19세로 몇년후면 결혼적령기가 된다.그러나 이들이 결혼할 시기 (평균 결혼연령 23세)가 되어 이들보다 4살아래인 여성을 아내로 맞으려할때, 대상여성들은 대개 66년생이다. 이 해는 베이비붐이 끝나는 때로 이 해 태어난 딸들은 17만명으로 아들 21만명보다 4만명이 적기 때문에 아들들은 결혼감 구하기가 어렵다.

이같은 현상은 토론토에만 국한되지 않고 범캐나다적이다. 전국적으로 남성5명에 여성4명꼴로 여성이 20%나 적다. 토론토는 젊은 남성들이 직업을 구하려고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여성기근이 더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존·캐틀은 이때문에 호모섹스와 남성2명에 여성1명의 삼각관계가 성행할 경향이 있다고 걱정했다.

이와 반대로 한국서는 결혼적령기 여성들이 남아돌아가고 있다. 원인은 위와 똑같이 6.25이후의 「베이비붐」으로 설명되지만 다만 캐나다와 다른 점은 한국 남녀의 평균결혼연령이 캐나다보다 높다는 것 뿐이다. 한국 남녀의 평균 결혼연령은 남성이 27세 여성이 23세이다.

그러나 한국계 이민경향은 남자들의 병역관계등으로 인해 딸들의 이민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위니펙에온 3백명의 처녀봉제사들도 미혼처녀들의 절대수를 증가시킨다.

(기사중 < 표는 수학부호로서 a<b는 b가 a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

世界的 피아니스트의 단골
調律의天才 보브·글레이즈브룩

피아노 연주회장에 모인 청중들은 연주자의 화려한 연주솜씨에 열광한다. 그러나 그들은 피아니스트의 뒤에서 피아니스트가 훌륭한 연주를 하도록 뒷받침 역할을 하는 조율사의 역할을 알지 못한다.

조율사의 역할은 마치 비행기가 이륙하기까지 비행기의 정비를 담당하는 정비사의 역할과 같은 것이다.

아르투르·루빈스타인도 런던에서의 연주를 제약할때 보브·글레이즈브룩의 조율조건이 들어있지 않으면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보브가 조율한 피아노를 가지고 다니면서 영국순회 연주를 하고는 했다.

소련의 에밀·질렐도 예정되었던 리버풀에서의 연주를 거부했다. 피아노가 맘에 들지않는다는 것이었다. 당황한 주최측은 보브씨가 조율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질렐에게 물었다. 질렐은 처음 마지못해 응낙했으나 보브씨의 조율솜씨를 보고는 만족하게 여겼고 결과 연주회는 성황리에 끝났다.

英國서 最古의 家業이어 經歷30년
연주의 成敗좌우하는 숨은藝術家

루빈스타인도'보브'의 조율을 계약조건으로

영국의 스타인웨이가는 전통적으로 피아노조율을 해 오고있는 유명한 집안이다. 현재는 51세의 보브·글레이즈브룩씨가 담당하고 있는데 영국을 찾는 피아니스트면 누구나 그를 찾을 정도로 솜씨와 권위는 유명하다.

그의 조율을 거치지 않으면 피아니스트들은 연주를 못하는 정도이다.

클리퍼드·커즌경도 최근 『그가 피아노조율을 맡아서 하는한 나도 연주를 할 수 있읍니다. 그는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라고 평했다.

보브씨가 가업인 조율에 본격적으로 투신한 것은 19살때였다. 현 여왕인 엘리자베드2세의 결혼식에 사용할 피아노를 조율하는 아버지를 도우면서였다.

그 뒤로 계속 정진, 지금은 피아니스트의 얼굴만 보아도 그가 원하는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낸다

새映画 캣 피플

터질것같은 肉慾 참을때까지 참지만…

인간 내부에 잠재한 동물적인 본능에 관한 에로틱 판타지라고 선전하고 있는 「Cat People」은 한마디로 말해 멍청하기 짝이 없는 영화다.

폴·쉬래더감독은 이 영화에서 에로티시즘과 인간의 본능 따위를 진지하게 찾아보려고 시도한 것 같으나 능력부족으로 싱거운 웃음만 새나오고 만다.

인간에서 표범으로 다시 표범에서 인간으로 변하는 캣 피플인 폴(맬콤·맥도웰)은 어릴때 헤어진 동생 아이리나(나스타샤·킨스키)를 뉴올리언스로 불러온다. 캣 피플은 다른 종과 성교를 하면 거대한 흑표가 되고 인간으로 변신하기 위해선 사람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폴은 끈질기게 아이리나에게 동침할 것을 요구하나 맘씨 좋은 아이리나는 이에 끈질기게 저항한다.

아이리나는 어느 날 동물원을 구경하다 관리인인 존·허드를 만나 사랑에 빠지나 자신의 본질 때문에 터질 것 같은 육욕을 참을때까지 참지만…. 사람의 힘이란 위대하다는 낡은 진리를 새삼 증명하기라도 하자는 듯 아이리나는 마침내 스스로 동물원 울타리 안으로 찾아 든다는 내용.

이런류의 영화가 보여줘야 할 짜릿한 공포와 전율감보다는쓸데 없이 끔찍하고 잔인한 장면이 더 많은 「캣 피플」은 긴장감으로 장면을 연결치 못해 영양실조 걸린 것처럼 느슨해 실망이 크다. 심각해야 할 장면에서 웃음이 터지는 것처럼 난감한 것도 없는데 폴의 표범소리와 몸짓은 차라리 희극적이다.

폴이 싸구려호텔방을 예약해 창녀를 부른뒤 성교도 갖기 전에 표범으로 변해버리는 따위의 실수연발의 이 영화에서 딱 하나 볼만한것은 킨스키의 큰 눈과 탐욕스런 입술. 게다 그녀는 옷을 잘 벗어 큰 눈요기 거리를 한다.5달러주고 보기엔 본전생각이 간절한 낙제작.

유니버설작으로 등급은 R이며 힐리웃 패시픽서 상영중이다.

▲터질듯한 나스타샤·킨스키가 나와 동물흉내를 내나「엉터리 신화」가 되고 말았다.

미국차 평균 수명은 6년
50년이후 최고, 중고차 선호 경향도

81년6월 현재 1억6백만대에 달하는 미국차량의 평균나이가 50년대 이후 최고인 6년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등록상황을 기준으로 7일 이같이 발표한 R.L.Polk & Co.사는 지난 6월이후 신형차량의 판매가 계속 감소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평균차량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Polk사의 보고서는 전체 차량이 80년에 비해 1.2%가 증가,2차대전이후 최소를 기록했으며 폐차율도 58년이래 최저인 7.2%로 나타나 미국인의 중고차 선호를 보여주고 있다.

뉴욕 프레드릭슨博士 考案
5段階 禁煙法

5週를 목표로 그때마다 맞춰處身
1주에 담배 두종류피고 量줄여가
흡연기록 늘作成、하루 한갑만산다
개인적 禁煙이유적고 습관을 분석

LA및 캘리포니아의 어린이연및 건강관계 기관공동주최 금연협의회가 지난6일 헐리웃 장로교 메디칼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금연협의회에는 남가주지역 청소년 지도자를 비롯 흡연및 건강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으며 UCLA 존슨 종합 암센터 엘렌 그리츠박사가 「청소년들의 흡연」에 관해 강연했다.

그리츠박사는 누가 담배를 피우고 누가 흡연을 계속하고 또 왜 계속하는 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이 기조연설에 이어 각각 두 차례에 걸친 집중적인 협의회를 가졌다

다음은 이날 이들에게 소개된 「5단계 금연법」을 요약한 것이다.

이 금연법은 전 뉴욕시립보건소 흡연통제 프로그램책임자였던 도널드 프레드릭슨박사에 의해 개발됐다.

전 5주에 걸쳐 실시되는 이 금연법은 매주마다 금연자 스스로가 자신의 흡연습관을 스스로 조절함으로서 자신의 흡연행동을 교정하게되어 있다.

◆제1단계(첫주)

흡연자는 우선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특히 개인적이 금연이유를 적는다.

금연 프로그램의 모든 지시사항을 따르겠다고 문서로 합의 한다.

마지막으로 흡연자는 금연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겠다고 결심한다.

흡연자가 이상의 사항을 마치면 다음 지시사항을 따른다.

1. 당신이 기록한 금연이유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종이에 적는다.
2. 어떻게 흡연행동을 바꿀가를 생각한다.
3. 어떤 태도를 취할것인가를 적는다.
4. 습관행동을 계산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하루중 몇시에 어떤 경우 어떤 기분이 들때 담배를 피웠으며 그 중요성은 어떤것이었는가를 적을 종이를 담배갑 주위에 싸서 가지고 다닌다.

그리고 담배를 피울때는 꼭 이종이에 기록하고 피운다.

◆제2단계(둘째주)

이 기록을 통해 어떤 경우가 꼭 담배를 피워야만 한가를 확인하고 다음 지시를 따른다.

1. 계속 흡연기록을 작성한다.
2. 금연의 이유를 적는다.
3. 담배곽을 다른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4. 담배를 꼭 한갑씩만 산다.
5. 일주에 담배상표를 두번씩 바꾼다.
6. 성냥이나 라이터를 휴대하지 않는다.
7. 점진적으로 흡연량을 줄인다.

그 한 방법으로 아침에 꼭 피워야 할 담배만 소지했다가 저녁에 몇개를 피웠는지를 기록한다.

또 다른 방법은 담배피울 이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경우 흡연을 하루 한 두 개피씩 줄인다.

◆제3단계(셋째주)

지난 2주동안 어떤 경우에 가장 흡연을 많이 했는지를 알수있을 것이다.

필요한 경우 본인이 어떤 타입의 흡연가인가를 검사를 통해서 알아 보고 다음 지시를 따른다.

1. 지난 2주간 지시사항을 계속 지킨다.
2. 그러면서 하루 24시간동안 담배를 피우지 않는 계획을 세운다.
3. 그 결심을 실천에 옮긴다.
4. 담배를 피우지 않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한다.

◆제4단계(넷째주)

담배피우고 싶을때 무엇이 가장 효과적이었는가를 생각하며 다음사항을 따른다.

1. 담배피우고 싶을 때 걷거나 운동을 한다.
2. 담배피우는 사람들을 피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는다.
3.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극복한다고 마음먹는다.
4. 담배피우고 싶을 때는 다른 일을 한다.

◆제5단계(다섯째주)

만약 금연으로 인해 체중이 늘면 다음사항에 유의한다.

1. 체내에 누적되는 열량을 소비하기 위해 운동을 더많이 한다.
2. 열량이 낮은 음식을 섭취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금연프로그램이 실시되는 동안 호흡이 이상하다든지 졸리거나 가슴이 답답하게 느껴질수도 있다.

이것은 신체적으로 어떤 이상이 생겨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증상이 지속적이라면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상에 열거한 5단계를 철저히 거치는 동안 흡연행동은 사라지고 신체는 금연을 이기는 새로운 방식을 학습하게 될 것이다.

▲헐리웃 장로교 메디칼 센터 강당에서 열린 금연 협의회 참가자들이 흡연의 유혹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토의하고 있다

흡연자 스스로 習慣조절 흡연行動고치게

사슴을 먹고사는 사람들 (147)

팔리·모왓 원작·한제홍 옮김

첫째로 이것은 북극사람들이 식량으로 원하는 카리브와 바다동물과 더불어 도움을 줄 수 있다. 두번째로 이것은 북극사람들이치러야할 피할 수 없는 변화를 위해 건전한 경제 기초를 제공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멸종되고 말것이다. 에스키모들과 북극 인디언들은 상품화할 수 있는것을 생산할 수 있을것이다. 현재의 세계는고기에 굶주려 있는한 그대로 지속될 것이다. 알라스카에서 순록의 고기는 백인들이 널리 애용하고 있으며 남쪽 시애틀까지 배로 실어와서 사치품목으로 팔리기 까지 했는데 육류회사의 미국의회로 비활동에 압력을 받고 중단되었다. 캐나다 북극의 에스키모들은 역시 잘해낼 수 있을것이며 그들이 처칠에큰 항구를 갖고있기 때문에이보다 더 잘 해낼 것이다. (현재로는 심각한 재정난때문에 별로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처칠항 에서 부터는 유럽으로가는 가장 짧은 해상루트가 있으며 유럽은동물프로테인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에 있다. 만일 처칠항에 순록이 충분히 불어나면 여우사료를 만드는 벨루가(사료공장)를 짓는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순록과 카리브의 고기를 처리하는 도살장을 짓는것은 경제적으로 건전한 일일것이다. 이 계획은 이처에 맞을것 같은데 현재 캐나다중앙초목지대에서 통조림된 말고기가 기차로 1천마일을 실려나와. 호수와 해양화물선에 선적되어 유럽시장에서 큰 이윤으로 팔리고 있는데사람들이 소비하고 있다.

더우기 우리는 처칠에서부터 고기를 배로실어 남쪽으로 내려가 현재 적자운영을 하고있는 허드슨베이 철도를 이용해서 전 캐나다 지역으로 납품할수있는 고기를 거기서 냉동시킬수도 있다.

이것은 가축산업에 얼마정도의 경쟁을 가져올지도 모르지만 일반적인 대중에게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허드슨베이의 서부해안에 위치한 내륙 바렌에서 적어도 20만마리의 순록을 기를수 있는데 매년 거기서 나오는 수확으로 현 재 북극의 중앙에 살고있는전체 에스키모들의 경제자립의 완전한 대책을 세우기에는 충분하고도 남을것이다.내가 이 경제안정의요점을 강조하는것을 끝내기 전에 이조전에대한 필요성은 몇년에 걸쳐서 이런 아이디어가 분명히 바렌에서 백여우털 농장이나 물오리산업과 같이 당국이 원칙적으로 받아들일수 있는아이디어라고 이야기하고 지나가야 되겠다.이런 제안들이 지난20년동안 정부에 제출되었지만 한번도 실천해보려는 의욕적인 태도가 전혀 보여지지 않았다. 이들 제안은 단지 겉치레식의 계획에 불과했다. 나는 순록이나 카리브계획이 모든 필요조건을 얼마나 충족시켜줄지 솔직하게 장담할수는 없다.그러나 그제안은 그동안 정부가 빈번히 이런것을 이행해보고싶다고 주장해온 터였으므로 그결과를 시험해 본다면잠재적으로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안전한 경제를 수립한후에 원주민의 세계에서 우리들의 세계로 전환하는길은 열려질 것이며 자기들이 원하면 현재 우리와 분리되어있는 공간을 원주민들은 건너올수 있을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간격을 연결하려는 단한가지 방법을 시도해 왔는데 그것은 북극사람들을 우리의 복잡하고 생소한 생활속으로억지로 불러들여오는 격이되었다.예를들어 선교사들이 북극으로 가서 일년혹은십년동안 순교자처럼 고생을 해가며 이들 미개인들에게 기독교를 강의한다. 이역시 억지춘향이다.소위 개종자들은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교리저변에 깔려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것은신의 마음속에 있는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용감하지만 위험한 사람들인 선교사들은 북국에서 거의 전반에 걸친 미미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부가 보조하고있다.대부분의 에스키모 교회, 학교에서는 찬송가와기도하는것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들은 별로 배우는것은 그들의 실지 생활에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것들이다.선교사들은 그들을 교육시켜 보려는 이러한 의도에 혼란과 당황을 빚어 고생하고 있는것이다.왜냐하면 선교사들은 이사람들이 필요한변화를 어떻게 가져올지 전혀 이해도 못하고 단지 이들이 애매하게 불만을 느낄수 있을만큼만 배웠기때문이다

하옇든간에 선교사 운영학교제도는 우리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이다. 왜냐하면 이런 연구과제에 정부가국민의 세금을 쓸 필요성을 마련해 주기로하고 누가감히 선교사와 같이 사심없이 봉사하는 사람을 비평하려고 한다면 그는 웬만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계속.

십자가의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18)

믿음이란 무엇인가?(1) 개혁장노교회

전호에서는 "믿는다"는 말과 연관해서 누구를 믿으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믿는가도 함께 생각해야 할것을 말했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는 무엇보다도 "바른 신앙"을 가지라는 것과 그에 반하여 "헛된 신앙"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배척하신다는 것과 그릇된 신앙을 일으키는 "다른 복음"을 성경은 엄히 경계하고 있다고 썼다. 그리고는 "누구를 믿는가?"할때는 "예수·그리스도"를 믿되 "성경에서 보이신 그 예수"를 믿어야하며 그 예수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성경은 신·구약 66권 전체"임을 의미하고 그것은 또한 "정확하고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고 썼다

그러면 이제 믿음이라는 본래의 제목으로 돌아와서 "어떻게하면 믿음이 생기는가?"를 생각해 보자.

"믿음을 얻기 위하여는 기도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 믿음의 문제에 대한 "기도 만능주의자"들의 천편 일률적인 대답이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믿음은 "하나님의 성신을 의지하여 성경말씀을 배우고 깨달음으로서" 생기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한 Moody목사의 회상담을 들어보자. "나는 믿음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다. 그리고는 언젠가는 번갯불과 같이 마음을 뜨겁게하는 믿음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은 오는것같지 않았다. 그런데 하루는 우연히 로마서 10장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읽고서 기도한후 성경을 읽으며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 후로 나는 나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잠깐 무작정 기도하는 것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자.

"기도 만능주의자"들은 기도만 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을 그리스도의 이 말씀 즉 "너희가 기도할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마태21:22)"을 분명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이 말씀의 "무엇이든지"만 생각하고 "믿고 구한다"는 말의 참 뜻은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믿는 자들은 자기 자신의 현세적, 종교적인 욕심을 위하여 "기도"를 남용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많음은 물론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오히려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잠언28:9)". 즉 성경을 통하여 보이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보려거나 들으려고는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구실하에 자기의 말만 계속 아뢰는 것은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시는 바"라는 뜻이다. 이는 요즈음과 같이 "기도 만능"의 사상이 팽팽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할 귀절인 것이다.

우리가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그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긴다면 그 다음의 문제로는 "그 믿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우리가 믿는 내용도 없이 무엇을 믿는다고 말할수 없기 때문이다.말할것도 없이 우리는 "십자가의 도" 즉 "복음"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말로 "복된 소식" 또는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다. 우리가 복음을 믿었다면 "기쁘다"라는 것이고 그 소식은 과거에도 기뻤던 소식이었고 현재에도 기쁜소식이 되고 또한 미래에도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복되고 기쁜 소식"인 것이다.

그러나 그 복음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고 있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없이는 구원을 받을수 없다고 선언하실 뿐아니라 "거짓 복음"에는 하나님의 참 능력이 따르지 않는고로 "헛된 믿음"이 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않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은 모든 믿는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롬1:16)"고 했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고전15:2)"고 하여 헛되지 않은 믿음이 참 "구원" 즉 "기쁨"을 일으킨다고 쓰고있다. 그러나 복음의 실제적인 효과 즉 "지속적인 기쁨"이 믿는 자에게 발생되지 않고 있다면 과연 내가 복음을 믿는 자인지 아닌지 반성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성경은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사신일(고전15:3-4)"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즉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일"이 복음의 내용인 것이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항상 기쁜 소식"이 되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복된 소식으로 받아들여 지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깨달아 알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참으로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이미 선고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비롯된다. 그리고는 인격신이신 하나님을 더욱 알아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상태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비참하고도 어찌할수 없는 형벌의 상태에 놓여 있음을 절실히 느끼고 있어야만 한다. 그때에 하나님의 자비로 마련해 주신 "구원의 길"이 있음을 발견했을때 이 "복음"이 감사와 큰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자이신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를 낮추시사 인생이 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시고 또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신 후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무죄로 인정한다"고 선포하시기 때문이다. 그런고로 이제는 심판자 앞에서의 형벌과 공포와 반항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서 그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순종인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실을 믿을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 (영생,또는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로 낳으신 것이다. 그래서 믿은후의 우리를 "새 사람(에베4:24)"라 부르고 믿기전의 우리를 "옛 사람(롬6:6)"이라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그 "새 사람"은 새로 낳음을 받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양육과 장성이 필요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성신(성령 또는 하나님의 신)"을 각 믿는 자들에게 보내시사 그 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장성하도록 늘 보양하신다. 이렇게 성신께서 우리 안에 항상 거하고 계심으로 성경에서는 믿는자 각 개인을 "하나님의 성전(고전6:19)"이라 부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전3:16-17)"고 하여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순결해야 할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그런고로 복음을 참으로 믿는 자는 영원한 형벌이 면제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영생)으로 새로이 지음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성신께서 늘 그와 함께 거하시사 은혜의 방도로 주신 여러가지들, 즉 하나님의 말씀, 믿음, 성례들, 기도, 찬송, 헌상, 예배…등등을 쓰셔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마련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의 내용들과 언약들을 신자들의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이렇한 자들이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들이야 말로 "복된" 사람들인 것이다.(다음주(1982.4.)에 계속)

개혁장노교회 :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이태영 : 492-9889)

실협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실업인협회
20 MOBILE DR.
TOR. ONT.
M4A 1H9
☎: 752-7771

〈회원탐방〉

김태진이사장

김태진 이사장이 캐나다에 처음발을 디딘것은 1972년.

서울공대 섬유과를 졸업, 오랫동안 한국의 유수한섬유회사 공장장을 역임한김이사장이 Simpson Sears의 Supervisor생활 1년을 거쳐 생소한 장사, 그것도 "구멍가게"를 시작한것은 1974년이다.

그전까지 후회도 많이하고, 육체적인 고통보다도정신적인 피곤함에 우왕좌왕했었다고 이민초기를 회상하는 김이사장은 현재 이스링톤 소재 고급아파트내의 아카데미 틱·샵을 경영하며, 같은 서울대학의 미대출신 부인 김영주씨와더불어 슬하에 네따님을 두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

협회의 비전과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냐는 기자질문에 현재 차선겸회장이하 집행부 임원전체가 일체가 되어 협회발전을위하여 전력투구를 하고 있으므로 내년초쯤이면 협회의 협상을 통하여 우리 회원들이 현저한 혜택을 받을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김태진씨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협회의 차원에서 수퍼딜을체결하였다손 치더라도 회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호응하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집행부의 노력은 무용에불과하다.

아직도 다수의 회원들이 보다 유리한 협[illegible] 딜을 외면하고, 때로는 눈앞의한 푼만을 생각하여 단결치못할때 안타까운마음 금할길이 없다. 단결만이 협회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Complaint 상담실의 운영과 협동조합 설립추진문제에 대하여서는 지난2월 상담실 설치이후 월 70~80여건의 상담및 처리의뢰가 들어오고 있으며, 많은 회원들로부터 감사의 전화를 받고있다.

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해서는 집행부의 차회장과많은 시간을 연구하고 토의중이다. 지난번 실시한 회원의 여론조사결과에서도 밝혀진바와 같이 절대다수의 회원들이 지지하고 있으므로 가능한한 조속한시일내에 설립을 위하여 박차를 가하여야 하겠으나설립이후의 효율적인 경영관리상의 문제및 Warehouse의 관리문제등 선행되어야 할 연구과제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하였다.

끝으로 협회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올해우리협회의 표어와 같이 협회의 성장이 곧 우리들의 사업성공임을 절감하고 인식하여, 먼 장래를 내다보고 협찬 성원이 있으시기를회원여러분께 부탁한다고 김이사장은 말하였다.

〈실협편집실 이정구 기자〉

정세용씨 BEEF JERKY

온타리오총판권 획득

교포 정세용씨는 Alberta Fancy Sausage Ltd.의 다이어트 식품중 하나인 Beef Jerky의 온타리오 총판권을 획득하였다.

이는 현재 시판되고있는 "Hot Rod"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알버타산 순쇠고기에서 만들어진 포의 일종으로 이미 미국및 캐나다 서부지역에는 널리 보급된 품목이다.

정씨는 특별할인 가격으로 협회원 상점에 보급하기를 희망, 본협회를 방문하고 협회원의 협조를 부탁하였다.

고문변호사·추천변호사

	성 명	전문직	전 화
고문변호사	강찬영	Family, Business	537-3171
추천변호사	M. Chilco	Family, Criminal Impaired Driving	657-1960
	M. Klein	Criminal, Immigration	535-3797
	R. Levine	Business	536-1151

회사별 협약내역 일람표

협회는 4월1일 현재 각종 공급회사와 체결한 회사별 협약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 소개하였다.

협회의 집행부는 아직도 많은 수의 회원들이 협회가 체결한 딜보다도 불리한 딜을 개인적으로 계속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보다 많은 협회원들이 협회의 딜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여주기를 희망하고, 그럼으로써 협회는 강한 자세로 협상을 주도할 수 있으며, 동시에 우리 협회원들을 위하여 최대의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딜을 성공 시킬 수 있다고 호소하면서 보다 많은 협회원들이 협회의 대열에 동참하여 실협의 성장이 곧 우리들의 사업성공과 직결됨을 인식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ROSEN DAIRY MILK

매상/Period	리베이트 율
최하 $750-$1,300	15%
최고 $5,000 이상	28.5%

◉유효기간은 1982.3.22부터 1984.4.4까지이다.
◉Code 지난 상품의 반환은 1%까지 허용한다.
◉이 리베이트율은 Silverwood Milk 와 Cream, 그리고 오렌지쥬스와 애플쥬스에만 적용된다.

SEALTEST MILK

매상/Period	Milk와 Cream	기타상품
최하 $900.99까지	14%	14%
최고 $4,501.00이상	28%	25.5%

YORK ICECREAM

연 매상	회사장비	연 매상	자기장비
$3,000-$4,500	16%	$2,000-$3,000	4%
$4,500-$7,000	17%	$3,000-$5,000	18%
$7,000-$9,000	18%	$5,000-$8,000	21%
$9,000 이상	21%	$8,000 이상	23%

◉Rebate는 매 3개월마다 지불한다.
◉회사소유 장비의 고장과 이로 인한 손실은 회사가 책임. 단 상점내의 전기사고에 대해서는 무책임
◉상점소유의 장비고장과 이로 인한 손실은 무책임.

NEILSON ICECREAM

연 매상	회사장비	자기장비
$3,000-$5,000	12%	16%
$5,000-$7,000	18%	22%
$7,000 이상	20%	24%

◉Rebate는 배달시 직접 Discount한다.
◉장비고장 수리는 회사장비인 경우 부속은 회사가 부담하고, 인건비는 상점이 부담한다.(시간당 $20.00)
◉상점소유의 장비고장은 부속, 인건비 공히 상점이 책임지고, 부속은 회사의 가격에 의한다.

MULTIMEDIA POCKETBOOK

3개월 매상	원 가	리베이트
$800이하	30% off	없음
$800-$1,500	30% off	2.5%
$1,500-$2,000	30% off	5%
$2,000 이상	30% off	7%

◉Rebate는 매분기말 15일 이후에 지급

HUMPTY DUMPTY

◉매월 Special Item 있음
◉2개 회사 이상 취급하는 경우 16% Rebate
◉Humpty Dumpty만 취급하는 경우 21% Rebate

JOHNSON NUTS

◉소매가격에서 30% Discount, Discount된 금액에서 10% 추가 Discount

MODERN HOSIERY(Stocking Supplier)

◉협회원에게는 Special Discount

CAMELOT SUNGLASSES

◉Old Stock Change및 Special Discount

VIDEO AMUZEMENT LTD.

◉3,4월중 설치하는 협회원에겐 $100 Rebate

GLOBE PEST CONTROL

◉월 $8.00 균일
◉Initial Charge 없음
◉장기계약 불요

HALTON CAIRD INSURANCE

◉Building Stock Insurance
◉협회원에겐 Special Discount를 제공하며 보상범위가 넓음

SKYWAY BUSINESS MACHINES

◉전자계산기, 계산기 종이roll및 판매·수리 일체 협회원에게 대해서는 30% Special Discount

DOMINION SMALLWARE

			비회원	회원 REGULAR ITEM	SPECIAL ITEM
CASH & CARRY		RETAIL ITEM	정규 Dis. +7%감	추가 5%감	추가 2%감
		NET ITEM	없음	2%감	없음
DELIVERY	Charge	RETAIL ITEM	없음	3%감	없음
		NET ITEM	없음	없음	없음
	C.O.D.	RETAIL ITEM	2%감	5%감	없음
		NET ITEM	없음	2%감	없음

DEMPSTER'S BREAD

종 류	규 격	원 가
O.K. Bread	675gm	66.5센트
	450gm	57.1센트
기타 Bread		7% Rebate

GENERAL BAKERIES BREAD

종 류	원 가
R & O Bread	67.7 센트
기타 Bread	8% Off (return 조건)
	5% 추가 Off(no return 조건)

회원 주소록

칠성인쇄소

지난4월9일(금)본실업인협회사무실에서 실시한 협회원 상점주소록의 입찰은 칠성인쇄소(대표 이인용)에 낙찰되었다.

윈슨, 비둘기, 썬, 어드벤처, 콜로바, 스피디등 7개의 한인인쇄업체가 참여, 응찰하여준 이번 입찰은 협회가 사전에 책정한 예정낙찰가격($4,500)이하의 응찰가격중 최저 가격제도를 채택하였던바, 예상외의 경합끝에 칠성의 이씨에게 $2,670.85의 최저 가격으로 낙찰되었다.

낙찰이 결정된후 이씨는 "예상외의 경합으로 인하여 협회는 상당한 액 수의 비용을 절약하였다"고 언급하였다.

금번 발행될 주소록의내용은 협회원의 상점명및주소, 본협회의 연혁, 주요도매상및 계약체결회사 명단등이 수록될 것이며, 5월초 협회사무실 이전시에 배부될 것이라 한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8. mo. 구독료(선금)연 $99 월$9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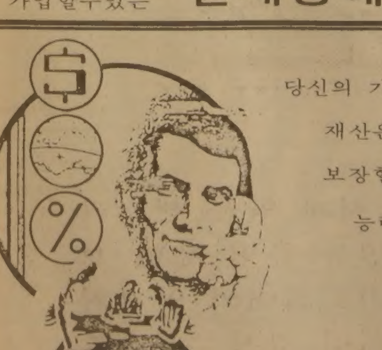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프로축구 블리쟈드를 즐기자
입장권 — 한국일보사 533-2361
예매처 브랜돈스포츠 598-3732

三國志 355 글·高羽榮·그림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영철

실협회원만이 가입할수있는 **단체상해보험**



당신의 가장 귀한 재산은 수입을 보장할수 있는 능력입니다.

CAROLINA LIFE & ACCIDENT INSURANCE COMPANY 은
당신의 수입의 손실을 보호해드립니다.
◇사고 당일부터 현금으로 드립니다.
◇별도 지정인이 없는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정부나 기타 보험회사의 보상에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해 드립니다.
◇직장내외를 막론하고 24시간, 365일 보호합니다.

전화224-2235 DEAN VERNON 을 불러 주세요.

1 BOX(48 PKGS) $13.70

술안주·다이엩용 스넥으로 한번 잡수어 보신분은 꼭 다시찾는 알버타산 순 쇠고기 포!

본인은 금번 본사와 온타리오주 총판권 계약을 맺고 소매상을 경영하시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온타리오주에서는 처음 취급되는 비프 저-키를 판매중이오니 언제든지 주문하시면 즉시 배달해 드리겠읍니다.

BIG CHIEF ONTARIO 총판
정세용 244-2483

멀티메디아 포켓 북
(MULTIMEDIA DISTRIBUTORS)
127 TELSON ROAD MARKHAM
ONTARIO, L3R 1E7
TEL. (416)495-9499

실협 회원 여러분!
우리는 한인 실업인협회 (O.K.B.A)와 협약을 체결하고 Pocket Book을 공급 써비스하게 되었읍니다.
협약내용은 아래와 같사오며 자세한 것은 언제나 전화를 주시면 세일즈맨을 보내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협 약 내 용〉
1. Net Billing — 30% Discount
2. Rebate(매 3개월 분기별)

$800이하	없음
$800-$1,500	2.5%
$1,500-$2,000	5%
$2,000 이상	7%

(Rebate는 매분기말 15일이후 지급)
1982년 2월 19일
사 장 Joe C. Dwek

SKYWAY BUSINESS MACHINES

SPECIAL 30% OFF FOR K.B.A MEMBERS

1. 각종전자계산기 수리
2. Paper Rolls (each case=100 rolls)

SIZE	Regular Price	Special
27mm ×79.5mm	$72.60	$50.82
37.5mm×79.5mm	$81.40	$56.98
40mm ×76mm	$83.10	$58.98

3. NCR Style (수동식)

SIZE	Regular Price	Special
53mm ×12mm	$154.00	$107.80
33.5mm×50.5mm	$50.60	$35.42

◆캐쉬 레지스타 ◆복사기 ◆계산기 ◆각종 타자 기

SHARP, 3M, MITA COPYSTAR, IBM
Sales-Leasing Repairs & Services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B) 675-1295~6 (R) 671-0938
김인환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全국무위원 "意識개혁 先鋒에"

"내自身·내部署 책임실천" 決議

劉총리 "이번만은 비장한覺悟로 임해야"

決議文 全文

우리국무위원일동은 제5공화국의 國政지표이며 대통령각하의 경륜이신正義사회구현을 위한 意識개혁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개혁운동의 成敗가 우리 국무위원을 포함한 全公職者의 솔선수범에 달려있음을 깊이인식하고 어떤난관과 고통이있더라도 전국민의 최선봉에서서 나자신、내가족、내部署에 대해서는 내책임하에 이운동을적극실천함으로써 민족의 숙명적과업을 기필코 완수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劉彰順국무총리를 비롯한 전국무위원들은 의식개혁에 지도층이 솔선수범한다는 정부방침에따라 13일하오 국무회의에서 『어떠한 難關이 있더라도 전국민의 최선봉에서서 의식개혁운동을 적극실천하겠다』는 내용의 決議를 다짐했다。

이날 전국무위원들은 이날 채택한 決議를통해 『의식개혁운동의 成敗가 국무위원을 포함한 全公職者의 솔선수범에 달려있음을 깊이인식하고 어떠한 난관과 고통이있더라도 전국민의 최선봉에 서서 나자신、내가족、내부서에대해서는 내책임하에 이운동을 적극 실천하겠다』고밝혔다。

李光杓문공부장관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뒤 국무위원들이 署名한決議文을 발표하면서 『제5공화국의 國政지표이며 全斗煥 대통령의經綸인 정의사회구현을위한 의식개혁운동을 시작할 즈음에서 지도층이 솔선수범한다는 정신에따라 이같은 결의를하게 된것』이라고 국무위원들의 결의배경을 설명했다。

劉총리는 이날 국무위원들의 결의에앞서 『과거의 각종 국민운동이나 여러차례에 걸친 庶政刷新노력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못한것은 공직자등 사회각계 지도층 인사들이 特權의식과 例外의식을 가지고 이러한운동에 임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不信과빈축을산데 그원인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劉총리는 이어『이번만은 국무위원모두가 비장한 각오를갖고 의식개혁에관한 실천에 앞장설것을 결의하자』고 당부하고 정부의 주요행사때마다 의식개혁운동의 실천을 특히 강조해줄것을 지시했다。

◇13일 閣議에서 劉彰順총리를 비롯한 全국무위원들이 意識개혁운동을 기필코 성취시키겠다는 決議를 하고있다。

안티카國 副首相에 全대통령、勳章수여

全斗煥 대통령은 13일하오 청와대에서 中美카리브海 안티카·앤드·바뷰다國의 레스터·브라이언트·버드副首相겸 外相일행을 접견하고 버드副首相과 로빈·이어우드 農林相에게 각각 修交훈장光化章을 주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3개 間諜網 18명 검거

安企部 10명拘束·1명불구속·7명訓放

서울·安東거점 16명 暗躍25년

機密탐지…南派간첩 案內·은닉

船員가장 日서 指令받고 國內로 (日本우회網)

星港서 포섭돼 公館에 위장자수 (海外취업網)

국가안전기획부는 13일 서울과 安東을 거점으로 25년간 장기암약하던 고정간첩 安承崙(51·極東건설揷橋川현장자재담당) 등 일당16명과 浦項을 거점으로 15년간 암약해온日本우회간첩 金俊普(40·浦項제철중기운전원) 및 싱가포르에 해외건설근로자로 취업중 北傀공관 해외공작원에게 포섭된 간첩金相鎬(24·雙龍건설노무자) 등 3개간첩단 18명을 검거、이중 10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7명은 관용을 베풀어 훈계조치했다고 발표했다。

★個人別 범죄내용 10面

◇간첩 安承崙 ◇간첩 安承槿 ◇간첩 金近淵 ◇간첩 金貴海 ◇간첩 金俊普 ◇간첩 金相鎬 ◇방조 安柄一 ◇방조 姜瓊昌 ◇방조 安粉實 ◇방조 李東英 ◇편의 金熙星

발표에따르면 서울과 安東을 거점으로활동해온 간첩 安承崙、安承槿(47·롯데건설洪城현장관리과장)、金近淵(59·전S신문安東지국장)、金貴海(48·安承崙의처) 등 일당 16명은 6·25때 서울시인민위원회 간부로 부역하다 월북한 安承逑(62·安承崙의 형)이 57년~69년사이 5차례나 대남간첩으로 침투해 심은 고정간첩들로서 61년2월 북괴공작금으로 서울龍山區漢江路3가에 위장업체인 「쌀가게」와 「금강본드사」 등을 개업、거점을 구축하고 밀실을만들어 남파간첩들에게 20일~50여일씩 은신처를 제공해 장기잠복케하는한편 회사간부의 위조신분증을주어 비호한다음 관광객으로 가장시켜 서울에 있는 주요국가기관을 답사、경비실태、군사시설、건설산업정보등을 탐지해왔다는 것이다。

또 전S신문 安東지국장인 金近淵은 당시 安東경찰서가 발행한 기자용 야간통행증을 남파간첩에게 제공、신분을보호해 경찰지프까지 빌어타고 해안선경비 실태를 탐지하는 등 함께 간첩활동을해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남파간첩安承逑의 친척들로서 성묘객、관광객、부부등으로 위장、경기 抱川에있는 大院君묘지와 金村 坡州여상부근 언덕에설치된 2개의 북괴무인포스트를 연락거점으로 이용하면서 북괴의 지령문、무전기、공작금등을 수령하고 이무인포스트를통해 수집한정보를 북괴에 보고해왔으며 남파간첩들이 복귀할때는 북귀지점인 北沃溝、全南珍島、京畿金村등 안전지점까지 안내、엄호해왔다。

특히 주범 安承崙은 6·25때 晋州、河東등지에서 북괴 내무서원으로 우익인사들을 색출、처단하는등 악질부역을 하다가 월북하지 못하고 남으로 떨어져 부역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휴전후 한때 경찰에 들어가 金泉、丹陽경찰서에 근무한자로서 60년10월 두번째로 남파한 재북간첩安承逑를 따라 珍島앞해상에서 북괴공작선편으로 대동월북、노동당에입당한후 平壤牡丹峰초대소에서 15일동안 간첩밀봉교육을 받고 잠입、친·인척들을 중심으로 지하망을 조직하고 수시 망원(網員)들에게 철저한 비밀고수、위장활동요령등에 관한간첩교육을 시키며網員으로암약해왔다。

한편 浦項을 거점으로 암약해온 간첩 金俊普는 66년12월 외항선기관장이던 외척인 金延洙(50·가명·현재北韓)에게 부탁、소위 나일론선원으로 위장도일、재일조총련간부인 金光坤(67)의 안내로 북괴재일공작지도원 李모(40)로부터 북괴의 우월성등에관한 사상교육을받고 포섭돼 약 1개월간 大阪소재비밀아지트에서 음어연락방법등 비밀통신교육과 친목계를 이용한 지하망조직방법등에 관한 간첩교육을받은후 국내에잠입、암약해왔다。

犯人들 인적사항

일망타진된 간첩중 검찰에 송치된자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安承崙(51·서울永登浦區新吉洞144의4) 極東건설揷橋川현장사무소 자재담당직원 ▲安承槿(47·〃新吉6洞) 롯데건설 洪城현장사무소관리과장 ▲金近淵(59·경기富川市中洞3) 전S신문安東지국장 ▲金貴海(48·安承崙의처·서울永登浦區新吉洞144의176) 한국화장품외판원 ▲安柄一(39·安承逑의長女·부산西區西大新洞3가의5) [illegible] ▲姜瓊昌(60) [illegible] ▲安粉實(54·安承逑의처) [illegible] ▲李東英(40·富川市中洞3·安承槿의처) 가정주부 ▲金熙星(68·서울永登浦區新吉6洞) [illegible] ▲金俊普(40·慶北迎日郡烏川邑文德洞4) 浦項제철중기운전기사 ▲金相鎬(25·서울冠岳區奉天5洞4의37) 雙龍건설기능공

世襲불만、對南도발 打開속셈

국가안전기획부는 13일 3개 간첩단검거를 발표하면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고정간첩이나 침투간첩색출에 앞장서 불순분자들을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그들이 우리주변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경계해달라』고당부했다。

安企部는 『북괴가 6·25때 월북자를 간첩으로 남파、친혈육을 간첩조직에 끌어들여 間諜網을 부식하고 세계도처에서 우리 해외취업자와 여행자를 포섭、간첩으로 침투시키는 술책을 쓰고 있으며 최근에는 요인살상·납치·중요시설파괴등 각종 폭력공작을 시도하고 있다』고지적、『전국민이 스스로 자위정신을 발휘하여 북괴의 음모와 도발을 철저히 분쇄하자』고 말했다。

안기부는 특히『북괴는 釜山미문화원방화살인사건과같은 흉악한 범죄를 애국적소행이라고 절찬하면서 폭력적인 반미투쟁을 선동하고 있다』고 밝히고 『金日成 金正日부자 세습체제구축에 따른 그들 내부의 불만을 대남도발로 타개해보려는 속셈』을 사전에 분쇄하자고 말했다。

國會 25일께 召集검토

부시美副統領 訪韓연설 듣게

국회는 오는25일로 예정된 조지·부시美부통령의 訪韓에즈음하여 제111회 임시국회를 하루또는 이틀의 短期일정으로 소집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관계자는 13일본회의에서 부시부통령의 연설을듣는 이와 관련、『부시부통령의 연설을듣기위해 短期국회소집문제가 검토되고있다』면서 『외무부와 駐韓미대사관을통해 부시부통령의 구체적인 滯韓일정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李鍾贊 民正黨총무는 『滯韓일정문제가 결정된뒤 연설을위한 국회소집여부가 결정될것』이라고 밝혔고 林鍾基民韓黨총무도 『부시부통령의 연설을듣기위한 임시국회소집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民韓、地下鐵붕괴다룰 常委소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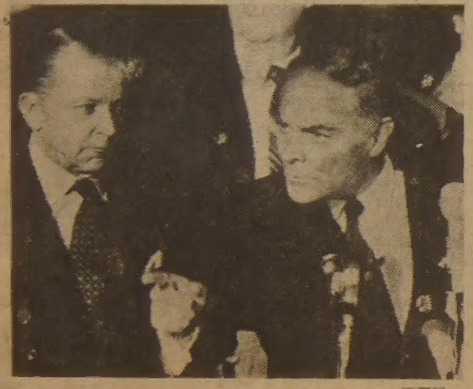
서울市長 引責 요구키로

民韓黨은 13일 상오 당무회의를 열고 서울峴底洞地下鐵공사장 붕괴사고대책을 협의、이 문제를다루기위해 국회內務委와 建設委의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

民韓黨은 또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물어 서울시장과 地下鐵공사책임자의 引責、해임과 사고공사업자를 制裁할것을 정부에 촉구키로했다。

한편 民韓黨은 이날 地下鐵공사장 붕괴사건을 조사하기위한 자체 6人調査團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孫世一(단장)高炳鉉·徐淸源(이상 국회내무위)·崔守桓·申元湜·金炯來의원(이상 국회건설위)등이다。



◇英서 마라톤會談 헤이그 포클랜드위기를 둘러싸고 중재외교를 벌이고있는 알렉산더·헤이그 美국무장관(右)이 12일 런던 다우닝街 10번지에서 마거릿·대처수상을 비롯한 英國지도자들과 11시간30분에걸친 마라톤회담을 끝낸후 기자들에게 회담결과를 설명하고있다。왼쪽이 프랜시스·핌 英國外相。【런던12日AP電=聯合】

아르헨、72시간休戰 수락

포클랜드事態 英도 검토、곧回答

【리마12日綜合】아르헨티나는 영국의 포클랜드해역봉쇄가 시작된 12일 하오1시(한국시간)를 기해 72시간의 휴전을 실시하라는 페루의 제의를 수락했으며 영국정부도 페루의 휴전안을 검토、곧 회답을 보내올것이라고 하비에·아리아스·스텔라 페루외상이 12일 말했다。

아리아스·스텔라외상은 이날 한기자회견에서 11일자페루정부의 휴전안제의에 대해 니카노르·코스타·멘데스아르헨티나외상으로부터 『아르헨티나는 페루정부의제의를 환영하며 무력충돌을 불러일으킬 어떤 행동도 자제할것이라는내용의 전문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아리아스·스텔라외상은 영국도 페루의 제의를 『최고위급수준』에서 검토하고있으며 『가능한 조속히』 회답을 보내올것이라고 말하면서 알렉산더·헤이그 미국무장관역시 페루의 선도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戰爭水域안에 아르헨艦없어

【부에노스아이레스·런던12日AP·綜合=聯合】영국은 아르헨티나군이 강점한 포클랜드군도주변 2백해리해역에 대해 당초 경고한대로 12일하오1시(한국시간)를 기해 「전쟁수역」을 선포、포클랜드탈환을 위한 군사행동에 착수했으나 양국함대간의 적대행동은 보고되지않고있다。

영국의 국방성대변인은 전쟁수역선포 8시간만에 발표한 한 성명을 통해 이수역내에 아르헨티나해군함정이 머물고있음을 알리는 조짐은 전혀 없다고 확인했다。

仲裁 새 難關

헤이그、英서 會談계속

아르헨向發 연기

【런던·부에노스아이레스13日AP·聯合=綜合】포클랜드군도분쟁을 해결하기위한 알렉산더·헤이그 미국무장관의 중재노력은 영국과 아르헨티나간의 심각한 이견때문에 난관에 봉착한것으로 13일 알려졌다。

헤이그 장관은 이날상오 영미국대사관을 통해 성명을 발표、포클랜드사태를 에워싼 중재협상에서 쌍방간의 상당한 견해차이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에따라 이날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다시 방문하려던 계획을 연기하고 영국 지도자들과 일련의 회담을 계속할것이라고 밝혔다。

헤이그 장관보좌관들과 영국관리들은 헤이그장관이 이날하오5시(한국시간) 마거릿·대처 영국수상및 프란시스·핌 외상과 회담할것이라고 전했다。

對北提議 더안해

金韓赤총재 밝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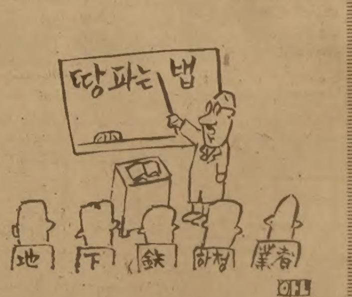
【淸州】대한적십자사 金溶植총재는 13일『앞으로 북한측에대해 이산가족문제나 올림픽참가여부에 대해서는 더이상의 제의나 제안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88올림픽 조직위원장이기도 한 金총재는 이날 상오 忠北적십자사를 초도순시하기위해 淸州에 들러 이같이 밝히고 88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적십자간에 새로운 관계개선문제에대해『北韓측의 서울올림픽참가를 대한체육회가환영하고 있으므로 이모든것은 北韓측에 달려있다』고말했다。

地平線

사과상자에 썩은 사과가 하나라도 있으면 멀쩡한 딴 사과도 썩마 안가 웬일인지 썩는것을 흔히본다。알고보면 果實熟成 호르몬인 에틸렌이 퍼졌기때문이다。미국에서는 이 에틸렌을 거꾸로 과일성장촉진제로 쓴다。▼사과、포도、파인애플、딸기、귤은 물론 토마토의 대량재배에는 에틸렌이 꼭필요하게 돼버렸다。몇십만평이나 되는 토마토대단지에 비행기로 에틸렌을 뿌리면 토마토의 경우 두주일이나 수확을 빨리할수 있다。그뿐아니라 수확기가 똑같아지기때문에 수확 능률이 오르고 영농기계화에 없어서는 안될 농약이 된것이다。덜익은채 딴 시퍼런 수입 바나나에 뿌려 노랗게 만드는 것도 이 에틸렌의 작용이다。식량증산을 하기 위해서는 품종개량과 함께 농약、비료의 개발이 중요한데 식물성장 조절호르몬이 유전자공학 못지않게 녹색혁명에 중요한 것을 알수있다。▼값비싼 쌀을 들여와야하는 우리나라에도 쌀이 60%나 증산 될수 있는 「트리아 콘타놀」이라는 식물 호르몬이 한미공동연구결과 실용단계에 들어섰다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벼증수는 물론 단백질마저 보통쌀의 2·5배나 된다고하니 반가운얘기다。벼60% 토마토 49% 감자21%、보리67% 콩40%의 증수효과를 기대할수있고 값도 3만평 논밭에 7천원 정도밖에 안든다고 한다。이 새로운 식물 호르몬의 화학구조식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세계적 특허라고한다。▼식물성장촉진제에 폴라리스라는것이있다。옥수수나 사탕수수가 성장할때 여러가지 糖類가 생산되지만 스스로의 에너지로 대부분소비한다。옥수수가 성장을 멈추면 줄기에 당분이 저장되고 이때가 수확—사일레지에 적기이다。한데 날씨가 나빠져 비가 쏟아지면 옥수수나 사탕수수가 다시 성장을 새로이 하며 이때 당분을 다시 소비하게된다。폴라리스를 수확한두달전에 뿌리면 수확기가 빨라지면서 당분함유량을 최고치로 유지하는 기간이 오래간다。사탕수수의 경우 사탕 함량이 25%나 증수된다。옥수수나 사탕수수의 이 생리현상을 이용하는것이 농업기술이기도하다。▼모두 놀랄얘기들이다。이제 식물호르몬을 이용한 녹색혁명도 우리코앞에 와있다。식량증산에 우리의 우수한 머리를 보일때가 온 것이다。국가적인 적극지원이 있어야 할것은 물론이다。

社會漫評



教育을 하기로…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궁중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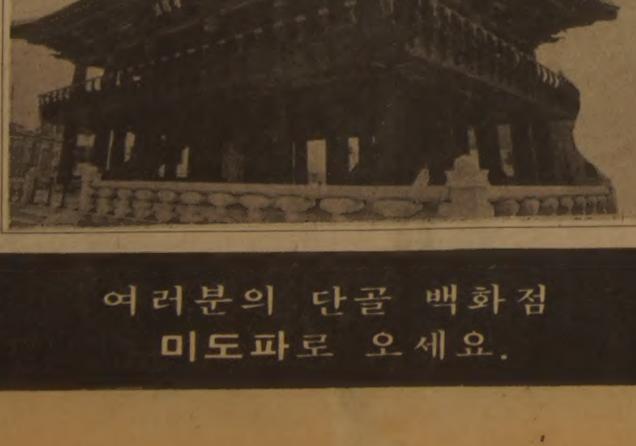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신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모국 방문을계획하십니까？



미도파 백화점에서는 고급화장품, 금·은보석시계, 양품, 썬그라스, 고급의류, 여행용가방, 핸드백, 한약및 비타민등 유럽 유명 브랜드 제품을 한자리에서 짧은시간과 적은 경비로최대의 염가와 최선의 써비수로 봉사하오니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미도파 백화점 백

※ 좋은제품 좋은가격은 항상 만족한 기쁨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단골 백화점
미도파로 오세요.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TORONTO, ONT.
B. 536-1692 R. 245-3539

팔住民 대대적 示威
이선시나이不撤收 비쳐
또 먹구름끼는「中東平和」
回教참배객 총격이 새불씨

부활절인 지난11일 회교도 제3의 성지 東예루살렘의 오마르사원에서 한유태인이 회교참배객들을 총격살상한 사건으로 요르단강서안을 비롯한 이스라엘점령지역에서 팔레스타인주민들의 대규모 항의시위와 파업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13일 이집트가 만약캠프데이비드협정을 충실히 준수치않는다면 오는 25일로 예정된 시나이반도철수를 취소할지 모른다고 시사함으로써 중동평화는 또 다시 커다란 위협을 받고있다。

앨런·해리·구드먼(38)이라는 미국태생 유태인은 지난 11일 오마르사원에서 M16소총을 모슬렘 참배객들에게 난사、2명을 살해하고 30명을 부상시켰다。

이번 사태와 관련、예루살렘회교최고평의회는 즉각 팔레스타인주민에게 파업을 지시、요르단강서안과 東예루살렘、가자지구의팔레스타인주민은 모든 상점을 폐쇄하고 항의시위에들어갔으며 이스라엘軍이 이들에게 발포함으로써 쌍방간에 모두 2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軍당국은 요르단강서안 나블루스에서도 경찰을 공격하던 시위대원 4명이 이스라엘軍의 발포로 부상했으며 이 밖에도 이스라엘인 6명、외국관광객 4명、이스라엘병사 1명、TV카메라기자 1명등이 돌에맞아 부상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당국은 회교참배객에 대한 총격이 구드먼 단독범행이라고 발표했으나 사건현장의 한 목격자가 구드먼외에 또다른 2명의 유태인이 총격에 가담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아랍국가들의 분노는 더욱 고조돼가고 있으며 사우디와 쿠웨이트등의 아랍국가들은 12일 이번사건의 토의를 위한 유엔安保理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이스라엘당국이 시나이철수를 취소하겠다고 시사하고 있는데대해 이집트는 즉각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이집트는 이미 이집트에 대해 캠프데이비드협정의 요구보다 더많은 양보를 했으며 유태국가에 대한 더이상의 양보는 없다』고 카말·하산·알리외상을 통해 선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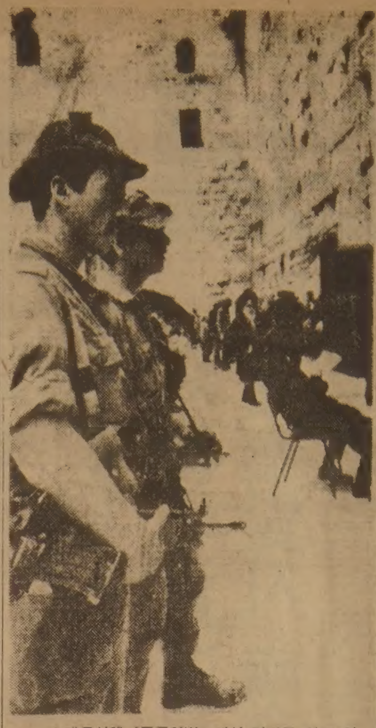
알리외상은 그러나『이스라엘의 샤론국방상이 이번주 카이로를 방문하면 양국간에 남아있는 이견은 해결될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카이로의 관측통들은 또한 시나이철수를 취소하겠다는 이스라엘당국의 시사가 시나이철수를 반대하는 과격파들을 무마하기 위해 나온 국내용일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중동평화를 깰 또 다른 불씨는 이스라엘측의 부인에도 불구、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가 레바논내 PLO기지에대한 이스라엘의 침공이 임박했다고주장、양측의 관계가 극도로 긴장되어가고있는데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PLO게릴라간의 긴장을 비롯、중동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일련의 분쟁해결을위해 월터 스토슬 국무차관을중동에 파견키로 결정、전쟁과 평화의 숨바꼭질이 벌어지고 있다。【崔相鎬】

레이건特使 곧 파견
사우디등선 安保理소집요구


◇예루살렘「통곡의벽」에서 경비를 서고 있는 이스라엘軍병사들。많은 유태인들이 逾越節과 부활절기간에 통곡의 벽을방문한다。【AP】

日春闘 36년만에 罷業없이 幕내려
私鐵、임금인상 勞使합의에 國鐵도 파업않고 調整키로

◇36년만에 파업을 모면한 올해의 일본國私鐵春闘。사진은 지난해春闘의 파업으로 텅비어있었던 역구내(上)와 지하철을 이용하려고 직장인들이 몰려든 모습(下)。

일본의 春闘가 36년만에 파업없이 끝나게 됐다。13일 스트라이크에 들어가려던 私鐵은 노사협의끝에 임금인상 1만4천5백엔선에 합의、파업을 하지않은채 春闘를 끝내고 정상대로 전차를 운행했다。

이로써 파업예정이던 國鐵도 파업을 하지않고 임금조정을 한다는 원칙을 세움으로써 私·國鐵이 함께 스트라이크를 하지않게된것은 36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다무라(田村)私鐵위원장은『국내외 사정이 어려운 이때 노사가협조、적정선에서 임금을인상하는것은 바람직하며、대국적인견지에서 파업을회피하는것은勞使서로에게유익한일이다』고말했다。

벚꽃이 활짝피는 4월이면 일본은 연례행사처럼 春闘라는 이름의 임금인상투쟁이벌어진다。노동자와 각 사무실의 고용원들은 머리에 빨간수건을 질끈동여매고 팔뚝에는「임금인상투쟁」이라는표어가 붙은 완장을찬채 봉급인상을 외친다。

國鐵을비롯 私鐵、기타기차와 전차、버스등 모든 교통기관이파업에 들어가 2천5백만명의 시민들이 발이 묶이는것이 예사이다。

春闘는 의례 2~3일간계속되는게 보통이어서 각급학교는 임시휴교에들어가고 관공서와 회사는 직원의출퇴근에 비상대책을 세우기일쑤。가까운근처의 여관이나 호텔을 전세내어 잡는가하면 그럴형편이 못되는회사는 사무실에 이불을 준비、직원을 재운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교원노조인 日教組와 國鐵등 관공노조연합체인 總評은 민간사철노조와 손을잡고 7~8%선인 1만4천~1만5천엔의 임금인상투쟁에들어갔다。

私鐵노조는 작년임금인상선인 1만4천7백엔을、경영자측은 1만3천9백엔을 각각 내세웠으나、막상 조정에들어서자 1만4천5백엔으로 쉽게 타결되어 파업의 혼란을 면케된 것이다。

이 인상률은 7.06%로 작년보다0.1%포인트가 낮은 것입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측이 이를 감수한것은 국제경제의 불황과 일본의 무역마찰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파업을 피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해야한다는 대원칙에 입각、노사가 협조한데있다。

노조와 경영자측은 임금인상 조정에 들어가기에 앞에『무슨 방법으로든지 파업은 피하자』는 대 전제밑에 12일 밤을새워 양측이 타협을 시도했다。

물가를 따라잡는 대폭적인 임금인상으로 물가앙등을 촉진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않기위해 노사양측은 합리적인 선에서 양보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자측은 임금인상투쟁은 우선 목표액을 높이 책정하고 경영자측은 반대로 가장낮게 책정하여 절반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상례이나 일본은 노사 모두가 경영내용을 세밀히분석검토하여 받을수있는 액수와 줄수있는 액수를 정확히 제시하기때문에 차액이 1천엔 내외에 불과하다。

어려울때를 맞아 노사가협조、파업없는 春闘로 끝내게 된것은 경제동물이라는 일본의 다른 하나의 얼굴을 보여주는것이다。【東京=宋孝彬특파원】

인사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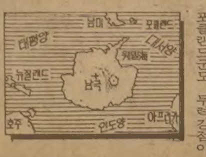
포클랜드占領 아르헨 南極대륙에도 눈독
地下資源 풍부…各國 이해맞서
59년 條約맺어 영토紛爭 잠잠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군도를 강점함으로써 지금까지 영토분쟁의 대상이 되어온 남극대륙에서 정치적 입장을 강화했다。

모두 일곱나라가 남극을 발견했다는 사실등 여러이유를 들면서 지하자원이 풍부한 1천5백50평방㎞ 크기의 남극대륙에 대해 영토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포클랜드는 40년동안 영국이 남극대륙에대한 과학탐사를 하는데있어 전초기지역할을 해왔다。

만약 이번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군도 무력강점이 남극대륙에 대한 영토권을 주장하기위해 이뤄진것이라면 이문제는 아르헨티나와 영국 두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칠레、영국、아르헨티나는 서로 비슷한지역에 대해 각각 영토권을 주장해왔으며 남극대륙에서 공동으로 과학탐사를 실시해오고있다。

아르헨티나는 영국이 20년전에 남극땅가운데 자국영토라고 선언한 1백50만평방㎞에 달하는 남극대륙의 땅이 아르헨티나領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 칠레는 아르헨티나가 자국령이라 주장하는 영토중 1백20만㎢가 자기땅이라 맞서고있다。

이땅은 남극에서 쐐기모양을하고 부채꼴로 펼쳐져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도 이지역에서 6백50만평방㎞가 자기땅이라 주장하고 있다。

22년전인 59년 12나라가 남극의 평화적이용을 위한 남극조약을 체결、공동으로 과학탐사에 착수함으로써 남극을 둘러싼 영토분쟁은 잠잠해졌다。

미국·소련·영국·서독·폴란드등이 남극공동탐사에 참가해 남극은 국제협력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 주기도했다。

91년에 개정하게될 남극조약은『남극이 영토분쟁의대상이 되어서는 결코안되며 오직 평화목적을위해서만 이용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지구전표면의 10분의1을 가진 남극대륙에 원유·천연가스·우라늄·금·다이어먼드·백금·철광석등이 무진장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다시 관계탐사국의 관심이집중되고 있다。

지질학자들은 남극대륙에 남아프리카와 남미및오스트레일리아에 버금가는 지하자원이 매장되어있을것으로 믿고있다。

또 남극해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새우같이생긴 갑각류 크릴이 무진장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헨티나·오스트레일리아·영국·칠레외에도 프랑스·뉴질랜드·노르웨이등이 남극대륙에 대해 영토권을 주장하고있다。

미국과 소련은 남극이 전인류의 공동소유라 주장하며 모든나라의 영토권주장을 배격하고있다。

남극조약은 영토권주장이 있음은 認知했지만 이 주장은 무기한 보류된다고 결정한바있다。

비록 포클랜드군도는 남극에 속하지는않았지만 오랫동안 남극탐사의 전초기지와 통신기지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영국은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군도 강점으로 인해 남극대륙진출에 큰손실을 입게된 셈이다。【런던13日外電=綜】

“自由勞組 再生위해 鬪爭”
波地下방송 구금人士 석방促求

【바르샤바12日外信=綜】불법화된 폴란드의 자유노조가계엄령에 도전、비밀리에 설립한 솔리다르노스크 지하방송이 12일하오9시(한국시간13일상오4시) 첫 실험전파를 방사、『우리는 구금인사의 석방、인간의 존엄과 자유노조의 재탄생을위해 싸울것』이라고 선언했다。

수만명의 바르샤바시민이 청취한 이날 8분30초간의첫 방송은 지난해 12월13일 계엄령선포이후 계엄반대자들이 보여준 가장 극적인 시위의 하나로서 위력을 보였다。

자유노조는 앞서 공공장소와 부활절예배중인 교회에 뿌린 전단을 통해 첫방송이 초단파방식으로 이날 발사될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한남자 아나운서는 방송을 시작하면서 시청자들에게 등불을 끄라고 요구한뒤 세차례에 걸쳐 수신여부를 확인했다。

이비밀방송은『여기는 솔리다르노스크(連帶) 방송』이라고 밝힌후 한여자아나운서의 목소리를 통해 자유노조의 재탄생을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방송은 전파방해없이 8분30초만에 끝났으며 다음방송은 오는4월30일 실시된다고 약속했다。

이날 방송에는 1명의 남자와 여자가 차례로 등장、이것이 단지 시험방송일뿐이며 궁극적으로 정규방송이 뒤따를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아나운서들은 시청자들에게 13일 계엄령선포 4개월을 맞아 하오9시부터9시30분까지 소등함으로써 계엄당국에 대한 항의를 표시하라고 촉구했다。

아나운서들은 또 시청자들에게 장차 같은주파수를 이용、「방해방송」이 발사될것에 대비、자신들의 목소리를 확인할수있도록 이날 방송을 녹음해두라고 당부했다。

北傀世襲에 內部반발폭발
統一日報보도 人民會議 하루만에 중단

【東京13日=宋孝彬특파원】북괴가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1차회의를 단 하루에 끝내고 이회의 직전인 3일에 당중앙위 제6기 제5차총회를 갑자기 연것은 세습강행체제에 대한 道당과 소장군인 및 학생들의 강력한 반발때문이라고 13일 統一日報가 북괴당국과 관련이 있는 소식통을 인용、보도했다。

統一日報는 이소식통의 말을 인용、당중앙위 제6기제5차총회가 道당등 하부압력에 의해 긴급소집됐던 것으로 이에 참석했던 당중앙위원전원이 현재 禁足令으로주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등 이상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統一日報는 또 북한각지에서는 金正日세습체제의 강행과 이를 위해 광분하고 있는 金正日직계의 3대혁명小組에 대한 반발로 폭동과 소요사태가 잇달아 발생、중앙위원의 3분의 2를 넘는 道당이 이를 수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보도했다。이신문은 道당간부들과 소장군인들이 이런 상태로는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1차회의를 예정대로 열 수 없다

미테랑 訪日
4일滯留 스즈끼와會談

【東京12日=綜】프랑스와·미테랑프랑스 대통령은 현직 프랑스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오는 14일부터 4일간 일본을 공식방문하기위해 10일 출국했다。

미테랑 대통령은 일본방문기간중 스즈끼·젠꼬(鈴木善幸)수상을 비롯한 日本의 정계및 재계지도자들과만나 간온서방의 정치및 경제동맹국으로서의 양국관계를 강조하면서 양국의격심한 무역불균형의 시정을 촉구할것으로보인다。

한편 日本의 우익단체들은 미테랑 대통령의 日本방문을 반대하기위해 소란을 피우지는 않을것으로 日경찰당국은 보고있다。

도오꾜(東京) 경시청대변인은 우익단체들이 미테랑대통령에 대해 호의적이지는않지만 관망하는 태도를 취할것이라고 말했다。

日경찰은 미테랑 대통령의 방문기간중 일어날지도 모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국내8백40여개의 우익단체에 대한 엄중한 감시활동을펴고있다。

◇팔青年 이경찰과 대치 팔레스타인청년들이 12일 유태인에 의한 알·아크사 사원총기난사 사건에 항의、이스라엘폭동진압경찰과 대치중 구호를 외치며 돌을 던지고있다。【예루살렘12日UPI電=綜合】

메아리
「臨政」 63돌

1945년 일본이 항복하고 그해11월29일 임시정부의 주요간부가 오랜망명생활을 청산하며 돌아왔으나 국내의 혼란으로 임시정부의 내각과 정책은 계승되지 못했다。그 상황은 벌써 歷史의 앨범이 되었다。

임정때 임시정부가 처음 세워진것은 3·1독립운동이 있었던 1919년 4월 중국 상하이에서 였다。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두게 된것은 지리적인 요충이자 여러외국의조계가 그곳에있어 정치적 망명객들이 행동의 자유를 보장받기 쉬운 까닭이었다。

독립운동의 영속화를 위하고 대외관계의 연락을 서로 긴밀하게 유지하는등 통일된 독립운동의 필요가 절실하여 세워졌던 이 임시정부에는 광복후의 정계를 주름잡았던 이승만、김구、이시영、신익희、김규식같은 요인들이 참획했었다。

그러나 이들은 살아서 광복된 조국에 돌아와 건국을 위해 이바지 할수가 있었지만 보다 많은 유명、무명의 독립지사들은 끝내 망명지인 중국대륙에서 복귀의 객이 되었다。

임정의업적으로 특히 기억에 새로운것은 1932년1월 이봉창의사로 하여금 일본천황을 저격케하고 4월에는 윤봉길의사로 하여금 일본육군대장「시라까와」를 폭살케했던 일이다。

이사건직후 임시정부는 일본의 탄압을 피해서 절강성 항주로、1937년에는 강소성 진강으로 옮겼다가 그해 11월 중국정부를 따라 중경으로 이전、일본에 항쟁하기 위해 장개석총통에게 협력하였다。

그 임정요원으로 뜨거운 국민환영속에서 환국했던 요인의 대부분은 이미 작고했으며 또 정부자체의 발자취도 자칫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퇴색하려 하고있다。

그래서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은 조국광복을 위해 몸바쳐온 독립지사들의 유지를 기리며 자주독립의 의지를 다지는 날로 뜻있게 해야하겠다。

바로 이런 취지에서 어제 한국독립유공자협회가 주최한 임정수립 제63주년 기념식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차분하게 거행되었다。

그 식전에서 유국무총리는『우리가 자주독립을 회복할수 있게 된데에는 애국선열들의 헌신과 고귀한 희생이 있었음을 잊어 안될것』이라고 강조했다。공감이 앞서지 않을 수 없는 말이다。

金日成 生日선물 50억엔 모금

【東京13日=宋孝彬특파원】조총련은 金日成의 70회생일을 앞두고「충성의 선물보내기운동」명목으로 일반인으로부터 10억엔、유력실업자로부터 40억엔등 모두 50억엔을 모금했다고 13일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조총련은 이돈으로 기계시설이 부족한 북괴에 합성수지제품기계、스텐인리스섬크대동의 시설물을 사서보냈다고 폭로했다。

또한 아사히신문은 金日成의 70회생일을맞아「인민에게 보내는 선물」용으로 북괴가 일본에서 모포2백만매를 수입했으며 그래도 모자라 홍콩에서 1백만매를 더 주문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모포업자들은 북괴의 갑작스런 모포구입에 뜻밖의 호경기를 누렸으며 홍콩에서는 3년전 나이지리아로부터 군대모포를 대량수입한이래 북괴가 모포를 많이 수입함으로써 모포값이 갑자기올랐다고 설명했다。

海外토픽

宇宙폐기물 심각
★파편수천개 地上도위협

지난57년 소련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가 발사된 이래 우주에 내버린 폐기물들이 크게 늘어 세계적 우려의 대상이되고 있으며 이는 우주비행사들뿐만 아니라 지상의 인간들에게도 위험을 주고있다고 미시사주간지 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지가 최신호에서 보도했다。

이 잡지는 못쓰는 연료탱크와 인공위성 로키트파편등 1만~1만5천개의 물체들이 시속 수천마일의 속도로 우주공간에서 돌진하고 있으며 특히 50여차례의 폭발로 생겨난 작은 파편들은 수천만개를 헤아린다고 말했다。【워싱턴=綜】

스트립쇼는 非藝術
★스위스當局 외국女性규제

스위스정부당국은 술집등에서 스트립쇼를하거나 나체로 근무하는 젊은 여성들에게「예술가」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예술가의자격으로 스위스에 입국한 외국여성들에게 옷을입든지 아니면 그들의 활동에 예술성을 가미하도록 지시、올리히·후바허법무성대변인은 외국「예술가들」의 입국을 촉진하기위한 법률에따라 노동허가가 쉽게 나오는점을 이용、흥행업자들이 스트립쇼나 나체군무등에 필요한 젊은 여성들을 아시아나 아프리카로부터 끌어들이는 사례를 막기위해 그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베른(스위스)=AP】

旅行費 최소25억원
★레이건 카리브5일나들이

美연방정부는 레이건 대통령의 5일간에걸친 카리브지구여행비용으로 적어도 3백50만달러(한화약25억원)를소비해야할것이라고。

워커美大使에 名博

리처드·L·워커 주한미국대사가 13일 하오3시 서울大에서 명예 정치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워커대사는 지난81년 주한대사로부임、양국간의 우의증진과 학문교류에 이바지한 공로로 이날 명예박사학위를 받은것이다。

◇3千年前 미이라 지난80년4월 中共 新疆省 로프노르(羅布泊)에서 발견된 여인의 미이라。3천2백여년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미이라는 갈색피부에 눈썹、모발등이 그대로 보존되어있다。【北京13日AP電=綜合】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브랜돈운동구점 봄맞이골프 SALE

세일기간 : 4월말까지

15종류 고급골프채와 초보자를 위한 골프채 준비

30가지의 골프 CART와 골프백들을 다량입하 !

그리고 세계최대 GOLF 신발 메이커제품인
ETONIC 골프신발과 TRETORN 골프신발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특히 여자들을 위한 골프의상이 준비
되어 있으며 동시에 남자용 GOLF T-SHIRTS
및 골프 세타가 준비되어 있읍니다.

BRANDON SPORTS
337 BLOOR ST W. 598-3732

한국일보 특집판

癌이 무너진다 <4>

세계의 抗癌前線…本社기자의 現地리포트

"어린이와 어른은 治療法 달라야"

어린이癌병동을 찾아 古都필라델피아로가는 機內에서 기자는 두가지 相反된 상념에 잠겼다.

운동장에서 즐겁게 뛰어놀 어린이들이 무거운 癌균을 지고 누워있는 장면을 대할것에대한 서글픔과 그래도 어린이를 어른과 따로 떼어 보호하는 어린이癌병동을 들여다볼수있다는 안도감이었다.

1885年 설립

필라델피아 어린이병원이 처음설립된것은 1855년。세계最古의 어린이 전문병원의 하나인 필라델피아 어린이병원은 그동안 4차례 이사를 한뒤 1974년 지금의 펜실베이니아대학 接境에 11층건물을 짓고 永住했다.

癌병동은 5층에 있다。81년 한해동안 이 암병동을 찾은 어린이암환자는 약 8백명。필라델피아중심의 펜실베이니아州、이웃 메릴랜드、뉴저지州등의 지방 손님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유명 병원에서 추천해 보낸 환자들이다。병원전체의 1981년 환자 총수는 입원환자 1만2백2명、외래환자 14만6천6백44명으로 총 15만6천여명이다.

암환자 8백명은 병원 전체 환자수에 비하면 큰 비중은 아니나 필라델피아 어린이병원은 癌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어린이 암정복의 세계적 선구를 맡고있어 병원자체가 어린이 癌전문 병원으로 더 알려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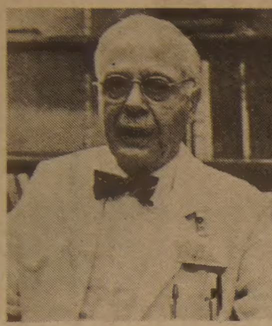
「아이비·리그」(Ivy League)의 하나인 名門 펜실베이니아大의 醫大쪽으로 돌아 필라델피아 어린이병원에 들어섰을 때 안내실 오른쪽에 꾸며진 커다란 인형가게가 유달리 눈에 들어왔다.

안내나온 병원공보과장 마리앤·볼튼양은 1층에 줄서있는 인형가게、맥도널드·햄버거숍、프로비던트銀行、플라자동판매기등을 가리키며 『필라델피아어린이병원은 병원을 찾는 어린환자들의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는것으로부터 치료를 시작한다』고 자랑했다.

어린이병원으로서의 특징을 페맘이 찾아볼수있었다。우선 병원의사들이나 간호원들이 하얀가운을 입지않고 평상복차림이었으며 입원환자들도 파자마대신 블루진같은것을 입고있었다.

간호원도 平常服

병원층도 아라비아숫자아닌 색깔로 구별해놔 햄버거숍에서 만난 어린이들이 『난노란색층 (Yellow Colour Floor)에 있는데 넌 무슨색에 있니』라고 묻는 질문들을 들을수 있었다.



◇어린이 암연구소소장 질리오·단지오。그는어린이 암환자는 암치료후에 후유증없이 일생을 살수있도록 삶의질을 유지할수있는 특별치료가 중요한것임을 강조했다。

3층부터 5층까지는 커다란 실내운동장까지 만들어놔 힘은 없었지만 공을차고 던지는 모습들이 학교체육시간을 방불케했다。어찌하던 용기를 잃지않게하려는 병원의 세밀한 계획이 보였다。

그러나 5층의 癌병동에 들어섰을때 분위기는 확바뀌었다。눈을대하기가 민망한 거죽만남은 어린암환자들이 죽음과 싸우고 있었다。

마리앤양을 앞세우고 병동을 둘어섰을때 몸을 침대에 비끄러매고 혈관주사를 맞고있는 6세남자어린이를 만났다。

아플곳마저 없어보일정도로 말라있었으나 암약이 너무독해 몹시 아파한다고 말했다。침대맡에 서있는 어머니는 『존은 백혈병으로 6개월째 누워있는데 HLA가 맞는 형제가없어 희망인 골수이식수술을 못하고있다』고 말했다。고개를 숙이고 『主여、존을 구해주소서』라는 어머니의 잠은기도소리에 방문자의 [illegible]도 떨렸다。

병실옆에는 조그마한 환자휴게실이 있었다。

醫師도 함께놀며

의사가 어린이암환자들과 어울려 병원용거즈에 석고를 칠해 컵、사슴모양등을 만들고있었다。이런 놀이는어린이환자와 의사와의 친밀감을 높일뿐아니라 어린이의 놀이욕구를 풀어준다는 것이었다。병실을 돌며 뒷짐에 숨겨놓던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었다。

『어린이癌환자는 암에서 단순히 살아난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암의 죽음에서 벗어난후 일생을 어떻게 살수있는가하는 삶의 質(quality of life)이 더 문제된다』 질리오·단지오 어린이암연구소장은 어린이암환자는 어른의경우와 달리 약물、방사선照射量을 가능한한줄이면서 치료하기때문에 그만큼고통이 큰것같다고 말했다。

어린이암은 어른암에비해 두가지 특징이있다。

첫째는 암발생부위가 성장과 관련된곳이 많다。피에 암세포가 붙는 白血病、原發性뇌암、임파선암、신경계통의 암、그리고 콩팥、軟조직암등이 어린이암의 主種。肺、소화기계통、전립선、고환등 체질유지내지 생식기관에 대부분 암균이 침범하는 어른의 경우와 구별된다。

「癌은나았지만 畸形」등 비극 뒤따라

後遺症방지·치료 專擔班두고 연구

치유된 患者도 一生관찰…10년후 가도 옛간호원이 담당

둘째는 암치료의 후유증문제。어른의 경우는 암으로부터 생명을 건지는 일이 사실상 치료의 전부다。

5년을 살면 일단 성공한것이며 그이상 산다면 더욱 다행한 일인것이다。그러나 어린이들은 지금부터 삶을 개척해야 하기때문에 산다는것보다는 어떻게 사느냐하는 삶의 質이 더 중요하다는것。

필라델피아어린이癌연구소는 사실상 암의 후유증문제를 제일먼저、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경고해온 암병동이다。

成長 정지될수도

단지오 어린이암연구소장은 방사선치료、과잉약물투여로인한 畸形化된 어린이암환자의 실례를 슬라이드·필름을 비춰가며 설명하면서 『만일 암병원이 성장하는 어린이의 속성을 무시하고 암을 치료하는 경우 결국 환자의 전생애를 파멸로 이끄는 과오를 범하게된다』고 말했다。

콩팥을 방사선치료할때 세밀히 계산하지않으면 척추의 성장력을 지게되는데 이때 어린이는 방사선을 맞은쪽의 성장이 중지돼 자연 허추가 한쪽으로 꾸부러지는 결과를 낳게되며 골반치료때도 한쪽다리의 성장을 정지시켜 다리병신을 만든일이 허다하다고 단지오소장은 말했다。

얼굴에 방사선을 잘못 쐬어 오른쪽얼굴만 커지고 왼쪽은 어린이때의 모습그대로 남아 균형이 찌그러진 예도 있었다。

필라델피아 어린이 병원은 암치료 후 유증으로 성장 이상이 생긴 어린이들만 치료하는 전문반을 두고있다。주로 성장정지된 곳에 호르몬분비를 조작해 정상으로 회복시키든지 아니면 뼈의 성장을 막는 장골을 꺾쇠로 얽어매어 성장을 정지、양쪽 균형을 마추는 수술을하고있다。

80년11월 발표한 필라델피아 어린이 암연구소의 한 보고서는 급성白血病을 치료할때 2천5백RAD의 방사선을 1일 2백50RAD씩 나눠 10일간 치료한경우와 1백20RAD씩 20일치료한 경우를 비교해본결과 2백50RAD를 매일치료한경우 성장호르몬기능을 약화시켜 정상성장을 막은대신 低量방사선을 장기간 照射한경우는 치료효과를 같이내면서 성장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않았음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 발표이후 어린이 암환자에대한 방사선치료는 『低量을 긴기간에 나눠 照射해야한다』는 원칙이 정립됐다。

얼굴부위에 방사선치료를 받은 어린이는 1백% 치아성장문제를 일으키며 따라서 방사선치료당사부터 치과의사와 긴밀한 협조를 해야한다는것도 조사결과 밝혀졌다。

단지오소장은 약물후유증도 방사선못지않게 심각한것이라고말했다。

白血病치료제로 많이쓰이는 메소트렉사이트、콜티코스테로이드등은 뇌의 광물질보유량을 떨어뜨려 정상적인 知的발달을저해하며 간을섬유질化하는등 기관장애를일으킨다。

항생제系의 아드리아마이신、도노마이신은 심장장애를 일으키고 사이클로포스마이드(CY) 버설팬(BU)등은 肺의 섬유질化를 촉진시키기도한다。尿道、신경계통、내분비系등 체내의 중요기관 하나하나가 毒한 암약에 거의 영향받지 않는곳이 없다。

방사선이나 암약 그자체가 제2의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있다는것도 꽤 널리 받아들여지고있는 주장이다。

필라델피아 어린이암연구소는 암치료의 후유증방지를위한 3大계획을 세우고있다。

첫째는 정상세포의 보호약개발。1940년대에 첫암약이라고 불수있는 질소겨자가스가 발견된후 암의학계는 정상세포를 암약으로부터 보호할수만 있으면 암의 정복은 간단히 이뤄질 것이라는 막연한 가설을 잡아왔었다。

방사선치료의 경우 癌腫에만 방사선이 들어가도록 아연으로된 차단장치를하거나 아니면 현대장비에의한 정밀照射를 하지만 암세포를 정상세포로부터 완전히 분리한다는것은 불가능하기때문에 자연 암종주위의 정상세포까지 방사선을 쏘이지않을수 없게된다。

保護藥개발 성과

암약이 정상세포를 해치는것은쉽게 이해할만하다。암세포는 일반정상세포보다 빨리 분열하기때문에약물이 투여되면 분열이 빠른 이 암세포가 먼저 흡수하여 결국 죽게되는데 이때 정상세포 특히 번식이빠른 骨髓세포、胃腸관세포、생식기세포、머리칼세포등도 약물을 흡수하여 장애를 일으킨다。

약물치료를 받을때 흔히 머리가 빠지고 소화기능이 약해지는것은 이 부위의 조직세포의 분열·성장이 그만큼 빠르기 때문이다。

필라델피아 어린이병원 약물연구반의 존·유하스는 1979년 WR2721이라는 정상세포 보호약을 만들어냈다。

암환자가 약물투용 30분전、또는 방사선치료15분전에 이 약을 먹으면 정상세포를 보호할수있도록 만들어진것인데 아직암의학계의 공인은 받지못했으나 자체내의 실험결과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있다。

유하스는 암약 메틀로레타민(HN2)을 쥐에 일정량 주사한결과 造血기능의 파괴를 일으켜 죽었던것인데 투약전 WR2721을 먹이고 同量의 HN2를 주사한 다른 쥐는 죽지않은것을 발견했다。

현재 유하스를 중심으로한 약물연구반은 WR2721이 사람의체질과 연령에따라 그효력이 크게 차가나는것을 발견하고 보다 완전한 정상세포보호약의 개발을 계속하고있다。

암치료후유증방지를 위한 어린이암연구소의 두번째노력은 암환자와 계속적인 접촉을유지한다는것이다。

한번 어린이암병동에 들어왔던환자는 일생을두고 필라델피아어린이병원과 연락을 하도록 주선하고 있는것이다。

가정상황도 추적

암치료후유증은 5년후에 나타날수도있고 10년후에 나타날수도있다。암병동은 환자의 책임간호원제를 도입、환자를 처음맡은 간호원은 그 환자가 10년후에 다시 올때도 맡도록한다。병원의 주요정보망인 사회봉사부를 통해 환자 또는 환자가족과 지속적인 연락을 취해계하고 어떤 변화라도 있다는 정보가있으면 담당간호원、전문의와 협의하는 조직이 돼있다。

사회봉사부는 어린이암병동의 운영을 북새지게하는 기관。

어린이가 진단결과 암이라는것이 밝혀지는 것과 거의 동시에 가족에 배당되어 놀란 부모를 위로하고 또 환자에게 암의 정체와 치료율、투쟁방법등을 차근차근 가르쳐 온가족의 암투쟁력을 높이고있다。

암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끈덕지게 가정을 추적하여 자녀사망으로 인한 가정의 파괴위험、재정문제등을 자문하기도한다。

질리오·단지오소장은 필라델피아병원에서 얻은 3명의 자녀를 갖고있다고 말했다。

환자였던 이들은 10년이상 담당의사였던 자신과 연락을 계속 하면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있으면 금방 전화를 건다는 것이다。

암연구소의 세번째 암치료 후유증방지계획은 약물、방사선 照射의 투여량조절이다。

필라델피아 어린이병원의 침대수는 총2백38개、이중43%는 90명의 스태프로 구성돼있는 암병동의중환자실로 배당돼있고 나머지는 갓난아기로부터 19세에이르는 일반어린이환자용。

사망 半이白血病

단지오소장은 병원9층에 마련된 12개의 어린이암연구실 하나하나를 소개하면서 『암치사율이 높았던 10년전만해도 이런 후유증예방연구는 엄두도 못냈던것』이라고 말했다。

10년전만해도 1년이내에 50%가 죽던 급성백혈병은 81년현재 5년생존율이 50%로올라갔고 1940년까지 사망률90%이던 어린이 콩팥암인 『윌름스腫』은 현재 치료율이 90%로변했다。윌름스腫은 보통 어린이들이 아랫배가부어올라 병원을찾는경우가많다。

전체적으로보아 모든 어린이암환자의 5년이상 생존율은 50%를 기록하고있다。

현재 미국의어린이암발생률은 약 6백명중에 하나。지금추세로 간다면 2·3년내에 20세에이른 전미국인중 1천명당 1명꼴이 암치료를 받은者가 된다는 계산이선다。

암치료후유증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됐다고볼수있는것이다。

美암협회(ACS)가 1976년 한해동안 집계한 통계에따르면 15세이하의 어린이암환자 총발생수는 6천4백명、이중 2천8백명이 사망했으며 사망자의 약50%가 白血病환자였다。

마침 필라델피아어린이암병동에서 살아난 로버트라는 白血病치료소년을 만났다。

로버트는 13세때인 78년3월 급성임파선백혈병에 걸렸었다。그는 어느날 학교에서 돌아온후 감기기운이 있어 침대에 드러누웠다。가정의사를 불러 진찰했더니 운동을 심하게해서 피곤이 겹친것 같다며 1주일쯤쉬면 괜찮을것이라고했다。

2·3일지나도 몸이 더욱 늘어져 무어타운에있는 조그마한 병원을 방문、진단받았다。

이병원은 피검사결과 白血球가부족하니 필라델피아어린이병원에가서 전문진단을받으라고안내해줬다。

결국 로버트는 백혈병환자로 입원하게 됐고 병원에서 6개월을 방사선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으며 보냈다。

그는 3개월쯤 지났을때 병의 차도가 있어 가발을쓰고 학교에 갔다가 다시 쓰러져 병원으로 오기도했다는 것이다。

지금은 2·3개월에 한번씩 병원에와 정기검진을 받는다면서 『병들어 본다는것은 나올수만 있다면 멋진 경험같다』고 빙그레 웃어보였다。

높아지는 自信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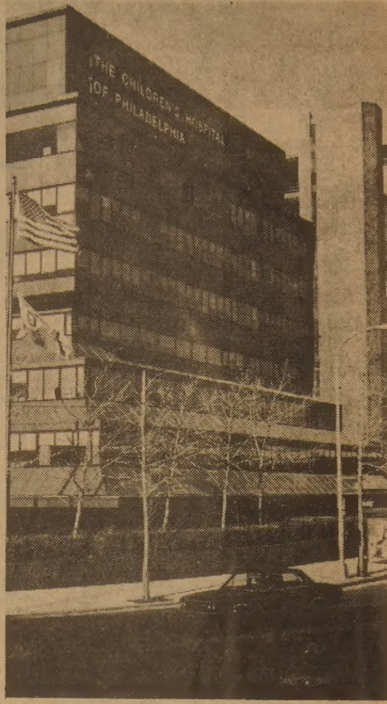
필라델피아 어린이 암병동은 약 30명의 백혈병 환자에대한 골수이식 수술을 실시했다。

성공률은 잠복기의 경우 50%、재발시 수술의 경우는 15%정도。전체적으로 5%선을 유지하고 있던 백혈병환자의 치유율을 크게 끌어올린 것이다。

프레드·허친슨병원、슬론·케터링 암병동이 그랬던것처럼 필라델피아 어린이 암병동도 높아져가는 암치유율과 함께 암정복을 위한 자신감이 두꺼워지고 있었다。

단지오 암연구소장은 1945년 하버드醫大를 졸업한후 내내 어린이암을 전문해온 세계적인 소아과醫。그는 암치유율의 향상은 곧 어린이암병동의 암치료후유증 방지노력을 그만큼 무겁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필라델피아=鄭逸和기자】



◇미국최대의 어린이 전문병원인 필라델피아 어린이병원。5층에 있는 암병동에는 미전국과 세계에서 찾아오는 어린이 암환자를 위한 9백명의 어린이 암전문요원들이 배치돼있다。

필라델피아 어린이病院

◇어린이 암환자휴게실。주사약을 손목에 꽂은채 병원거즈와 석고를이용해 물컵을 만들고있다。의사와 간호원들이 이들과 어울려 곧잘 놀아준다。

正常세포保護藥 개발·방사선照射量조절이 課題

가짜 癌醫師를 조심하라

◇어느쪽이 가짜인가 『어느쪽이 가짜의사인가』 미국암협회는 암환자는 『비방약이 있다』며 환자를 홀리는가짜를 조심하라고 팸플리트를 제작하여 배부하고있다。

美암협회서 區別法 캠페인까지

"秘方藥있다"는 가짜의 상투수법

절망에 빠진 암환자를 꾀어 엉터리처방을 해주고 돈을 뜯어내는 돌팔이는 미국에도 많이 있다。환자의 친척·친구를 통해、또는 대담하게는 암병동대기실에 직접 나타나 「秘方藥이있다」고 선전하는 이들은 대부분 풀뿌리、나무열매、지렁이같은파충류등 물들을 主成分으로한 엉터리藥을 갖고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식 의사면허를 가진자도있다。

암은 화학약품이나 방사선아닌 자연요법으로 치료해야한다는 신념아래 비타민A、B、C등의 암퇴치효력을 지나치게 믿는 의사들이 가끔 암의학계에 반발을 보여『가짜의사』로 나서기도 한다。

특히 살구씨에 들어있는 비타민B17이 암의 특효약이라는 주장에는 미국의 상당한 의사들이 몰려있었다。이 비타민B17효력설은 그동안 의학계의 지지를 받아와 美보건성이 이의 과학성을 연구。효력이 없다는 특별성명까지 내기도했다。

美암협회(ACS)는『가짜의사구별법』이란 팸플리트까지 내고 암환자들의주의를 기울이게하고있다。

ACS가 분석한『가짜의사에게 잘속기쉬운 환자』는①암에 처음걸린자②실제 암에 걸리지않았는데도 암에 걸린것으로 오해하고있는 자③치료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환자이다。

암에 처음 걸렸을때 대부분은 당황한 나머지『비방약이 있다』고 누가말하면 앞뒤를 돌아보지않고 그냥 그말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경우 암전문의에게갔더라면 쉽게 고칠 암초기를 시간지연으로 만성으로 만들어놓아 시간잃고 돈잃는것이 常例다。

암에 걸리지도않은자를 몇가지 증상을들어『당신은 암이다』라고말하는 가짜는 더욱 악질적。암은 생체조직검사(Biopsy)를 해보지 않고는 절대 암으로 단정할수없다。

말기환자도 의술의 날이다른 발전으로 살아날 가능성은 있는것이며 병원외치료를 받더라도 일단 주치의와 상의하는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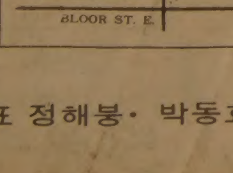
가짜의사 또는 진짜의사이지만 과학적진료방법을 택하지않는 의사들의 특징은 ①나만이 알고있는 암비방약이 있다 ②이치료법은 비밀연구원에서 개발된것이다 ③의학계는 이비방치료법에 시기를하나머지 나를 가짜의사로몰아세우고 있다 ④당신의 병은 내가 책임질것이니 다른 의사를 찾지말라등의말로 환자를 꾀는것이라고 ACS는 말하고있다。

대신 진짜의사는 우선①환자의 병력카드를조사하고 ②다른 전문의와 긴밀히상의、다른 전문병원에조회하고 ③항상 환자에게 치료의 진전현황을 얘기한다는 것이다。

꽃·화초 도(소)매상

◎토론토 제1의최대규모

⊙가장 저렴한 가격



대표 정해붕·박동효

DOMINION SMALLWARES

Cash & Carry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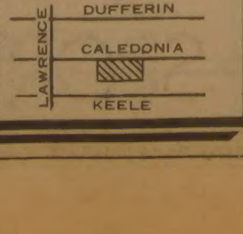
Apr. 19 - May 3

Tootsie Taffy	24x30c	$ 4.79
Pop eye and Big League Chewing Gum	12x59c	$ 4.59
Tun dip	48x15c	$ 4.70
Hershey Big Block Choco Bar	36x55c	$12.25
Allen 101 Kiddy Pop	2/5c	$ 1.19
Wilson Pop	24x10oz.	$ 5.39
FBI Pure Apple Juice	24x15oz.	$ 7.99
Fiesta Fruit Jellies	300g	$ 1.56
Y & S red & Black twizzler	70x5c	$ 1.85

Victoria day에 필요한 Fire Worker를 다량입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40% Off, Cash & Carry는 Additional 7% Off))으로 봉사해 드립니다

May16(일)8:00a.m.-2p.m. May22(토)8:00a.m.-1p.m.
May23(일)8:00a.m.-2p.m. May(Victoria day)8:00a.m.-3p.m.

DOMINION SMALLWARES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주5일 식품점에 신문배달

식품점에 가시면

⊙새로나온 〈한국일보〉가 있읍니다.
⊙아내에의 선물〈주간여성〉도있읍니다.

※토론토한국일보사는 토론토 부근 10개 한국식품점에 당일 발행된 신문을 매일 배달, 판매합니다.(단 : 미시사가소재 식품점에는 당분간월·수·금요일만 배달)

—한국일보사—

流星의 賦 <357>

고독한 英雄 ⑫

李炳注 作
李友範 畫

[illegible]

로 온뒤 계남으로부터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경경하게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소중히 하라』는 훈계를 받고 대오일번 계남군에 자진 편입했었다.

[illegible]

나의 이력서 — 金蘇東 ㉗

(題字 金蘇東)

택시運轉技士시절

月평균 60円수입… 궁색한生活 모면

하루는 친구父親태우고 5円받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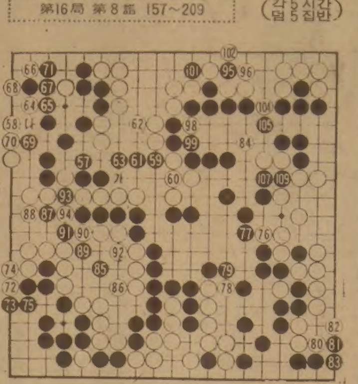
[illegible]

택시운전으로 학비를 벌던때의 필자.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6局 第8譜 157～209 (각5시간 덤5집반)

白(7段) 徐奉洙 <3勝1敗>
黑(6段) 張秀英 <3勝1敗>



黑 1집반 憤敗

[illegible]

0 3, 106…패. 108…이음. 【一凡】

해외걸작만화

"That's cheating!"
「속임수야」

藥物말썽「도까시끼」또波紋
1차방어전判定 '홈디시전'
日紙·專門家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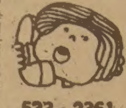
[illegible]

20년대 헤비級鐵拳 美뎀프시 重態입원

【뉴욕12日AP=聯】 1920년대 헤비급권투 챔피언 잭·뎀프시가 중태에빠졌으나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12일 뉴욕의코넬메디컬센터홍보대변인이밝혔다.

건강이 좋지못해 11일병원에 입원했던 올해86세의 뎀프시는 1919년 7월4일 2m의 거한 제시·윌라드를 7차례나 다운시켜 챔피언타이틀을 빼은이후 여러번의명게임을 보여준바 있다.

한국일보



533·2361

세계 소프트볼大會 中共, 場所변경요구

【北京10日UPI·AP=聯】中共은 10일 오는7월 臺北에서 열릴 예정인 제5회 세계여자소프트볼선수권대회의 개최지를 다른나라로 옮기라고 요구함으로써「소프트볼外交」를 통한 臺灣과의 화해를 포기했다.

李美雨 우승
말聯오픈卓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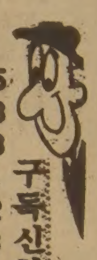
말레이지아 오픈탁구서키트대회 (8~10일·페낭)에 참가했던 한국의 李美雨(제일모직)는 여자결승리그서 7전전승으로 우승했으며, 鄭聖秀(국정교과서)는 4승3패로 4위를 차지했다. 선수들은 14일 귀국한다.

明暗 ⑲

朴婉緒 作
金光培 畫

[illegible]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85>



구독신청은 533-2361

Factory Special Sale

(기간) Apr. 12～Apr. 24 (2주간)

한국영창악기제

Wagner (와그너) 피아노

월～금 : 9: 00A.M.～7: 00P.M.
토 : 9: 00A.M.～5: 00P.M.

G-157

그랜드피아노
Reg. $7,732
Spec. $5,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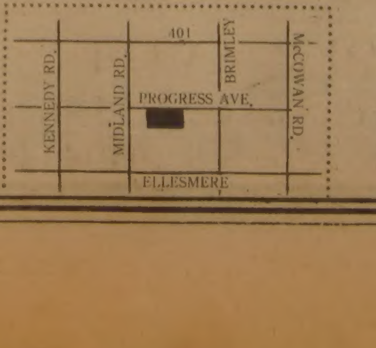
제한수량이므로
선착순세일합니다

OWNER : 최덕준

각 유명업체및 대학교에서 애용중입니다.
University of Alberta (Edmonton) McGill University (Montreal)
Humber College (Toronto) Columbus Centre (Ontario)

DISTRIBUTED EXCLUSIVELY IN CANADA BY
YOUNGSTAR INTERNATIONAL INC.

주 소 : 315 PROGRESS AVE.
☎ : 298－2134



John Krautwurst Furniture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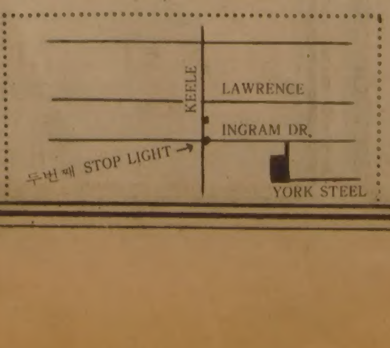
월～수 : 9: 00A.M.～5: 00P.M.
목～금 : 9: 00 〃 ～8: 00 〃
토 : 10: 00 〃 ～5: 00 〃

◎Life-time 가구
◎주문생산(Custom made)
◎금년 토론토가구쇼에서 인기집중
◎카나다유일의 최고급 Contemporary 가구
◎Meister Collection

◎다이닝·룸 set
◎ Buffet Hutch
◎Living room set
◎베드·룸 set

매니저 : Mrs. Gertrud Krautwurst

◎고급가구점(로버트·심슨등)에 공급하고 있음.



JOHN KRAUTWURST
주 소 : 67 Ingram Dr.
☎ : 249－8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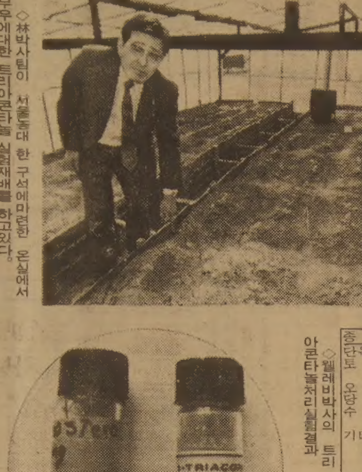
새 作物촉진劑 트리아콘타놀 開發

쌀 60% 增産된다

世界최초…서울農大·美미시간大 共同연구

값비싼 외국산 쌀을 사들이지않고 식량을 자급자족할수있는 시대가 곧 다가온다. 벼는 60%의 증수(增收)가 가능하고 단백질 성분 또한 현재 보통쌀의7%보다 2·5배나 많은 18%로 높이는 새로운 식물호르몬 트리아콘타놀(Triacontanol)이 시판, 실용단계에 들어간 날이 멀지않은것. 그렇게 되면 「제2의 녹색혁명시대」가 열리게되는 셈이다. 美미시간大 R·K·리스교수와 버지니아州 생화학연구소장 J·B·웰레비교수등과 서울大농대 林雄圭, 任炯彬교수팀이 공동으로 실험연구중인 트리아콘타놀은 1년여동안 극비리에 실험되고있어 日本과西獨등지에도 아직 소개되지않은 비장(秘藏)의 식물 호르몬.

實驗재배는 이미 성공



◇林박사팀이 서울농대 한 구석에마련한 온실에서 무우에대한 트리아콘타놀 실험재배를 하고있다.

지난해 6월 웰레비박사에 의해 합성에 성공한 트리아콘타놀은 벼를 비롯해 토마토나 감자 보리 콩등 농작물에서 획기적인 증수효과가있다는것이 실험재배 결과 나타나 벼를 대상으로 지금 실험재배가 진행중이다.

빠르면 금년내로 실용화될 트리아콘타놀은 최근 공동연구를 해온 서울大농대 林雄圭박사에 의해 12일 세계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별표참조】

웰레비박사가 비닐하우스에서 벼에대한 트리아콘타놀 처리실험을한결과 최고로는 60%의 증수효과를 거뒀으며 단백질의 성분또한 처리하지 않은것의 2·5배에 달하는 18%로 크게 늘어났다는것이 확인됐다.

미시간大의 리스박사도 실험재배결과 토마토는 49%, 감자21%, 보리67%, 콩은49%의 증수효과를 가져왔다.

또 웰레비박사는 우리나라 중앙종묘사의 조생 대형봄무우와 강육토마토 씨앗을 미국으로 가져가 실험한 결과 무우는 32%, 토마토도 41%의 증수효과를 가져왔다고 지난2월 林박사에게 알려왔다. 웰레비박사는이리포토에서 한국산 무우와 토마토를 노천재배한 경우 시험관에서의 조직배양때에비해 2배이상의 높은 증수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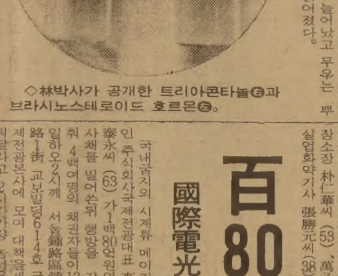
트리아콘타놀에 의한 획기적인 증수효과는 지난해7월 서울대농대 온실에서 林박사팀이 실시한 실험재배에서도 확인됐다.

떡잎이 3~4장 나왔을때 0·5PPM(2백만분의1g)을 뿌린결과 강육토마토는 62%, 중앙킹건고추도 60%의 수량증가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트리아콘타놀 처리결과 고추는 길이가 길어지고 껍질이 두꺼워졌으며 토마토는 갯수가 늘어났고 무우는 뿌리가 굵어졌다.

종류	증수율
단옥수수	50~54%
토마토	70〃
콩	90〃
오이	90〃
당근	90〃
수박	65〃
팥	45~90〃
기타채소	50~90〃
벼	최고60〃 (※단백질함량2·5배)

◇웰레비박사의 트리아콘타놀처리실험결과



◇林박사가 공개한 트리아콘타놀㊨과 브라시노스테로이드 호르몬㊧。

林교수팀은 이실험에서 트리아콘타놀이 세포분열을 촉진하고 세포의 부피를 크게 한다는 현미경관찰결과를 웰레비교수에게 알려줬다.

토마토와 고추등에대한 실험을 마친 林박사팀은 벼에 대한 집중적인 실험에 들어갔는데 서울농대 비닐온실에서 지난해9월1차실험한결과 벼는 키가 커지고 가지수가늘어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벼의생장점인 세포의해질비도38%로늘어났다는것.

林박사는 벼에대한 실험을 계속, 지난3월에는 일반벼와 통일벼 각2종류의 모종을 서울농대 실험포장에 부어 노천실험에 들어갔는데 오는 6월께면 그결과가 나올것으로 알려졌다.

林교수는 이실험이 성공할 경우 우리나라도 쌀 자급자족을 이룩할수있을것으로 내다봤다.

林교수에 따르면 트리아콘타놀의 사용방법은 매우 간편해 농약처럼 물에 극미량을 타 뿌리기만하면 되며 값도 3만평의 밭에 7천원(실험용가격) 안팎이면될정도로 대량보급이 용이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호르몬에의한 농작물증수효과는 1936년 일본인 구로자와(黑澤)가 발견한 지버릴린(Gibberellin)이 밭작물에 10~20%의 증수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돼 있다.

트리아콘타놀은 현재 미국농무성에 실용화에 대한 허가를 신청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실용화될경우 林박사팀은 트리아콘타놀을 우리나라에 독점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요청을 진행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林박사는 한미학자들간에현재공동재배실험연구가 이뤄지고있는 브라시노스테로이드(Brassinosteroid)호르몬 실험이 성공한 경우에는 작물의 증수효과는 더 많이 낼 수 있다고 밝혔는데 식물생장호르몬의 일종인 브라시노스테로이드는 초기실험에서 콩의 어린 잎에 1PPM(1백만분의1g)을 뿌린결과 줄기의 신장이 3배나 늘어난 것으로 보고됐다. 【朴珍列기자】

大型 칡뿌리 發見

강원溟州…600년생 推定

【江陵】 6백년생으로 보이는 대형 칡뿌리 (사진) 가발견돼 화제.

江原도溟州군邱井면於丹리 4반 白龍衛할아버지(73)는 12일낮 집에서 6㎞쯤떨어진 속칭 큰골에 손자와함께 못자리용 나무를 구하러갔다가 길이 1·5m, 둘레1·4m, 두께 34·3㎏크기의 칡뿌리를 캐냈다는것.

白할아버지는 우연히 휘덤굴을발견, 뿌리를 캐내다보니 예상치못한 대형이었는데 손자와함께 4시간동안이나 씨름끝에 칡뿌리를 캤다고말했다.

이곳한약방의 한의들은 이칡뿌리는 약6백년정도 된것으로보이며 값은 얼마라고계산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칡뿌리는 위장병에 좋다고밝혔다. 【聯合】

三湖理事등 5명拘束

地下鐵붕괴관련

서울西大門區무악재지하철공사장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은 13일 주식회사 三湖토목이사 金寅起씨(44), 현장공사과장 李長福씨(34), 현장소장 朴仁華씨(53), 萬承실업화약기사 張勝元씨(38), 서울지하철공사현장감독 權萬洙씨 (37)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 구속했다.

"도로소통은 이달末께나"

서울 무악재 지하철공사장 붕괴사고로 끊어진 서울의도심과 서북지역간의 교통은 오는 4월말이후에나 완전소통될것같다.

朴英秀서울시장은 13일 상오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복구작업은 사망자발굴과 잔류화약처리 때문에 늦어졌다』고 밝히고 『잔류화약은 이미 48시간이상 침수, 그위력을 잃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복구작업과정에는 큰장애가 없다』고 말했다.

朴시장은 그러나 『이지역의 교통소통이 빨라도 4월말께나 정상화 될것』이라면서 『이는 붕괴지역을 매립성토하기전에 우선 매몰된 6백70톤의 철제구조물을 완전제거해야하며 이작업에 많은 시일이 걸리기때문』이라고 설명 했다.

朴시장은 또 『사고의 재발을 막기위해 지금까지 지하철공사 (公社) 에만 일임했던 지하철 3·4호선의 감독권을 서울시가 직접관장, 공사현장의 보고와 감독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朴시장은 이번사고로 불통됐던 4천회선의 전화와 단전사고는 이미 복구됐으며 상수도는 15일 하오까지 대부분 정상급수가 되도록하겠다고 말했다.

百80億챙겨 빵소니

國際電光대표 社員·女工등 被害者4백餘

국내굴지의 시계류 메이커인 주식회사국제전광대표 李泰永씨(63)가1백80억원의 사채를 빌어쓴뒤 행방을 감춰 4백여명의 채권자들이13일하오2시께 서울鍾路區鍾路1街 교보빌딩614호 국제전광본사에 모여 대책을세워달라고 2시간가량 농성을벌였다.

채권자들에의하면 주식회사三多대표이사를겸하고있는 李씨는 지난해 4월부터 회사운영이 어렵게되자 회사직원들을 통해 친척과전직사원, 납품업자등 4백여명으로부터 1백80여억원의 사채를 빌어쓴뒤 지난6일상업은행 乙支지점·제일은행 城東지점등 4개은행에서 모두 40여억원의 부도를 내고 행방을 감추었다는것.

李씨는 월4푼의이자 3개월치를 선불해주고 어음과당좌수표를 발행하는 형식으로 사채를 끌어썼는데 높은이자를 준다는말을듣고 본사사원들은 물론 서울·富川·裡里등의 3개공장 여공들까지 1백~5백여만원씩을 빌려주었다는 것이다.

주식회사 국제전광은 15년전 설립돼 시계·난로등을 생산해왔는데 서울城東區聖水洞과 전북裡里에 시계공장이있고 경기富川에 난로생산공장이 있으며 경남昌原에 방위산업체인 주식회사 三多등의 공장이 있다.

醫師부부 1億여만원 사취

【釜山】부산南部경찰서는 13일 釜山鎭區釜田洞소재 세미정형외과 원장 의사張漢寬씨(51·南區廣安洞103)와 張씨의 부인 李英玉씨(43)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張씨부부는 지난3월21일 친목계원 이금옥씨(41·여·東萊區蓮山2洞325)에게 월7부의 높은이자를 주기로하고 7천만원을 빌린것을 비롯, 같은 수법으로 용협식씨(46·南區廣安洞162)의 돈 2천5백만원등, 지난해 8월13일부터 지금까지 모두 5명으로부터 78회에걸쳐 1억4천3백만원을 빌어 갚지않고있다가 피해자들의 고발로 경찰에 잡혔다는것. 【聯合】

동반自殺기도…子女만죽여

【釜山】釜山東萊경찰서는 13일 자녀들과 연탄불을 피워놓고 동반자살을 하려다 아이들만 숨지게 한 유연옥씨(28·여·부산東萊區巨堤2洞1244)를 살인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유씨는 지난9일상오9시께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않고 평소 술만 마시고 다닌다고 비관, 방안에 연탄불을 피워 아이들과 함께 동반자살을하려다가 남매만숨지게한혐의다. 【聯合】

大賞에 「農土」(연극) 「等身佛」(TV드라머)

映畵부문은 作品賞만

18회 한국演劇·映畵예술상 施賞

「낮은데로 임하소서」(映畵)는 3冠王차지

◇宋承桓

◇丁允姬

◇安聖基

◇金鈴愛

◇黃正雅

노비3대의 애환을 그린 연극 「農土」(方泰守·극단 에저또)와 한승려의 구도과정을통해 인간의 본질을 묘파한 TV문학관 「等身佛」(연출 張亨一·KBS)이 올해 한국영화예술상에서 영예의 大賞을 안았다. 영화부문에서는 수준작이 없어 大賞을 뽑지못했다.

13일하오6시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린 제18회한국연극·영화·TV드라머예술상(한국일보社제정) 시상식에서 최대영예인 大賞이 심사위원들의 현장비밀투표를 통해 마지막으로 발표되자 식장을 메운 1천여 관중은 일제히 환호와 박수로 뜨거운 축하를 보냈다.

KBS 金東鍵 崔喜濟두아나운서의 사회와 金康燮악단의 팡파레로 올해처음 디너쇼형식으로 막을 올린 이날 시상식은 시종 열광과 흥분의 무대였다. 시상식은 李眞淳심사위원장의 심사보고에 이어 문화영화상, 기술상의 순으로 부문별 시상에 들어갔다.

부문별작품상은 연극「농토」 영화 「낮은데로 임하소서」 TV극 「等身佛」이 차지했다. 大賞을받은 「농토」는 작품·희곡·연기상과함께 4관왕이됐고 「낮은데로…」는 작품상과 남자신인연기상, 주제가 상을받아 3관왕이 됐다.

한편 예술상의 하이라이트라 할수있는 연기상은 연극부문에 宋承桓 金福姬, 영화에 安聖基 丁允姬, TV에宋在浩 李正吉 黃正雅 金鈴愛가 차지했다.

연기상수상자 8명은 오는 5월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82년도 미스·코리아선발대회 스타상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며 영화부문연기상을받은 安聖基 丁允姬에게는 영화진흥공사사장의 특별상이 별도로 수여됐다.

지난해 「사랑하는사람아」로 여자연기상을 받아 2년연거푸 영광을 안은 丁允姬는 『자만하지않고 3연패 수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아역배우출신인 安聖基는 『어린 시절 선배들이 큰 상을 받는 것을보고 무척 부러워했는데…』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80년연기상을 수상한바 있는 李正吉은 『기쁘지만 열심히 하는 후배들에게 미안하다』고 했고, TV로 처음상을 받은 黃正雅는 『연기생활10년만의 영광』이라며 기뻐했다. 만능탤런트로 불리는 宋承桓은 『연극무대에서 고생한 보람을 느낀다. 더욱정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이 진행되는동안 가수 趙容弼 혜은이 윤시내 金準·張祐 咸重亞의 노래와 李朱一의 개그, 앙드레金의 패션쇼가 막간을 수놓아 잔치분위기를 북돋웠다.

이날 시상식은 1시간50분에걸쳐 KBS제2TV채널을통해 전국에 직접 중계됐다.

한편 시상식이 끝난뒤2백여명의 연예관계자들은 한국일보社가 마련한 리셉션에 참석, 한국의 대중예술발전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演技賞, 각部門別 8명뽑아

◇대상▲연극=농토(극단·에저또) ▲TV=等身佛 (KBS TV문학관)

◇작품상▲연극=「농토」(극단 에저또) ▲영화=「낮은데로 임하소서」 (貨泉공사) ▲TV=TV문학관 「等身佛」 (KBS)

◇연기상 ▲연극=宋承桓(에쿠우스·실험극장)金福姬(농토·에저또) ▲영화=安聖基(만다라·貨泉공사)丁允姬(앵무새 몸으로 울었다·宇進) ▲TV=宋在浩(새댁·탈출·KBS) 李正吉(야상곡·MBC) 黃正雅 (재치선생·KBS) 金鈴愛(야상곡·MBC)

◇연출·감독상 ▲연극=許圭(세종대왕·국립극단)▲영화=李元世(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TV=崔相鉉(소망·KBS)

◇희곡·시나리오·극본상▲희곡=尹朝炳(농토·에저또)▲시나리오(각색)=李相鉉·宋吉漢(만다라·貨泉)▲극본=郭忍行(에바다·KBS)

◇기술상 ▲연극=宋寬宇(미술·미국에산다·광장)▲영화=鄭一成(촬영·만다라·貨泉)▲TV=해당자없음

◇신인상 ▲연극=俞賢穆(결혼중매·현대극장) 太民永(라인강의 감시·사조)▲영화=李永鎬(낮은데로 임하소서·貨泉)羅暎姬(어둠의 자식들·貨泉)安昭暎(애마부인·聯邦)▲TV=權[illegible](대명·KBS)李惠淑(여인열전·MBC)

◇文化영화상=江華 (세종문화)

◇주제가상▲영화=尹福姬(낮은데로임하소서)▲TV=鄭在恩 (새아씨·MBC·작곡李範熙) 趙容弼 (꽃바람·KBS·작곡趙容弼)

◇특별상=해당자 없음

◇심사위원 (가나다順)

◇위원장=李眞淳(東國大교수) ▲위원=金重眞 (한국일보社총무국장) 申榮均 (예총회장) 吳道光(日刊스포츠국장대리) 李明遠 (영화평론가) 李眞燮 (극작가) 李海浪 (예술원회원) 全光鏞 (서울대교수) 韓末淑 (소설가)

5월에 첫「敬老週間」설정

8일부터…「老人憲章」도 公布키로

정부는 13일 어버이날인 5월8일부터 일주일간을 경로주간으로 정하고 첫해인 올해 기념식전에서는「노인헌장」을 선포키로했다.

정부는 또 이기간중 전국에서 선발한 효자, 효부등3백여명에게 훈장, 포장및 상금을 수여하는등 경로사상선양을 위한 범국가적인 사업을 전개키로했다.

보사부당국에 따르면 현재 각의통과등 최종 마무리단계에 있는 「노인헌장」은▲현대사회에서의 노인의 위치▲노인을 존중해야하는 이유▲노인자신이 사회와 후손을위해 해야할 일등을포함하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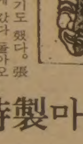
한편 보사부는 전국시도로부터 효자·효부상 후보자를 접수, 최종 선발작업을 하고있는데 보사부당국자는 이번에 선발되는 효자, 효부에게는 1백만원 이상의 부상이 지급되며 이들의 행실을「효행록」에 기록, 후세에전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복싱 염탐꾼

최신情報제공…機長 李相得씨

이젠副業처럼…特製마우스피스도 슬쩍



정보기機長인 李相得씨(49·사진·KAL소속)는 어쩌다보니 「복싱염탐꾼」이 돼버렸다. 복싱의 최강국인 미국의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의 최신복싱훈련정보를 자신의 정보기에 싣고 서울로 날아오는게 말하자면 「副業」처럼 자리를 잡았다.

李기장이 「염탐」해온 귀중한 정보는 바로 서울南營洞소재 두꺼비체육관장이며 젊은4각의代父인 張奎喆씨에게 전해져 선수훈련에 응용된다. 공포의 강타자들이 기라성같이 즐비한 멕시코선수들이 연습을할때 다리의 탄력을 높이기 위해 붕대를감는것을 사진으로 찍어왔는가하면 뉴욕선수들이 무는 특제 마우스피스를 슬쩍해오기도 했다. 張씨는 李기장이 미국에 갔다 돌아오면 「뭐 좋은정보가 없나」해서 얼굴만 쳐다보는게 습관처럼 돼버렸다고.

李기장이 「이런 일」을 하게된것은 특별한 사연이 있는게아니라 순전히 파일러트라는 직업때문에 생긴 부산물이다. 조종사에겐 체중이 느는 것이 제일 무섭다. 생업이 끝장난다는 경고인 것이다. 좁은 조종석에 앉아 상냥한 스튜어디스가 날라다 주는대로 꾸역꾸역 먹고 비행이 끝나면 피로에쫓겨 깊은 잠에 빠지곤 하니 부는게 몸일수 밖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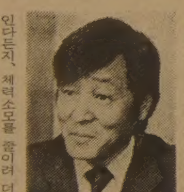
그래서 조종사들은 복서못지않게 체중조절에 신경을 쓴다. 틈만나면 골프·테니스·수영·조깅으로 몸을단련하고 땀을 뺀다.

李기장은 그중에서도 유별나게 복싱도장에서 체중조절을 하는사람. 중학교때 복싱을 좀 해본것이 인연이다. 미국으로 비행나가면 뉴욕·로스앤젤레스·호놀룰루의 유명복싱도장에 들러 줄넘기를 하곤한다. 서울에 오면 두꺼비체육관을 찾아가 스물안팎의 젊은이들 틈에서 뛰고…. 그래서 李기장은 1m68㎝키에 62㎏의 균형체중을 언제나 유지하고있다.

그런생활을 8년간하다보니 李기장의 눈에 한국도장에서와는 다른 방법으로 훈련시키는 미국선수들의 모습이 비추일수밖에 없었다. 로드워크를 할때 시선을 쉴새없이 움직인다든지, 체력소모를 줄이려 더킹각도를 작게하는 연습을 한다든지 하는 「과학훈련」을 간파했다. 오른손을 뻗을때 왼손이 내려오는 것을 막기위한 특수체조를 하는 것도 보았다. 그즉시 李기장은 호텔방에서 그동작을 연습해 익힌후 한국선수에게 소개해주기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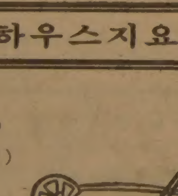
李기장은 『한국선수들은 챔피언선수의 경험이 연습교과서인데 미국선수들은 인간공학적인 방법으로 훈련받고 있는게 차이점이다』며 자신이 챙겨다주는 정보의 한계성을 아쉬워한다.

어려운 복서에게 경제적지원도 아끼지않는다는 李기장은 「스파이」라고 부르지않고 우리나라말의 「염탐꾼」으로 불리는것이 싫지는않은 모양이었다. 【金首宗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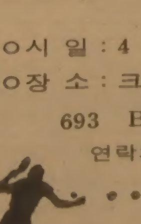


신장개업
동창, 단체회의, 계모임 이라고요?
당연히 크링톤 하우스지요.
○회의실(20명~100명)
○댄스룸(디스크·재키)
○게임룸
○식당(스낵바. 주문에 따라 간소한 한식도 써비스함)
○TAVERN
크링톤 하우스
693 BLOOR ST. WEST
크리스티·지하철 앞
☎535-9541 김 영 규 배

제3회총영사배쟁탈골프대회
제3회 총영사배쟁탈 골프대회를 준비하고 있읍니다.
TYANDAGA GOLF CLUB 은 BURDINGTON 시내에 있으며 TORONTO 에서 40분 DRIVE 할 거리 입니다. 많은 참석바랍니다.
참가자격 : 한인골퍼
예상인원 : 60명
때 : 1982년 5월 15일 토요일 10 : 30
장소 : TYANDAGA GOLF CLUB , BURLINGTON, ONT.
참가비 : $30 (디너포함)
상품 : GROSS1등 총영사배 및 트로피, 2등, 3등 트로피
NET A, B, C 조 에 각각 1, 2, 3, 등 트로피
〈NET A조 1등 해밀턴한인회장배)
LONG DRIVE, NEAREST, LADY 상 기타부상
연락처 : TORONTO 김동수 270-5515 이기훈 298-3584
HAMILTON 차인규 639-0773 신경순 389-0862
김형봉 560-6400 이창희 639-3139
주최 : 해밀턴한인골프협회
후원 : 토론토총영사관, 해밀턴한인회,
해밀턴한인실 , 토론토한인실협



탁구협회공고
82년도 탁구협회 임시총회가 다음과 같이 있겠사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시 일 : 4 월24일 (토)오후7시
○장 소 : 크링톤·하우스
693 BLOOR ST. W.
연락처 : 총무 김동천
243-0523



탁구협회 회장
정 영 모

새作物촉진劑 개발 쌀60%가 增産된다

제2綠色혁명… 트리아콘타놀 實用단계

世界최초로 서울農大·美미시간大 共同연구發表

實驗재배는 이미 성공

단백질도 2·5배 높아

農藥처럼使用…값도 3萬坪밭에 7천원꼴

값비싼 외국산 쌀을 사들이지않고 식량을 자급자족할수있는 시대가 곧 다가온다. 벼는 60%의 증수(增收)가 가능하고 단백질 성분 또한 현재 보통쌀의 7%보다 2·5배나 많은 18%로 높이는 새로운 식물호르몬 트리아콘타놀(Triacontanol)이 시판, 실용단계에 들어갈 날이 멀지않은것. 그렇게 되면 「제2의 녹색혁명시대」가 열리게되는 셈이다. 美미시간大 R·K·리스교수와 버지니아州 생화학연구소장 J·B·웰레비교수등과 서울大농대 林雄圭, 任炳彬교수팀이 공동으로 실험연구중인 트리아콘타놀은 1년여동안 극비리에 실험되고있어 日本과西獨등지에도 아직 소개되지않은 비장(秘藏)의 식물 호르몬.

지난해 6월 웰레비박사에 의해 합성에 성공한 트리아콘타놀은 배를 비롯해 토마토, 감자, 보리, 콩등 농작물에서 획기적인 증수효과가 있다는 것이 실험재배 결과 나타나 벼를 대상으로 지금 실험재배가 진행중이다.

빠르면 금년내로 실용화될 트리아콘타놀은 최근 공동연구를 해온 서울大농대 林雄圭박사에 의해 12일 세계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별표참조】

웰레비박사가 비닐하우스에서 배에대한 트리아콘타놀 처리실험을한결과 최고로는 60%의 증수효과를 거뒀으며 단백질의 성분또한 처리하지 않은것의 2·5배에 달하는 18%로 크게 늘어났다는것이 확인됐다.

◇웰레비박사의 트리아콘타놀처리 실험결과

종류	증수율
옥수수	50~54%
토마토	70 〃
콩	90 〃
오이	90 〃
당근	90 〃
수박	65 〃
팥	45~90 〃
기타채소	50~90 〃
벼	최고60 〃 (※단백질 함량2·5배)

미시간大의 리스박사도 실험재배결과 토마토는 49%, 감자21%, 보리67%, 콩은49%의 증수효과를 가져왔다. 또 웰레비박사는 우리나라 중앙종묘사의 조생 대형봄무우와 강육토마토 씨앗을 미국으로 가져가 실험한 결과 무우는 32%, 토마토도 41%의 증수효과를 가져왔다고 지난2월 林박사에게 알려왔다. 웰레비박사는이리포트에서 한국산 무우와 토마토를 노천재배할 경우 시험관에서의 조직배양때에비해 2배이상의 높은 증수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트리아콘타놀에 의한 획기적인 증수효과는 지난해 7월 서울대농대 온실에서 林박사팀이 실시한 실험재배에서도 확인됐다. 떡잎이 3~4장 나왔을때 0.5PPM(2백만분의1g)을 뿌린결과 강육토마토는 62%, 중앙킹건고추도 60%의 수량증가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트리아콘타놀 처리결과 고추는 길이가 길어지고 껍질이 두꺼워졌으며 토마토는 뿌리가 늘어났고 무우는 뿌리가 굵어졌다.

林교수팀은 이실험에서 트리아콘타놀이 세포분열을 촉진하고 세포의 부피를 크게 한다는 현미경관찰결과를 웰레비교수에게 알려줬다. 토마토와 고추등에대한 실험을 마친 林박사팀은 벼에 대한 진중적인 실험에 들어갔는데 서울농대 비닐온실에서 지난해9월1차실험한결과 벼는 키가 커지고 가지수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벼의생장점인 세포의핵질비도 38%로 늘어났다는것.

林박사는 벼에대한 실험을 계속, 지난3월에는 일반벼와 통일벼 각2종류의 모종을 서울농대 실험포장에 부어 노천실험에 들어갔는데 오는 6월께면 그결과가 나올것으로 알려졌다. 林교수는 이실험이 성공할 경우 우리나라도 쌀 자급자족을 이룩할수있을것으로 내다봤다.

林교수에 따르면 트리아콘타놀의 사용방법은 매우 간편해 농약처럼 뿌리기만하면 되며 값도 3만평의 밭에 7천원(실험가격) 안팎이면될정도로 대량보급이 용이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호르몬에의한 농작물증수효과는 1936년 일본인 구로자와(黑澤)가 발견한 지버릴린(Gibberellin)이 발효를 낸 것으로 10~20%의 증수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돼 있다.

트리아콘타놀은 현재 미국 농무성에 실용화에 대한 허가를 신청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실용화될경우 林박사팀은 트리아콘타놀을 우리나라에 독점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林박사는 한미합자 등간에 재래공통재배실험연구가 이뤄지고있는 브라시노스테로이드(Brassinosteroid) 호르몬 실험이 성공할 경우에는 작물의 증수효과는 더 많이 낼수 있다고 밝혔다. 브라시노스테로이드는 초기 실험에서 콩의 어린잎에 1 PPM(1백만분의 1g)을 뿌린결과 줄기의 신장이 3배나 늘어난 것으로 보고됐다. 【朴珍洌기자】

◇林박사팀이 서울농대 한 구석에마련한 온실에서 무우에대한 트리아콘타놀 실험재배를 하고있다.

◇林박사가 공개한 트리아콘타놀㊨과 브라시노스테로이드 호르몬㊧.

北韓에 思想犯 10만5천명

NYT보도 「偶像化반대」收容 8개群島확인

【워싱턴=曺淳煥특파원】北韓당국은 현재 최소한 10만5천명의 反體制인사들을 思想犯으로 집단수용소에 억류하고있으며 北韓안에는 이들 사상범들을 수용하고있는 8개소의 대규모집단수용소와 일반刑事犯을 수용한 在來式감옥(敎化所) 25개소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뉴욕·타임즈紙가 11일 서울發기사로 보도했다. 한국의 국가안전기획부고위관리들과 가진 인터뷰내용을 인용한 이보도는 이러한 사상범수용소의 존재는 오랫동안 의심되어왔으나 확인하기가 어려웠는데 최근 北韓을 탈출해온 3명의 귀순자들의 증언으로 이사실이 처음으로공식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보도는 中共과의접경에 있는 咸北穩城郡 수용소가약 2만7천명의 反체제 사상범들을수용, 8개집단수용소가운데 규모가장크며 咸北會寧郡부근에있는 수용소엔 약 2만명, 鏡城郡수용소에 약 1만5천명, 咸南耀德郡수용소에 약1만3천명, 平北定平郡수용소에 약1만명의 정치범들이 수용돼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平北龍川郡지역에 약5천명, 寧邊郡지역 수용소에 1만5천명이 수용돼 있으며 慈江道熙川지역에도 수용소가 있으나 이곳의 수용인원은 數를알수없다고 한국관리들이 말한것으로 이보도는 전했다.

한국의 정보관계 고위관리는 北韓안에있는 反체제인사들의 수용소존재는 4년간의 노력끝에 확인된것이라고 밝히면서 『사상범집단수용소등 北韓에관한 진실을 알려줌으로써 北韓사회에대한 인식을 깊게하고 억류된 정치범의수는 그보다 더많고 수용소도 더있을지 모른다』고 밝힌것으로 이보도는 전했다.

77년 귀순한 申榮萬씨(57)는 자신이 수용소의 내부를 샅샅이 살펴봤다고 밝히면서 『수용소는 절반은 움막이고 절반은 집인 오두막들이었으며 핏기가 없고 앙상한 몰골의 정치범들이 여기저기 이드러난 남루한 옷들을입고 있었다』고 말했다.

地下鐵공사 사고現場 시찰

全大統領 "再發방지 노력을"

全斗煥대통령은 12일하오 청와대에서 朴英秀서울시장으로부터 서울西大門區峴底洞 지하철공사사고현황과 복구대책을 보고받은뒤 사고현장에들러 복구작업현황을 살펴봤다.

全대통령은 이날하오6시40분 峴底洞사고현장에 도착, 金在明서울지하철공사사장으로부터 피해복구현황을 보고받고 『사고재발방지에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또 『교통소통만 생각해 무리하게 복구작업을 서둘면 오히려 더 위험하므로 당분간 시민의 불편이 있더라도 완벽하게 복구하도록 하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특히 비가올경우의 대비책, 지하 폭파작업때 民家에 미치는 영향등에 관심을보이면서 조속하고 안전한 복구를 거듭당부했다.

맨해턴銀총재 接見

全斗煥대통령은 12일상오 청와대에서 美체이스·맨해턴은행의 前총재인 데이비드·록펠러씨와 歐洲공동체(EC)의 칼·하인즈·나르예스집행위원(西獨人)을 차례로 접견하고 환담했다.

誠金기탁자에 親書

全斗煥대통령은 12일 새마을誠金을 기탁해온 기업인8명에게 親書를 보내 치하격려했다.

새마을 誠金을 기탁해온 기업인들은 다음과같다.

▲崔鍾賢 鮮京그룹회장=5억원 ▲崔元碩 東亞그룹회장=3억원 ▲金俊起 美隆건설회장=″ ▲柳基大 대한탁약주제조중앙회장=1억7백만원 ▲李康學 大然閣호텔사장=1억원 ▲趙乃璧 주식회사라이프사장=″ ▲郭根培 永東개발진흥사장=″ ▲沈明求 鮮光공사사장=5천만원

코리안 아메리칸

언젠가 한국일보「여자의마음」난에 실린 한주부의「한국이름 미국이름」이란글을 읽은적이 있다. 며칠전에 한국할머니로부터 터같은질문을 받고 내나름대로의생각을적어본다.

그분은아이들의이름을미국식으로 고친사람들에 대해서 강한 거부반응을 나타내었고 일제시대 창씨개명의 아픔까지 얘기하셨다.

한국에서도 본래의 이름이 싫으면 다른이름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많은줄안다. 남의 지배를받으며 개명을 강요당하는것은 아니지만「코리안·아메리칸」이기에 많은동포들이 아이들이름을 미국식으로 바꾸어주고있다. 또 여기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겐 처음부터 미국식이름을 지어주기도한다. 뭐가 그리 잘못되고 거슬리게 있겠는가. 코리안으로서의「긍지」만을 잃지 않는다면 이름을 서양식으로 바꾸었다고 부끄러울일이 무엇인가. 꼭 한국이름을 고집해야만 애국자이고 민족의식이 투철하다고 하겠는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들 이름이 미국아이들 이름에 비해 발음하기 어려워서 항상 잘못 불려지는 아픔을 주는것 보다는 오히려 바꿔주는게 좋지않을까 생각해본다.「철수」는「찰」또는「찰수」로,「영인」는「양」또는「양인」로,「면희」는「미와휘」로 미국인들에게 불려지니 아이들은 자기이름을 항상 잘못 부르는것에 기분상하고 어느새 스스로 이방인같은 느낌을 갖게하는게 아닐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코리안·아메리칸」이다. 오직 코리안이기만을 고집한다면 미국社會에선 영원히 이방인이 될것이요 물과 기름처럼 융화될수 없으리라. 또 우리는 영원히 아메리칸일수도 없지않은가? 우리의 얼굴빛깔과 낮은코 작은눈이 말해주듯이 우리는 코리안이기 때문이다.

【황희수·160 Hakness Ave. Pacadena. CA. 91106 U.S.A】

班常會서 民正入黨

"弘報지시했지만 入黨권유 指示안해"

관련 사무局長징계

民正黨은 12일 지난달25일 서울 某지구당의 활동장이 공개석상인 반상회에서 지역주민 3명을 民正黨員으로 입당시킨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 사무국장을 징계하는 한편 앞으로 1개월동안 전국 92개 지구당을 대상으로 黨務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李相涔사무차장은 이날『반상회를 民意수렴및 黨이념홍보장소로 활용토록 지시한바는있지만 이같은 공개장소에서 주민들의 入黨을 권유토록 지시한바는없다』면서『이런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위해 해당사무국장을 징계하는 한편 서울14개지구당의 사무국요원전원에대한 재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는14일 중앙집행위에서 지침이 확정되는대로 지구당의 조직, 經理, 당직자에 대한 평가, 당원교육의 효과등에 대한 당무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民正黨의 이같은 黨務감사및 사무국요원에대한 재교육은 최근 당원들의 현지교육에 비당원들이 참가하고 통반장이 당원교육통지서를 전달하는가하면 심지어는 술집접대부까지 동원되고 있다는 說이 나돈뒤 취해진것이다.

地下鐵사고 규명

民韓, 內務委소집

柳致松民韓黨총재는 12일 서울地下鐵공사장의 倒壞사건과관련, 국회內務委를 조속한 시일내에 소집해 사고의 책임은 물론 감독기관의 감독소홀여부를 철저히 추궁하라고 지시했다.

"意識고쳐야 不正拔本"

劉總理 官主導 改革보다 家庭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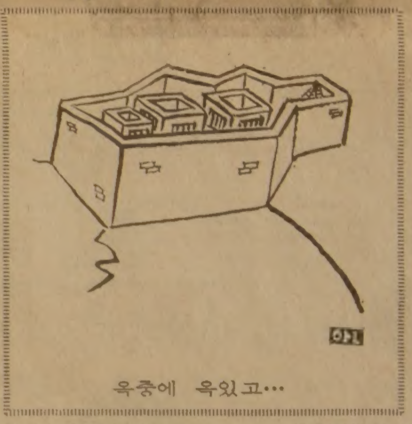
劉彰順국무총리는 12일『역사적인 제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온국민의 기대속에 正義롭고 통일된 民主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국가목표를 순조롭게 이룩해 나가기위해서는 잘못된의식들이 단호히 개혁돼 新鮮한 의식이 국민속에 새로이 뿌리를 내려야한다』고 강조하고『意識개혁이 이루어지지않고는 이미 취해진 갖가지 부정과 비리의척결, 행정개혁조치들이 제대로 실효를 거둘수없고 지속될수없을것』이라고 말했다.

◇劉彰順총리

劉총리는 이날 밤8시20분 正義사회를 위한 意識改革에 관한 TV프로에 출연, 이같이 설명하고『의식개혁은 강요되거나 官主導로 이루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意識개혁추진방향에 대해 ▲우선 나자신과 가정으로부터 출발, 사회전반으로 확산돼 본격적으로 추진돼나가도록하고 ▲자기주변의 가장 가깝고 쉬운과제부터 실천하며 지도층으로부터 국민에게로번져나가 일상생활속에 체질화되도록 긴 안목에서 추진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社會漫評



옥중에 옥있고…

地平線

사람을 괴롭히는 병을 없앨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수명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미국의 도널드·프라이즈박사와 로런스·크레포박사는 말하고있다. 스탠퍼드대학교 의대 교수인 이들은 수명의 한계가 최고 97세쯤 된다고 말한다. 문서기록으로 확인된 최고령자는 1백15세이며 그밖의 주장들은 믿을수 없다는게 이 두박사님의 말이다.

▼사람의 오장육부는 서른고개에서부터 서서히 늙어가기 시작한다고 한다. 그래서 모든 병을 다없앤다해도 사람들은 73세에서 97세사이, 그러니까 평균 85세에 죽게된다고 프라이즈와 크레포는 말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늙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비슷한 나이에 죽어가는 사회가 다가오고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술·담배를 끊고 음식을 조심하고, 사고만 당하지않는다면 누구나 天壽를 누리는 사회다.

▼그러나 인간의 천수는 1백10에서 1백20세에 이른다고 미국립 고령문제연구소의 로버트·버틀러소장이 주장하고 있다. 사람의 육술은 60%가 타고난 건강등의 유전적요소로, 40%는 생활습관으로 좌우된다고 그는 말한다. 역시 술·담배를 삼가고, 고기보다 푸성귀를 먹으라는 권고다. 병은 의사가 고치지만, 오래 살자면 생활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영국의 톰·스토니어교수는 자동차의 부속품을 갈아 끼우듯 사람의 낡아버린 오장육부를 갈아 끼운다면 꽤 오래살것이라고 말하고있다. 영국에서 지금의 10대들은 1백20살을 넘을수있을것이라고 그는 내다보고있다. 소련의 인간재생학 연구소장인 네고프스키는 경솔뒤에서 1백50살까지 살수있다고 말하고 있다.

▼12년전 미국에서 오토목사가 만든「장수위원회」라는 단체가 지난3월 보고서를 내놓은 일이 있었다. 1백살이 넘은 노인 1천명 이상의 자료를 모아 5개항의 공통점을 든 것이다. 그것은 ①무엇이나 지나치지않는다. 술은 취하지않고, 담배는 빨아들이지않는다. ②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③신앙심이 깊어서 어려움도「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 ④생각보다 뛰기에 바쁘다.

▼장수노인들의 마지막 특징은 아주 중요한것 같다.「인생문제로 괴로와하지않는다」는 것이 다섯번째다. 일본의 한 보험회사가 조사한 결과도 60%는 느긋한 마음을 비결로 들고있다 했다. 천수를 누리고 못누리고는 오직 마음에 달려있는 과학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무작정 오래 사는 자체보다도 사람답게 오래 살아야된다는 데에 인간의 고뇌는 있는 것이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신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Y—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 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민영숙
(B)368-7961 (R)690-5217

★구라파 관광★

출발일	1982년 7월 22일
귀환일	1982년 8월 10일
기 간	19박 20일
요 금	$1,550.00
포함사항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2인 1실), 식사(아침17식 저녁12식) 구라파내 지상 및 해상교통 및 관광지 입장료, 한국인 안내자
방문지	영국(런던), 화란(암스텔담), 오지리(인스부루크) 이태리(베니스, 로마, 나포리 소리엔토, 카푸리, 플로렌스, 피사), 불란서(니스, 빠리), 스위스(제네바), 몬테칼로, 벨지움(오스텡) 독일(라인강유람, 하이델베르그)
예약마감	1982년4월30일까지 예약금 1인당 $200납부. 단) 취소시는 반환치 않음.
정 원	30명 선착순
기 타	잔액은 5월30일까지 완납. 요금은 예고없이 변동될 경우도 있음. 캐너더 일시 방문자도 가입할수있음.

★구라파 캠핑관광★

	1982년 8월 2일 ~ 8월 26일
기 간	25 일
가 격	$ 1,457.00
방 문 국	10개국(영국, 화란, 서독, 스위스, 리첸슈타인, 오지리, 이태리, 바티칸 시, 모나코, 불란서)
가격에 포함된것	왕복항공료, 숙박비(2인1조) 관광 및 안내(관광명소 입장료 포함)
추가비용	식사비(1일 3식) US 130.00현지에서 지불, 런던 호텔비(2박) CD 40.00
특 징	대상→남녀 대학생및 청년 야외캠핑 여행 식사는 동행요리사가 조리함. 한국인사회 저명인사 동행(감독자)
신청마감	1982년 4월 30일까지 신청금 $200지불 (취소시 $50은 반환하지 않음), 정원 40명(선착순) 캐나다 여권준비
연 락 처	신세계 여행사 712 BLOOR ST. W. Toronto ☎536 – 2155 또는 KUSA(한국대학생회)

❖구라파 여행은 여러분의 신세계로‥

신세계 NEW WORLD TRAVEL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김향일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536-2155·2156
R) 492-7525

"6월 美·蘇頂上회담"

蘇고위관리 브레즈네프 訪美가능성

【모스크바10日UPI 聯合】 소련최고회의간부회의장(국가원수격)겸 공산당서기장 레오니드·브레즈네프는 오는 6월 뉴욕에서 美蘇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레이건美대통령의 간접초청을 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소련의한 고위관리가 밝힌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소련공산당중앙위원으로서 소련의 국제정책수립에 관여하는 이 관리는 소련을 방문중인 美외교정책전문가들과 회담한 자리에서 브레즈네프가 오는6월 뉴욕에서 개최되는 군축문제에관한 유엔회의에 참석해줄것을 제의한 레이건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들일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 미국인참석자가 전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지난5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유엔군축회의에 참석, 연설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브레즈네프도 그렇게 하길 희망한다고말해 브레즈네프의 미국방문및 美蘇정상회담을 간접제의했었다.

이 소련관리의 이날 발언은 무분별한 한 관리의 발언이 아니라 이같은정보의 의도적인 누출로 풀이되고 있다.

日에 生體실험波紋

石井부대出身의사, 功績인양 자랑

【東京=聯合】 舊日本關東軍의 잔인한 생체실험이 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악명높은 제731부대의 연구반 책임자였던 의학자가 당시의 실험결과를 일본의학지에 자랑스럽게 소개했음이 밝혀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문제의 의학자는 생체실험부대였던 關東軍 제731부대 대일명 이시이(石井)부대의 동상연구반책임자로 일하다 종전후 귀국, 일본 간사이(關西)지방의 한 공립의대학장과 국제기상학회부회장등을 역임하는등 일본환경적응의학계의 대가로 알려진 A씨(75)。

A씨는 작년4월 일본생리학회대회에서 이시이부대의 동상연구생체실험결과를 자기의 공적인양 자랑스럽게 강연했으며 그내용은 작년7월 발행된 일본생리학회지 43권7호에도 그대로 소개됐다.

아르헨側 平和案휴대

헤이그, 대처와 다시會談

英함대回航·아르헨軍철수등 포함

금명간 斷案 나올듯

英, 포클랜드海上 봉쇄 發效

◇헤이그 2번째 英에 포클랜드 분쟁해결을 위해 왕복외교를 벌이고있는 헤이그 美국무장관이 11일 런던을 2번째로 방문, 대처영국수상과 다시 만났다. 【런던11日 UPI電送=聯合】

【런던12日UPI·AP=聯合】 영국은 아르헨티나가 무력으로 강점한 포클랜드군도주변 2백해리해역에 대해 12일하오1시(한국시간)를 기해 해상봉쇄령을 내리고 이해역안에 들어오는 어떤 아르헨티나선박도 격침될 거이라고 경고했으나 이수역에서 어떤 적대행위가 있었는지는 즉각 보도되지 않았다.

한편 포클랜드분쟁 타결을 위해 왕복중재 외교를 벌이고있는 알렉산더·헤이그 미국무장관은 레오폴도·갈티에리 대통령등 아르헨티나지도자들과 회담한뒤 모종타협안을 휴대하고 런던을 다시 방문, 이날하오 늦게까지 대처영국수상과 2차회담을 계속했다.

헤이그장관이 휴대한 아르헨티나의 협상안에는 『영국이 포클랜드해상봉쇄령을 철회하고 포클랜드로 향해 항진중인 영기동타격함대에 회항명령을 내릴경우 포클랜드주둔 아르헨티나군을 철수시킬것』이란것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고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신문보도들은 전하고있으나 정확한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있다.

영국 외무성의 한대변인은 포클랜드주변 2백해리수역에 대한 해상봉쇄령이 예정대로 정식발효됐으나 아르헨티나 구축함 1척과 프리키트함1척을 제외한 모든 함정을 철수시켰다고 지적, 즉각적인 무력대결의 위험은 크게 감소되었음을 시사했다.

레바논南部에 戰雲

이 師團파견·PLO 全面경계령

【베이루트10日AP UPI=聯合】 이스라엘은 지난주 파리에서 발생한 이스라엘 외교관피살사건과 관련, 팔레스타인 게릴라에대한 보복의일환으로 11일을 전후해서 남부레바논과의 국경에 사단규모의 병력을 파견했으며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는 이에 맞서 게릴라들에게 전면 경계령을 내리는등 대응조치를취함으로써 레바논 남부에서의 이스라엘과 PLO간의 무력 충돌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해서 이스라엘정부는 11일 긴급각의를 열고 PLO게릴라의 이스라엘외교관 암살에대한 보복책을 논의하는 동시에 팔레스타인게릴라에 대한 단호한응징을 선언했다.

또한 이스라엘軍 사령부는 지난 10일 팔레스타인게릴라 2명이 요르단국경을통해 요르단江서안으로 침투, 이스라엘정착촌에대한 공격을 시도했으며 이는 지난해 7월 미국의 중재로성립된 이스라엘―레바논―PLO간의 휴전을 전면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약 2만명의 병력을 레바논과의 국경지역에 집결시켰다.

國境에 병력집결

【뉴욕12日外信=聯合】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장 야세르·아라파트는 12일 이스라엘이 아마도 24~48시간안에 레바논국경을넘어 공격해올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라파트는 이날 미 뉴욕·타임즈지에 보도된 베이루트 회견에서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과의 국경지역에 이미 3~4개사단의 병력을 집결시켜놓았다면서 자신은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으나 휴전협정을 위반하지는 않을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레즈네프 車타고外出

【모스크바11日UPI=聯合】 소련공산당서기장 브레즈네프가 공식석상에 모습을 나타낸지 17일째되는 11일 모스크바시에서 그를 태운것으로 여겨지는 리무진 한대가 어디론가 급히 달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고 목격자들이전했다.

올해 75세의 브레즈네프가 오랫동안 공석에서 보이지않자 그동안 그의 건강악화설이 나돌았는데 이날의 목격에 대해 한 서방외교관은 그가 병원으로 향했든 집무실로 향했든 차를 타고 외출할수 있었다면 건강이 조금 나아진것으로 추측될수있을것이라고 말했다.

"레바논侵攻안해" 駐이 美대사밝혀

【텔아비브·모스크바12日AP=聯合】 이스라엘은 소련측의 주장과는 달리 레바논내의 팔레스타인게릴라에 대한 위기를 레바논내의 팔레스타인게릴라에 대한 침공기회로 악용하는 일은없을 것이라고 이스라엘주재 사무엘·루이스 미국대사가 12일 전했다.

루이스대사는 지난11일 베긴수상을 비롯한 이스라엘 각료들과 가진회담에서 베긴수상이 자신에게 이스라엘내각은 어떤 형태로든 레바논을 공격하기로결정한바 없는것으로단언했다고말했다.

그런데 이스라엘내각은 지난11일 레바논내 팔레스타인게릴라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火曜안테나

레바논軍 백50명 反政단체에 被拉

【베이루트11日AFP=聯合】 약 1백50명의 레바논 정규군과 경찰이 11일밤 반정단체인 아랍·레바논군(ALA)요원들에의해 납치됐다고 레바논 신문들이 이날 보도했다.

그런데 자칭「아크사단」이란 정체불명의 팔레스타인 단체는 이날 베이루트의 두 라디오 방송국에 전화를걸어 이번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번공격은 지난 11일『예루살렘의 회교사원에서 있었던 아랍인에대한 한 미국인의 총격사건에대한 보복』이라고 말했다.

레바논신문들은 가짜신분증을 소지한 ALA요원들이 이날 팔레스타인 거주지역인 서베이루트의 도로를 차단하고 1백50여명의 레바논정규군사병과 경찰관들을 납치했다고 보도하고 이날 ALA가 레바논정규군사병들을 납치한 것은 지난10일밤 베이루트공항에서 레바논보안군이 2명의 ALA요원을체포한데 대해 보복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레바논 美대사관 로키트 공격받아

레바논주재미국대사관이 지난11일밤 로키트포 공격을받아 건물피해를 약간입었으나 사상자는 없었다고 대사관대변인이 12일 발표했다. 【베이루트=AFP】

버마 旅客船 침몰 70여명 사망·실종

승객2백여명과 소·닭등 가축을 가득싣고 랭군강을 지나던 버마의 2층여객선1척이 11일 강속의 모래톱에 부딪쳐 전복, 최소한 70명이 익사했다고 버마신문들이 12일 보도했다.

신문들은 이 여객선이 랭군서북방 32km지점 강상에서 정선의 거룻배를 피하기위해 방향을 틀던중 모래톱에 걸려 전복됐으며 승객중 1백45명만이 살아남았을뿐 나머지 승객들은 모두 실종됐거나 익사체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랭군=外電】

미테랑 오늘日방문 佛國家원수론처음

프랑스와·미테랑 프랑스대통령은 현직 프랑스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오는14일부터 4일간 일본을 공식방문하기위해 13일 출국한다.

미테랑 대통령은 일본방문기간중 스즈끼수상을 비롯한 일본의 정계및 재계지도자들과 만나 같은 서방의 정치및 경제동맹국으로서의 양국관계를 강조하면서 양국의 격심한 무역불균형의 시정을촉구할것으로 보인다. 【파리=AFP】

復活節 평화시위 西獨, 20여만참가

프랑크푸르트를 포함한 西獨전역의 주요도시에서 10일과11일 총20여만명의 평화주의시위군중들이 미국의 유럽核미사일배치계획에 반대하는 대규모「부활절평화시위」를 벌였으며 美시카고에서도 약 2만5천여군중이 美·蘇간의 핵무기경쟁에반대하는 反核시위를 벌였다. 【본=UPI】

日首相, 사마란치에 88올림픽 協調밝혀

【東京12日AP聯合=特約】 일본을 방문중인 환·안토니오·사마란치 국제올림픽 위원회(IOC) 위원장은 12일 스즈끼·젠꼬 일본수상에게 한국이 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를수 있도록 협력할것을 요청했다고 이날 수상실 대변인이 밝혔다.

스즈끼수상은 이날『IOC가 88년 올림픽 개최지로 서울을 선택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일본은 최선을다해 한국정부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덧붙였다.

안티카 버뮤다國 버드外相 어제내한

카리브지역의 안티카·버뮤다國의 레스터·버드外相이 盧信永외무장관의 초청으로 12일하오7시30분 來韓했다.

◇레이건의 돌팔매 카리브海를 방문중인 레이건 美대통령이일요일인 11일 바베이도즈에 사는그의 오랜친구이자 왕년의 여배우 클로데트·콜베르의집앞 해변에서 자갈물수제비뜨기놀이를 하고있다. 【AP】

海外토픽

美처녀들 日서賣春 ★밤무대미끼 魔手에걸려

20대초반의 젊고 아리따운 미국의 금발미녀들이『일본의 쇼무대에서 가수활동을하게해주겠다』는 흥행사들의 광고에 현혹돼 일본으로 건너간후 창녀생활을 강요당하는 사례가 꼬리를 물고일어나 미국경찰이 잔뜩 긴장하고있다고.

로스앤젤레스 경찰당국에 따르면『일본의 마피아』라고 불리는 야꾸자의 지원을 받고있는 것으로 보이는 한 매음조직은 미국의 금발미녀들을 일본으로 데려가 하루 정도는 약속대로 밤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게한후 매음을 강요하고 있다는것. 【로스앤젤레스=AP】

中共에 새관광코스 ★蘇州―杭州간大運河순항

중공은 강소성(江蘇省) 소주(蘇州)와 절강성(浙江省) 항주(杭州)간의 대운하를 순항하는 새로운 관광코스를 지난3월부터 외국관광객들에게 개방, 많은 환영을 받고있다고 관영 신화사통신이 보도.

수나라(589~618)때 양제의 지시로 파여진 대운하는 북쪽의 황하와 남쪽의 양자강을 잇는 것으로서 이중 중공의 베네치아라는 소주와 중공동부의 관광도시 항주간의 수로가 관광객들에게 개방됐다. 【홍콩=AP】

名分소용돌이..「숨가쁜 9일」

―포클랜드紛爭… 헤이그「왕복外交」의 虛實

국제焦點

"海上봉쇄"에 "膺懲태세"맞서 「兩側체면」살려야 解決가능

【워싱턴12日=青洋煥특파원】 헤이그 미국무장관은 12일런던으로 다시 되돌아갔다. 포클랜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헤이그의『왕복외교』가 시작된 것이다.

커크패트릭 미유엔대사는 영국과아르헨티나 둘다 국가적 위신과 정권의진퇴가 걸려있어 거중조정이 매우 어려우나 긴장의 절정에서 평화적으로 해결될가능성에 낙관한다고 한TV회견에서 11일 말했다.

긴장이 고조되거나 싸움이 치열해진후 협상에 이르게 되는 법이다.

협상직전에 베트남전쟁이 치열했고 한국전쟁휴전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역시 전쟁은 치열했다.

포클랜드 협상에앞서 현재 전쟁이 진행되고있는것은 아니나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를 침공한후 양국간에 국가적 총력에 바탕을 둔 외교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갈티에리아르헨티나대통령이 헤이그와 회담한후『영국군이 올려면 오라지。그들을 응징할 태세는 되어있다』고 대통령궁앞에 모인 10만군중에 말한것은 엄포만은 아니었다.

약8천명의 아르헨티나군대가 포클랜드섬에서 참호를 파고 싸움을 준비를 다하고있다.

영국함대가 아르헨티나함대에 절대적으로 우세하다지만 3천6백명의 해병대와 특공대로 참호를판 아르헨티나군대를 무찌르고 포클랜드를 탈환한다는것은 결코쉬운 일이 아니다.

2차대전이 戰史에남긴 한 교훈은 항공기의 뒷받침없이는 함대가 위력을발휘할수없다는 것이다. 2백35대의 아르헨티나공군은 2척의 영국항공모함이 갖는 전투기를 압도하고 있다.

아르헨티나해군은 2척의 함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아르헨티나항구에 정박했다.

이것은 12일0시(한국시간 12일하오1시)부터 포클랜드2백마일해상 봉쇄선에 들어오는 아르헨티나함정을 격침한다는 영국측선언에 도전하지않겠다는것이 된다.

아르헨티나는 싸움을할 준비를다하고 협상을위해 신중을기하고 있다.

물론 헤이그가 왕복외교를 하는동안 전쟁은 일어나지않는다.

또 헤이그는 조정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있다.

영국함대가 포클랜드에 도착하려면 9일후가 된다.

영국함대는 외교적 해결에 충분한 시간을주기위해 최고속력을 내지않고 있다고 한다.

국방상을 지낸 영국의노동당지도자 힐리는 11일 美TV와의 회견에서 외교노력을 통한 3단계해결방식이 있을수 있다고 말했다.

첫째는 헤이그가 영국의 해상봉쇄선언에 도전하지 않도록 아르헨티나를 설득하는 것이다.

헤이그는 이 첫단계에는 성공했다. 2척을 제외한 모든 아르헨티나함정이 항구에 정박했으니까.

둘째는 포클랜드섬으로 침공한 아르헨티나군대가 철수하는 것이다.

아르헨티나군대가 체면을 잃지않고 철수하는 방식에는 2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유엔평화유지군이 대신 포클랜드섬에 진주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단계적 철수인데 아르헨티나군대의 제1진이 철수할때 동시에 영국군함 수척이 방향을 돌려 영국으로 돌아가는식으로 양쪽이 모두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방식이다.

이 두가지의 어느것도 아르헨티나의 위신을 그렇게 손상하지 않는다.

세째단계는 영국이 포클랜드섬에 대한 아르헨티나 주권 인정에 양보하는 것이다.

둘째단계가 이뤄지면영국이 주권에 양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유엔탁상협상에서도 영국은 주권문제에 양보할 자세를 보였다.

포클랜드섬의 주권양보방식에는 홍콩방식보다도 영국과 프랑스가 주권을 공유한 뉴·헤브라이드스방식이 더 실현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이유는 포클랜드섬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있다는 유력한 설때문에 아르헨티나는 25년 또는 50년간이나 자원을 영국에 뺏기지 않고 싶다는 것이다.

헤이그는 13일에는 다시 영국과 아르헨티나간의 의견을 좁히기위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한다고 아르헨티나 관리들이 밝혔다한다.

좀 낙관적으로표현하면 평화적 해결에관한 세부절차사항에 양측이 합의하는 것이 남아있다고 하겠다.

◇英특공대의 상륙훈련 英國해병대소속 특공대원들이 가상 상륙작전 훈련을하고있다。이들특공대원들은 포클랜드 군도탈환작전시 선발대로 차출될지도 모른다。 【런던11日AP電送=聯合】

메아리

「동자스님 환생」의 기사내용(11일자 한국일보 11면)은 읽은 마음을 진종일 훈훈하게 해주었다。지난달 24일 역시 같은 지면에서 임진왜란때 국난을 극복하는데 크게 공이 있었던 승군장 사명대사가 꿈인 그 꼬마스님이 심부전증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을때 이를 알게된 마음은 누구나 암울했을 것이다。

비록 출가의 몸이라 하나 불과 15세밖에 안된 혜성스님(흥도사)은 1천만원의 수술비가없어 그처럼 죽기만 기다리는 처지에서도 되려 옆자리의 환자를 위해서 설법으로 위로하는 여유까지 보였다니 소년으로선 어려운 어진마음씨며 배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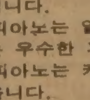
또 그곁에서 난치병으로 한달째 병상에 누워있던 25세의 어느청년이『저렇게 의젓하고 착한 스님을 살릴길이 없겠느냐』며 안타까와하자『사는것은 좋은 일이나 모든것은 윤회가 아니냐』고 미소로 대답했다는 것도 나이에 걸맞지 않는 어른스러움 이다。

어린 스님에관한 이야기를 취재기자는 그기사가 보도된다음 신문사로, 병원으로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않아 2천만원을 웃도는 성금이 모이자 뜨거운 사회인정에 놀랐음과 동시에 기자로서의 조그마한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溫情의 여울

그의 놀라움이란 성금을낸 사람의수나 액수의 많음때문은 아니었다。그 보다도 성금의 절반이상인 1천2백만원어치의 회사자들이 이름밝히기를 거부한 「보통 사람들」의 손길이었다는 점에서 였다。

『그들은 소문난 정치가나 기업인이나 자선사업가도 아니었다。그저 어렵고 고통받는 이웃에 가만히 않아있지 못하는 서민들 이었다』고「보통 사람들」이었음을 기사에선 특히 지적하고 있다。



이무렵 우리 둘레에서는 부산 미국문화원방화사건의 충격이 미처 가시지 않고 또 서울 지하철공사장붕괴로 인한 놀라움이 겹치는등 어둡고 스산한 세속의 괴로움이 이어지는 참이었다。바로 그런 속에서도 한 동자스님의 환생을 위해 드러난 온정의 여울은 많은사람들로 하여금 이땅에 대한 어떤 긍지 같은것을 실감케 하는 것이었다。

신병을 고친 혜성스님과 그 병상을 돌본 인산스님이나 주치의의 미소짓는 신문사진은 참으로 인상적이었다。근래 많은 사람들이 자칫 저버리기 쉬운 「生의溫情」을 새삼 일깨워 주는 것이어서 그러했다。

김명종 한약방

보약(탕약과 엑기스 약제), 심신 모두 피로, 기혈부족, 신경과민, 노이로제, 허리병, 근육통, 부인병,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 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411
☎ : 745－2058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킷·카트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픽업하는 식사의 정찬.
영업시간 : 월~일(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스파다이나 코너)
☎ : 977－3142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각종 가죽옷 도산매
PERFECT LEATHER GOODS

온타리오 주 내에서 가장큰 가죽제품 스토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대로 선택할수 있음

192 SPADINA AVE.
☎ : 368－4215, 368－0114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 883－9407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쿠잇 방,
오후 4 : 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Wilson / Eglinton / Keele / CHINA HOUSE / Bathurst / Bayview / Bloor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거북이선물집
각종귀국선물 염가봉사
617 BLOOR ST. W. TOR.,
☎ : B) 535-2143 R) 656-3446
대표 이 정 석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목, 금, 토, 일 권순근과 그일행 출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한국—뒤셀도르프 최종 3차전에서 한국의 崔淳鎬⑥가 뒤셀도르프 선수를 제치고 헤딩하고있다. 【光州=鄭範泰기자】

趙廣來, 25m 슛

마지막對戰 한국, 뒤셀도르프 制壓

한국, 2勝1敗

【光州=千一平기자】 한국대표축구팀은 11일하오 이곳 無等경기장서 벌어진 西獨프로축구 뒤셀도르프초청 최종 3차전경기에서 후반26분 HB 趙廣來가 대포알같은 25m 중거리슛으로 결승점을 올려 2—1로 승리, 서울·釜山·光州서 가진 친선경기에서 2승1패를 기록했다.

한국은 전반42분 페널티킥을 얻어 崔景植의 득점으로 1—0의 리드를 잡았으나 후반25분께 뒤셀도르프의 벤젤에게 동점골을 허용, 1분후 趙廣來가 결승골을 터뜨려 승리했다.

▲최종3차전

대한 2(1—0, 1—1)1 뒤셀도르프

亞洲 사이클 한국, 종합2位

【방콕11日=聯】 한국은 11일 폐막된 제10회 아시아 사이클선수권대회 마지막날 1백85km 개인및 단체도로경기에서 徐昌奎(육군)가 5시간8분15초54로 은메달 한개를 추가, 金3·銀4로 종합 2위를 차지했다. 日本은 金5·銀3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은 徐昌奎외에 金鐵石 徐判洙및 李愚賢등 4명이 출전, 日本·이란·中共·홍콩및 인도네시아등과 치열한 선두다툼을 벌였으나 徐判洙가 골인을 불과 2백m 남기고 자전거체인이 벗겨져 탈락, 단체우승을 놓치고 말았다.

◇1백85km도로경기개인및 단체기록

▲개인 ①사또·히로시(日) 5시간8분14초34 ②徐昌奎(한국) 5시간8분15초54 [illegible]

뒤셀도르프對戰계기로 본 問題點

"한국팀, 持久力 길러라"

攻守전환 늦고 守備半徑 좁아

北韓·中共참가할 킹스컵對備 정신무장 더 다져야

한국은 뒤셀도르프와의 대결에서 2승1패로 우위를 기록했으나 金正男 金鍾坤 코치 스태프는 뒤셀도르프와의 전차례 친선경기를통해 강약점을 재진단, 앞으로의 강화훈련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킹스컵대회(5월1~20일·泰國방콕)를앞두고 재편된 한국대표축구팀은 西獨프로축구 뒤셀도르프와의 3 [illegible] 력이 한국보다 한단계 위였다고 진단하고 오는 11월 印度 아시안 게임때까지 우리의 취약점을 보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다짐했다.

金正男코치는 이번 뒤셀도르프의 訪韓 경기 성과에 대해 『우리의 전력향상에 큰도움이 되었다. 승패를 떠나서 배운다는 자세로 게임에 임했으며, 장신팀과 맞서 경험을 쌓은것이 큰 수확이었다』고 분석했다.

한국—뒤셀도르프 3차례 대결에서 나타난 한국의 취약점은 ①체력과 지구력이 후반전에서 급격히 떨어진다 ②攻守전환템포가 느리다 ③공격력에 비해 수비력이 모자라며, 수비선수들의 행동반경이 좁다 ④아직도 패스워크가 정교하지 못하며 결정적인 슛찬스에서 득점하는 힘이 모자란다 ⑤확고부동한 팀리더가 없다는것등이었다.

이같은 결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뒤셀도르프를 제압한것은 한국선수들의 투지와 정신자세가 좋았기때문이며 GK 朴英洙 FW 姜信寓를 비롯한 신진선수들이 기대이상의 활약을 보인 결과였다. 崔淳鎬 趙廣來도 잘뛰었다.

국내 축구관계자들은 대표팀의 취약점을 보완, 오는11월 아시안 게임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출전하기위해서는 강압을 통한 합숙훈련방식을 지양하고 피로한 대표선수들에게 휴식시간을 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선수들은 금년초 印度 네루컵국제대회와 이라크친선경기를 마치고 귀국한후 휴식할 틈도없이 대통령배전국선수권대회에 소속팀으로 출전 했으며 오는14일 저녁 泰陵선수촌에 입촌, 킹스컵대회 대비훈련을 받고 28일께 출국한다. 킹스컵대회서 돌아오면 6월5일개막되는 대통령컵 국제축구대회에 출전해야한다. 이번 킹스컵대회에는 북한소련 중공등공산권이 출전할것으로 알려져 한국대표팀은 정신무장을 더욱튼튼히하여 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安奉煥기자】

外米진상小委 오늘續開

對政府 질의·답변회의록 배포

국회는 12일 그동안 非공개로 진행됐던 外米도입 眞相규명 9人小委의 對정부 질의 답변 내용의 회의록을 小委위원들에게 일제히 배포했다.

이에따라 非공개회의의 자료의 배포 여부를 놓고 교착상태에 놓였던 外米도입眞相규명小委는 13일 제10차 회의를 續開, 그동안의 회의활동의 기록을 토대로 최종보고서 작성문제를 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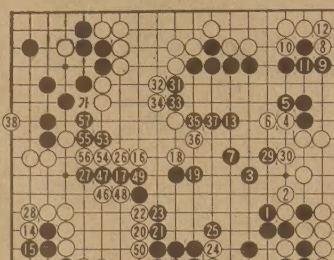
이날 의원들에게 배포된 자료에 의하면 金埈成부총리는 지난9차회의에서 『지금껏 경제기획원은 산하기관들의 購買물자 需給계획이나 구매방법에 관여를 안해왔으나 이제부터는 산하기관과는 별도로 자체 需給계획을 마련, 이번 사건과같은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金부총리는 추가導入米37萬톤의 再수출문제와 관련, 『세계적인 作況이 豊作인만큼 再수출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동시에 再수출을 할 경우 FAO관계로 인해 美國측의 사전양해를 받아야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第13期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6局 第7譜 101~157 (각5시간 덤5집반)

白(7段) 徐奉洙〈3勝1敗〉
黑(6段) 張秀英〈3勝1敗〉



앞질러 결과부터 밝히면, 이바둑은 黑이 1집반 근소한 차로 분패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보아가는 것도 일흥이 있을것 같다.

黑1에서 3은 선악가부를 따지기보다 張6단이 중앙을 확보하려는 일관된 작전. 그리고 이것으로 근소하나마 이길 「자신」이 있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黑7로 여전히 중앙을 지키는 동시에 허약해진 우상귀에 성원을 보낸수가 침착하다는 평이다. 하지만 白도 108, 110, 112가 비록 후수지만 실리가 좋아서 독실한 가지. 또 좌중탕의 白16은 다음 白「가」로 끄부려만는수가 선수인 때문에 큰돗이 있으며 이관계로해서 黑 17도 적지않은 곳이다.

드러나는 勝負線

이무렵 때는 하오6시. 돌들이 맞붙어 벌이는 싸움보다 오히려 어렵기만한 끝내기는 쌍방이 신중을 다하는 가운데 서서히 진행되고있다.

白18이 「요얀」인가 하면 白20은 선수 활용. 白28로 잇기전에 26으로 민수는 하나의 수순, 서로 관련성을 가진 수법이다.

黑31로 젖혔을때 張6단은 나머지 시간이 30분. 白은 1시간20분 가량 여유가 있었다.

黑31에 젖힌이상 이하 37까지는 천상이렇게 될곳인데 피차 20분씩 소비했다. 그러는가운데 영토의 경계선이 다듬어지고 승패의 선도 차츰 드러나기 시작한다.

白38과 黑39는 맞보기. 이하 白50으로 집이생겨 白勝인듯 하지만 그러나 이모양에 결함이 있어 뜻밖의 변화가 일어난다. 【一九】

女子높이뛰기 韓國新

金希宣1m78…1cm

韓體大우승·全南大2위·釜山大3위

◇金希宣선수

제36회 전국남녀대학 육상경기대회 겸 82년도 세계대학생 경기대회 파견 최종선발전이 11일 서울운동장서 폐막, 이번대회서 모두 5개의 한국신기록이 수립되었다. 최종일 여자높이뛰기서 金希宣(이화여대)은 1m78을 뛰어넘어 자신이 지난해 수립했던 한국기록을 1cm 경신, 신기록을 수립했다.

한편 이번대회서 韓國體大는 1백58점을 얻어 우승, 2連覇했으며 全南大가 91점으로 2위, 釜山大가 82점으로 3위를 각각 차지했다.

나브라틸로바 優勝

패밀리서클 테니스

【힐튼헤드아일랜드(美사우스캐롤라이나州)11日AP=聯】 마르티나·나브라틸로바는 11일 힐튼헤드아일랜드에서 폐막된 제10회 패밀리·서클·매거진테니스선수권대회 결승에서 안드레아·예거를 2—0(6—4, 6—2)으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나브라틸로바는 이로써 금년들어 6번째 우승을 기록했다.

나의 이력서

金蘇東 ㉖ (題字 金蘇東)

우에노에는 벚꽃이 한창이다. 활짝 피었다가 깨끗하게 져버리는 벚꽃이 야마도(大和)의 혼이라고 늘 [illegible] 었다. 깨끗하게 피고 깨끗하게 진다는것은 깨끗이 살다가 깨끗이 죽는다는 말이다. 우에노공원 벤치에 앉아서 나는 일본사람들의 그런 일면을 생각해본다. 일본영화에서 사무라이(武士)들이 불의(不義)를 보고 싸우다가 죽는 것을 봤고, 책임을 느끼고 배를 갈라 자살하는 것도 봤다. [illegible] 을 버리고 예술에의 길을 [illegible] 해온내 자신의 행동을 [illegible] 사무라이적인 책임을 느껴본다.

1935년봄 이범일 [illegible] 도 다마가와에 있는 일활(日活)촬영소에 [illegible] 조선인으로 [illegible] 한국인으로 日活의 조감독이 된다는것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운 일이다.

나는 이범일을 찾아 일활촬영소에 갔다. 그는 촬영소를 안내하고, 놀라는 소개하고, [illegible] 도 보여줬다. 하오늦게 우리들은 신주꾸(新宿)로 돌아왔다. 『이사람아 망설일게 뭐있어. 하고싶은짓을 안하고 뭘할꺼야』 이범일 간곡이 말했다.

운전면허 취득

李箱의 말이 또 생각난다. 『좋아하는 예술을 헌신짝 같이 버려둘 수야없지』 그는 토목기사다. 그런데도 그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예술인이다. 총독부를 그만두고 종로2가 동아부인상회옆에 「제비」라는 술집을 할때 경영했으나 이해어름에는 종로1가에 JB(제비)라는 다방을 냈다. 자신이 설계한 다지와 의자등은 모두 크고 작은 사각형 목재가구들이다. 그러한 환경속에서도 그는 새로운시와 새로운 글을 썼다. 그는 하숙으로 돌아가고 나는 무 [illegible]

佛映畵보고 고학생 면학모습에 감명

◇친구들과차를 들고 니이가따에 갔을 때. 오른쪽에서 두번째가필자.

사시노관(武藏野館)으로 들어갔다. 『벤·다이크의 「트레이더·혼」(Trader Horn)을 보고 [illegible]

1935년봄 이느날 경시청운전면허를 취득했다. 취업면허도 아울러 땄다. 모터클럽에서 자동차운전을 연습하던 회원중에서 제일먼저 면허증을 따낸 셈이다. 그때만해도 운전면허를 얻는다는 것은 쉬운일은 결코 아니었다. 일본인 학생들도 모두 부러워했다.

당시 개봉된 프랑스영화 르네·클레르의 「巴里祭」의 주인공은 몽마르트에 사는 택시운전사다. 클레르의 원숙한 자본세계와 서민계급의 아름다운 정서를 그린 영화다. [illegible]

"日人도 힘들다"는 경시청 면허따 취업면허 함께얻어 나중 큰 도움

[illegible]

예기의 샘

옳은 말씀

어느날 빅토리아여왕앞에 재무장관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폐하, 맥주의 세금을 올리려하오니 제발 재가(裁可)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여왕은 매우 노하여 말했다.
『재무장관은 이 여왕의 신하들에게서 맥주를 빼앗겠단 말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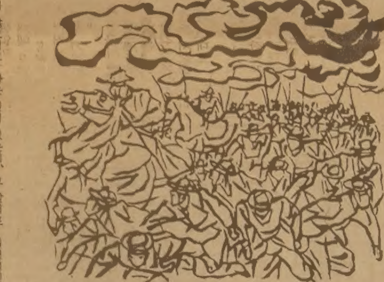
사이즈

『저어, 여자친구에게 프레젠트할 장갑을 사려는데요…』
『사이즈를 아시나까?』
아름다운 여점원이 상냥하게 웃었다.
『그전…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청년은 난처한듯이 말했다.
여점원은 제손을 청년의 손에 포개면서
『이만 하신가요?』
청년은 얼굴이 빨개져 허둥대면서
『아, 네. 이보다 조금 작을것 같은데요』
여점원은 장갑을 포장하면서 청년에게 물었다.
『이밖에 또 필요한 것은 없으신지요?』
청년은 머뭇거리면서 대답했다.
『아, 네. 브라지어와 팬티도 사야겠어요!』

流星의 賦 <356>

李炳注 作 李友範 畵

孤獨한 英雄 ⑪



[illegible] 패전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삼도 순찰사의 군이 용인에서 궤멸 했다. 처음 전라도 순찰사 이광은 전라도의 병을 이끌고 한성을구원하려고 남정했는데 임금이 서(西)로 행차했다는 소식과 한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고 병을 수습하여 전주로 돌아갔다. 도내의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돌아온 이광을 비난했다. 더러는 분격하여 불평하는 사람이 많았다. 광 자신도 심중이 편하질 않았다. 다시 병을 정비하여 충청도 순찰사 윤국형과 합세하여 전진했다. 경상도 순찰사 김수도 군관 수십명을 이끌고 이에 합류했다. 이로써 병은 전부 5만여로 되었다.

이들 삼도의 군이 용인에 도착했을 무렵 북두문(北斗門) 산상에 적의 진지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광은 이것을 대단치 않은 것으로 알고 용사 백광언과 이지시(李之詩)로 하여금 적의 세를 탐색해 보도록 시켰다. 광언이 선봉군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가 적진 수보전에 말을 내려 활을 쏘았지만 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해가 질 무렵 광언등의 긴장이 풀렸다고 보자 적은 백인(白刃)을 번득이며 함성을 울려 돌진해 왔다. 제군(諸軍)은 이 소리를 듣고 벌벌 떨었다.

삼도의 삼 순찰사는 모두 문인(文人)이어서 병에 익숙하지 못해 비록 군병(軍兵)은 많았다고 하지만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명령계통이 서지도 않았고, 지혜 지략을 이용할 줄도 몰랐다. 옛 사람의 말에 「군행(軍行)이 춘유(春遊)같을진대 어찌 패하지 않으리오」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말대로 되어버린 것이다.

이광과 같은 우리 군사가 겁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고 수인이 칼을 휘둘러 용기를 과시하며 돌진해왔다. 삼도의 군은 이것을 보고 궤멸 되었는데 그 소리가 산이 무너지는 소리와 같았다. 유기된 무수의 군사자재와 기계가 길을 막아 사람이 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되었다 [illegible]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84>

朴婉緒 作 金光培 畵

明暗 ⑱

[illegible] 는 아직 돌아와있지 않았다. 혼자서 그의 방을 찾아와 보긴 처음이었지만 주인여자는 왜 친하다고 생각해서인지 스스럼 없이 대문을 열어줬다.

『어머 신랑은 없다 얼어 뿌리고 색시 혼자래?』

주인여자는 처음부터 인재를 신랑, 수지를 색시라고 불렀고 그게 듣기 싫지않았다.

『꽃뜰 돌이 싸웠구먼. 샘나게 금슬도 좋더니만』

수지의 새침한 기색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수다가 덧저지던 못생긴 여자였다. 왜 그것을 이제야 알았을까? 수지는 그 못생긴 여자때문에 하숙집까지 지달려온 오로지 보고싶은 마음이 급속히 위축되는걸 느꼈다.

『어여 들어와. 잠 왔어. 싸움같 그저 그날로 지딱 지딱 풀어버려. 하고 있어버릇하면 못쓰는 게야』

[illegible] 세개 나뒹그라져있었고 방구석엔 양말짝과 내복이 쑤셔 박혀 있었고 방 한가운데 재떨이엔 꽁초가 가래침과 함께 엉켜붙어 있었고 책상위엔 먼지와 주간지와 교과서가 쌓여있었고 벽엔 싸구려 넥타이와 와이셔츠가 걸려있었고 아랫목엔 퇴죄죄한 이부자리가 깔려있었다. 때로는 한그릇 저녁상을 둘이 나누어 먹고 통금직전까지 머물다 가잖도 있었건만 사랑놀음에 홀려 한번도 본적이 없는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데 일분도 안걸렸다. 수지는 그 신산스러운 궁상에 진저리를 쳤다. 여태껏 그걸 못봤다니 믿을수없는 일이었다. 못본 게 아니라 부끄러워서 안보고, 지고의 열락에 이르는 비밀이 거기 숨어있을 것 같아 아껴두기 위해서도 안본 이부자리가 그렇게 더러운 거였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수지는 그 곳을 온다간다 말 없이 뛰쳐 났다.

[illegible]

새로개발된

광석약수 미네랄·워터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장 손쉽게 가따야마 광석으로 아주 값진 미네랄·워터를 언제나 필요한만큼 손수 만들수 있읍니다.
온 가족이 일생을 다 즐길수있는 이 광석을 가정의 보배로 생각하지 않으시렵니까.

주문이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전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조지섭 : 530·0522
아세아한약방
(DOWNTOWN 판매처)

강문원 : 964·8590
(NORTH YORK 판매처)

●남영애 : 282·3553(오전)
284·9325(오후)
(SCARBOROUGH 판매처)

●김성지 (SIMON KIM)
KIMSEE DISTRIBVTORS COMPANY (총판매처)
전화 : 299·1888
281·8218

●INTERMESH COMPANY
(제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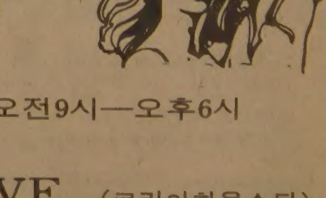
신장개업

KIM'S BEAUTY SALON

금번 킴스미용실을 인수하여 보다나은 써비스로 고객 여러분을 모시겠사오니 꼭 한번 찾아주세요.

오선희 드림

신장개업 특별봉사
남자파마 카트도 합니다.
신부화장 전문



일요일만 쉽니다. (화요일영업계속)

월—금 : 오전10시—오후8시 토 : 오전9시—오후6시

668 MAINNING AVE. (코리아하우스뒤)

532—7094(B) 438—0628 (R)

"天然동굴 위독하다"

丹陽 고수·蔚珍 성류굴등 「觀光몸살」

한달10만명…億劫신비 파괴

훼손·汚染으로 原型잃어가

【丹陽=文昌李기자】천연동굴이 마구 훼손되고 더럽혀지고있다. 우리나라에는 크고작은 동굴이 무려 1천여개나 되고 이중 생물학적 보존가치와 관광자원으로서 보호할만한 동굴이 3백50여개나 된다. 11개동굴의 경우 수억년의 신비와 자연예술의 극치로불릴만큼 아름답기 때문에 천연기념물로 지정까지 돼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당국과 업자들이 「개발」이란 이름으로 수많은 관광객을 동굴안으로 끌어들여 훼손과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면서도 정작 원형보존과 관리에는 아무대책도 세우지않아 동굴들은 날로 부서져가고 있으며 학문적으로도 귀중한 가치를 갖는 각종 동굴생물들이 멸종돼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천연동굴들이 「돌이킬수없는 상처」를 입고있는데 대해 동굴애호가들은 『종유석·석순·석주·석화등 동굴안의 갖가지 생성물들은 수억년에 걸쳐 결정된 자연예술로 한번 훼손되면 영구히 재생될수 없다』고 지적, 대책을 건의한다.

鍾乳石등 한번 상처나면 "끝"

당국의 무관심과 업자들의 욕심, 그리고 관광객들의 횡포에 가장 심하게 유린되고 있는 대표적인 예는 충북丹陽의 古藪동굴과 경북蔚珍의 聖留窟, 강원 寧越의 高氏洞窟. 이 관광동굴에는 굴내부에 계단·교량등 철제 구조물을 가설해 놓았는데 이 공사를 할때 원형이 크게 훼손된데다 몰지각한 일부 관광객들이 석순을 따가거나 오물을 마구 버려 재생불능의 상태로 망가져 버렸다.

裕信재단(이사장 朴昌源)이 개발한 丹陽의古藪동굴은 봄·가을 관광철에는 입장객이 월평균 10만명에 이르며 주말이면 하루 5、6천명씩 이 좁은 굴안에 몰려든다.

업자측은 입장객수를 제한하지않아 한꺼번에 수백명이 좁은 굴안에 들이닥쳐 체온과 수백개의 백열등이 뿜어내는 열로 항상 섭씨 15도 정도를 유지해야할 굴내온도가 24도까지 오르기도 한다。굴안에는 사진사들이 길목마다 지켜앉아 영업행위를 하고 있을뿐 안내인이나 감시원 한사람없어 몰지각한일부관광객들이 무슨일을 하건 알바 아니다。심지어 어떤곳은 관광객들의 방뇨로 심한 지린내가 역겨웠다。손이닿을만한 곳에 달려있던 돌고드름과 석순은 모조리 잘려나갔고 벽면에는 검푸른 곰팡이가 슬었으며 기묘한 형상의 종유석들은 반들반들 검은 손때에 절어있었다。

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들어찬 철제 구조물들과 전선、수백개의 백열등은 동굴의 신비를 깨뜨리는 괴물처럼보였으며 껌과 과자포장지 담배꽁초로 오염된곳도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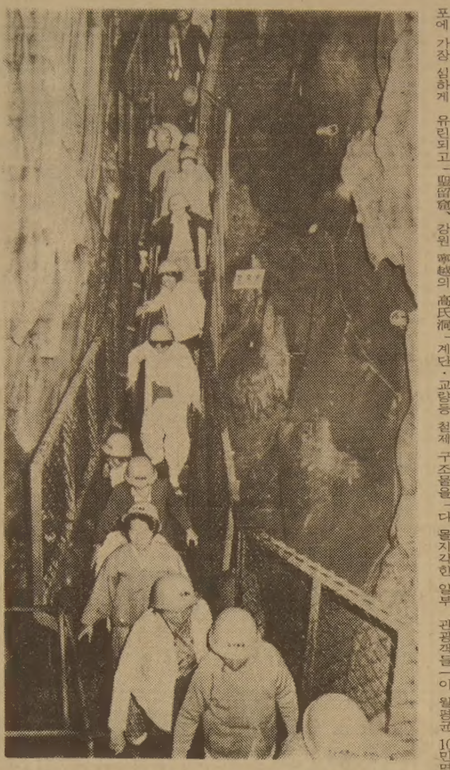
동굴앞 기념품 가게에서공공연히 밀매되는 종유석은어디서 나온것들일까。「꽃석」이라해서 한개에 9천원을호가하는 석순과 5천원에서1만5천원까지 거래되는 종유석들이 기념품 가게마다 숨겨져 있었다。

古藪동굴 인근의 盧洞동굴·泉洞동굴·溫達동굴도 비슷한 모습들。

관광객의 발길이 뜸해진寧越 高氏동굴도 처절하게 부서진 상처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蔚珍聖留窟은 가장 오랫동안 시달려온 노장답게 그 상처도 깊고 컸다。동굴관계자들이『이제 聖留窟은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도 학문상의 가치도 잃어버린 죽어버린동굴』이라고 표현할정도이다。

유명동굴들만 그런것이 아니다。강원도 산골짜기 바위산곳곳에 있는 수많은 석회동굴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훼손되어 있다는것이다。旌善郡에있는 飛龍동굴과 諸岩동굴의 석순들은 지방사람들과 일부관광객들에의해 잘려 지방특산품으로 팔려나가기도 했으며 三陟郡에 있는 幻仙窟 觀音窟 草堂窟도 순결을 잃어가고있다는것이다。



◇重病앓는 神秘 재생할수 없는 동굴의 참상。수억년에 걸쳐 생성된 신비는 해머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었다。【古藪동굴에서 韓隆기자 찍음】

"教職者、의식改革 앞장"

市道교육감 회의

문교부는 12일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를소집、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국민의식 개혁운동을 학교교육에서 적극적으로 펴나가고 교육계의 부조리를 없애라고지시했다。

전국 13개 시도 교육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문교부는 국민의식 개혁운동을전교직자들이 선도적으로 펴나가고 각급학교에서는 교과운영 생활지도등에서 의식개혁운동이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것을 당부했다。

문교부는 또 교육계의 고질적인 부조리로 지적、교원인사 시설공사 변칙과외교사와 학부모간의 금품수수등을 올해에는 완전히일소하고 특히 교원인사를 둘러싼 청탁이나 부정은 교육인전체의명예를걸고 근절시키라고 강조했다。

李장관은『일부교장들은 일류대학에 학생들을 많이합격시키는 것만이 교장의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것처럼 잘못판단하고있다』고 말하고『학교장이 솔선해서 과외를 철저히 단속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課外 뿌리뽑겠다" 李문교 밝혀

한편 李奎浩문교부장관은 이날회의에서『아직도 일부 교장들이 과외수업이 왜나쁜것인가를 이해하지 못하고있다』고 지적、『어떠한 형태의 과외도 용납할수없다』고 말했다。

◇全斗煥 대통령내외가 10일 陜川郡栗谷面內川里 生家에들러 사랑채에서 숙부인 全相希옹 (왼쪽) 과 伯母 (오른쪽) 에게 큰절을한뒤 담소하고있다。伯母옆에 갓쓴이는 종형 孟煥씨。

"故鄕지키는 사람은 社會전체가 돌봐야"

全대통령 陜川生家서 一泊

【陜川】全斗煥대통령은 10일 하오 釜山市政과 慶南道政보고를 받은뒤 歸京길에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慶南陜川郡栗谷面內川里內洞 537의 生家(종형 全孟煥씨거주)를 찾아 하룻밤을 묵은뒤 일요일인 11일상오 성묘를하고 청와대로돌아왔다。

全대통령은 10일 하오 헬리콥터편으로 內洞마을뒷산에 도착, 20여명의 친척들과 內洞과 外洞의 3백여 주민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全대통령내외는 10여분간 산길을 걸어 生家에 도착、사랑채로 들어가 숙부 相希옹(75)과 伯母에게 큰절로 인사했다。

全대통령내외는 이어 生家마루에서 종형 孟煥씨(69)와 종손 李明씨(52)를 비롯한 가까운 친척들과 그동안의 안부를 묻는등 약 30분간 환담을 나눴다。

全대통령은 이자리 에서 8、9세되던 어린나이때 일본경찰을 동네앞 黃江에 떼밀어 넣고 그날밤 滿洲로 피신한 아버지를 따라 몰래 동네를 빠져나갔던 당시를 회상하면서 친척들과 얘기의 꽃을피웠다。

全대통령내외는 이어 고향마을을 둘러보면서 마을사람들과 인사를 나눈뒤 生家바로옆에 임시로 마련한 장소에서 친척과 주민대표、새마을지도자및 관계기관장등 40여명과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고향을 알뜰하게 지켜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하고『앞으로는 부모를 모시고 고향을 지키는 사람이 어려운일을 당했을때는 우리사회전체가 그사람을 돌봐주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또『사람은 자기직분에 최선을 다하면 응분의 댓가를 받을수있다』고 말하면서 새마을 지도자들에게『이마을을 잘사는 마을로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산채등 산간농촌에서 볼수있는 반찬과 보리를 섞은 밥으로 저녁식사를 한 全대통령은『고향에서 이렇게 하룻밤을 묵고 간것이 20여년만의 일』이라면서 약 1시간10분간 어린시절의 얘기등을 화제로 환담을 나눴다。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진주, 오팔
536-1692

고교생이 合宿하며 窃盜

셋방얻어 대낮에 가정집만 8차례 침입

7명구속·1명手配

서울淸凉里경찰서는 12일 李모군(18·Y공고야간부3년)등 고교생7명을 특수강도혐의로、鄭富子씨(41·여·서울龍山區漢江路3街63의8)등 2명을 장물취득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서울Y、H공고야간부3학년생인 이들은 지난2월27일 하오5시께 서울冠岳區方背2洞966의13 高정식씨(42) 집에침입、과도로 高씨를 위협、이불을 뒤집어 씌운다음 안방을뒤져 일제 캐논카메라2대등 1백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털것을 비롯、지난2일까지 8차례에걸쳐 3천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털어왔다는것.

이들은 3~4명씩 조를짜 대낮에 가정집만을 골라 금품을 털어왔는데 이들은 첫 범행에서 마련한 돈을 지난3월 서울九老區加里峰洞107의3 金모씨(62) 집에 보증금 10만원, 월세3만원짜리 방을얻어 아지트로 삼아 범행을 계속해왔다는것.

이들은 금품을팔아 고고클럽에 출입하는등 주로 유흥비에 탕진했는데 금품은 Y고교앞 구멍가게주인 鄭씨와 친구鄭모군(18·무직·서울西大門區弘濟2洞우신아파트)등이맡아 처분해 왔다는것.

경찰은 이들의 아지트에서 미처 처분하지 못한 반지등 귀금속과 카메라·영사기와 현금 18만여원등 2천여만원어치의 금품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百想추념어록 서예전의 테이프커팅후 내빈들이 전시작품을 둘러보고있다。

친지·言論人 3百여명參席

「百想追念語錄 書藝展」 개막

한국일보사창간발행인 百想 張基榮社主의 5주기를맞아 마련된「百想追念語錄書藝展」이 12일하오3시 百想기념관에서 개막되었다。

이날 서예전의 개회식에는 평소 고인과 가까왔던 친지 3백여명이참가했으며丁一權前국회의장、李崇寧박사(학술원회원)、金澤壽IOC위원、安濬慶、閔丙燾씨와 張康在한국일보사장이 테이프를 끊었다。

이 자리에는 또 李鍾賛國正黨원내총무、睦相鎬대한체육회장、李元洪한국방송공사사장、洪鍾仁씨、吳在璟씨、鄭一永씨、張基鳳씨、金鍾圭씨、趙敬姬씨、林芳鉉의원、南載熙의원、李寧熙의원、許景九의원등각계인사가 참석、金忠顯、趙守鎬、崔正均、金相筆、鄭載興金鎭祚씨등 서예가들이 써놓은 고인의 語錄들을 둘러 보았다。

이에앞서 11일상오11시경기도廣州郡東部邑倉隅里 丹山기슭의 고인묘소에서 5주기추도식이 열렸다。이자리에는 趙重勳韓進그룹회장、金聖鎭연합통신사장등 3백여 조객들이 참석、한국언론계에 끼친 고인의 업적을 회상했다。

가발工場에 불 종업원 4명重火傷

12일하오3시20분께 서울恩平區水色洞205의1348 이화가발공장 (주인 李相文·33) 에서 불이나 종업원 鄭東任군(18)과 李在明군(19)등 4명이 중화상을입었다。

徐永春씨 구속

서울江東경찰서는 12일 코미디언 徐永春씨(50·江東區蠶室동 장미아파트12동 1203호)를 교통사고특례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徐씨는 지난10일밤 밤무대 출연을끝내고 승용차를 운전、귀가하던길에 행인 金鍾泰씨(29·蠶室주공아파트52동105호)를 치어 숨지게 했었다。

懸賞金붙은 屍身

地下鐵붕괴…電話등은 복구

1具當 3백만원 三湖이사등 5명令狀

서울西大門區무악재지하철공사장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은 12일 주식회사 三湖 토목이사 金寅起씨(44)、현장공사과장 李長福씨(34)、三湖실업화약기사 張勝元씨(38) 주식회사 三湖현장소장 朴仁華씨(53) 서울지하철공사현장감독 權萬洙씨(37)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주식회사 三湖사장 趙容時씨(32)、토목지장 李炯觀씨(31) 서울지하철공사 공사과장 安錫俊씨(39)와 감독조원 延在桂씨(33)등 4명을 불구속입건하고 萬承실업대표 洪吉杓씨(45)와 현장책임자 洪在杓씨(52)등 2명을 수배했다。

한편 실종됐던 3구의시체가 현장에서 발굴됐는데 지난10일에는 강재공 羅基信씨(26·충남扶餘郡窺岩面新城里386의22)와 크레인스페어기사 劉時杓씨(26·서울九老區加里峰洞74의3)등 2구가、12일낮 12시30분께는 강재공 金漢奎씨(26·서울東大門區龍頭1洞75의2)의시체가발굴돼 사망자는 7명으로늘어났다。

대책본부는사고5일째인12일현재실종자의시체를 모두찾아내지못해 본격적인 복구작업을 펴지못하고있는데 전기는 11일하오4시부터、전화는 12일상오부터 완전복구됐으나 상수도복구에는 3일가량이 더소요될것으로 보고있다。

사고대책 본부는 시체발굴작업이 늦어지자 12일 시체1구 발굴에 3백만원、다이너마이트 발파공(孔) 1개발견에 5만원씩의 현상금을내걸고 작업을 독려하고 있으며 11일에는 세퍼드2마리를 시체수색작업에 동원하기도했다。한편 경찰은 11일하오2시부터 서울지검 孫濟卜검사지휘로 공사전문가등을 대동、현장조사를 실시했다。【관련기사10면】

美軍방송 한때中斷

주한미군방송인 AFKN·TV가 11일하오7시부터 30분간 서울등 일부지역 방송을 중단했었다。

AFKN당국은 남산송신소의 기재고장으로 방송이 한때 끊겼던것이라고밝혔다。

어린男妹실종百일

엄마와 外家가다 停留場서 잃어

【仁川】어린 두 남매가 집을 나간지 1백일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고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東部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東區朱安4洞302 宋榮俊씨(57)의 아들 龍軍(14·인천光星中2년)과 美賢양(9·인천石岩국교2년)등 남매가 지난해 12월27일 하오2시께 어머니 金春漢여인(48)과 함께 충남論山에 살고있는 외삼촌의 약혼식에 가기위해 집에서 4백m 떨어진 石岩버스정류장까지 나갔다가 헤어진후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는것。

이들 남매가 돌아오지않자 아버지 宋씨는 철공소일을그만두고 어머니 金여인과함께 호남선、장항선등의 열차를 오가며 이들을 찾고있다。

또 宋군이 다니던光星중학교에서도 宋군을 2학년3반에 편성만 해놓고 그를찾는 5만여장의 전단을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고있다。【鄭】

"教會의도와 달리 事件확대 교육원·司祭입장 왜곡됐다"

天主教 정의구현司祭團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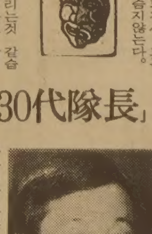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12일 釜山미문화원방화사건과 관련 原州교구 崔基植신부가 구속된데대해 성명을 발표、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공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밝혀줄것을 요구했다。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이날 서울明洞성당 구주교관에서 金勝勳신부(서울東大門성당 주임신부)가 낭독한「정부당국에 묻는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교회는 文富軾과 金恩淑·그리고 金鉉奬등을 본인들의 뜻에 따라 자수를 주선했으며 이 과정에서 교회가 처한 입장을 사전에 관계당국에 충분히 전달했고 당국도 이해했었다』고 밝히고『그러나 이들의 자수와 신병인계과정에서 교회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고의적으로 사건자체가 확대돼 교회를 음해하고있다』고 주장했다。

財閥과 소년

12代 보이스카우트總裁 金錫元씨

60년歷史의 「30代隊長」…"申告합니다"



제12대 보이스카우트 총재가 된 金錫元씨 (37·사진)。이 땅에 보이스카우트 운동이 발을붙인지 60년、환갑의 나이에 가장 젊은 대장을맞은 셈이다。

그젊은대장金錫元씨는여러해전부터 재벌그룹 雙龍의 총수、그러나아직 모르는 사람이 적지않다。선친인 省谷(金成坤)의 이미지가 짙게 남아있는 탓일게다。

젊은 대장으로서 그의 등장은 이같은 이미지의 벽을 깨는 좋은계기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그래선지 총재 취임에앞선 기자회견서 그는「신고」라는 말을 서슴지않는다。

『사회에 신고를 드리는것 같습니다。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잘해내도록 힘쓰겠읍니다…』

입고나온 짙은갈색의 보이스카우트단복이 썩 잘 어울린다。한때보이스카우트단복은 어린이들의 동경의 표상 이었다。그도 중·고등학교의 소년시절 보이스카우트대원이었다。

그가 남부럽지않은「재벌2세」이면서 남다른「모험」을 자청했던것은 보이스카우트 활동에 기인 한다 할수있다。해병대에 복무할때는 월남전을 겪었고 스킨 스쿠버 다이빙으로 체력을 단련하는것등이 모두 같은 맥을 갖는다。

실제로 그는 돈이 정말많은 사람이다。양회·무역·정유·해운등 8개 주력기업과 1만2천명 종업원을 거느린 그룹의 젊은「대장」이기도 하다。

『한때 보이스카우트가 부유층 자제로 구성된 단체가 아니냐는 오해를 받아왔읍니다。그러나 40만대원중반수이상이 농어촌출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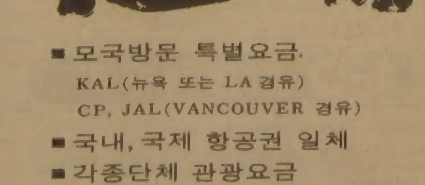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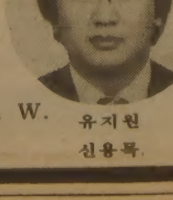
말하면서 시종 양손을 무릎위에 가지런히 놓은 자세가 돈있는 사람답지않게 겸손하다。그렇게 보이려고 꾸미는것같아보이지는 않는다。

『청소년 사회교육기관으로서 나라와 세계를 위한 일꾼을 양성하는데 이제부터라도 힘껏 노력하겠읍니다』

금년 8월 아시아·태평양지역 잼버리대회가 한국서 열린다。한국보이스카트의 성숙한 능력을 과시할 좋은 기회이다。그의 소년시절의 꿈은 보이스카우트대장이 되는것이었다。지금 그꿈은 실현되었다。나머지는「대장으로서의 꿈」이 이제 이루어지는 일뿐이다。【李鍾九기자】

MLS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HWANG
금주의 새리스팅
○고층 아파트먼트 빌딩들
①12층, 89Unit, 100대의 주차장을 가진 10년된 아파트 건물
가격 : $2,400,000
②15층, 104Unit, 129대 파킹시설, 3에이커, 실내수영장, 11년된 아파트 건물, 가격 : $3,450,000
③12층, 241Unit, 오타와에 소재
가격 : $5,780,000
이외에 여러종류의 사업체
(버라이어티, 식당, 도넛샵, 기프트샵등)
※메트로 토론토 전역을 카바하는 가옥매매에 대해 문의바랍니다.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5 (B), 286-1548(R) M3B 1Z3

분실공고
미스코리아 입장권중
일련 №1001~№1004(4매)는 분실되어. 이는 무효임을 공고합니다. 혹 갖고 계신 표중 이 번호를 갖고 계신 분은 즉시 한국일보로 연락 바랍니다.
한국일보 광고부장

제일여행사

■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뉴욕 또는 LA 경유)
CP, JAL(VANCOUVER 경유)
■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 각종단체 관광요금
■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B)535-2377
(R)366-0864
649A BLOOR ST. W.

유지원
신용목.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즈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고향의 맛!
한식, 중국식요리 각종음식준비
— 각종국수 전문 —
서울하우스
615 BLOOR ST. W. ☎: 532-0602

LISBON AUTO COLLISION INC.
●토잉써비스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이영두, 이건학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주식회사
신의상사
116 Tycos Dr.
☎ : 789-7544

식품점

한밭식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서울식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동양식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제일식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삼복식품
주 7일 영업,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고려식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신용조합

한인신용조합
641A BLOOR ST. W.(2nd Fl) TOR. ONT. M6G 1L1
전화 : 533-9387

악기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상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수웅

약국

돈밀약국
전화 : 429-4117 이요한

SUPER × DRUGS
전화 : 368-2746 조남오

WILLER'S PHARMACY
전화 : 656-3351, 656-3247 양문정

양장점

샘터의 상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혜숙

에어콘·히팅·냉장고

PALMER'S
시설 · 판매 · 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전화 : 746-3840~1(B) 493-9945(R) 김봉균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진환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한국일보 광고문의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황영

여행사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동주

신세계여행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창범

천우여행사
720 SPADINA AVE.
전화 : 928-3335 김현두

제일여행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지원, 신용목

북미여행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태호

운전학교

오행근운전학교
전화 : 423-3035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및 운송

나라운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세환

인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주소록 출판, 도서출판, 기업광고 포스터및 플라이어, 명함, 봉투, 인보이스, 주문서등 인쇄및 디자인.
고급 4색인쇄, 고급장정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대표 : 이인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호중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종대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전화 : 746-0675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기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43, (R) 493-8792 송창섭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이락, 김한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O. K. AUTO BODY
수리중 차대여, 모든 보험관계
138 SIXTEENTH ST.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희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창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달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세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용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장의사

장의사 (R.S. 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W. WINDOW SHADE
전화:(B)252-4857 (R)252-6602 유원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439-6277 Mr.박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전화:745-6792(Mr.우)

다년간의 경험으로 성실 성의껏 봉사해 드리겠읍니다.
전화분의도 받읍니다.
전화 : 746-6962 (Mr. Lee) 페인트·월페이퍼

학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희자)
전화 : 960-0074

샛별한글학교 (스카브로)
전화 : 267-2292

미시사가한글학교
전화 : 822-6438

Y어린이학교 (김창열)
전화 : 536-1166

김미영한국민속무용연구소
전화 : 499-5079

Using Language Labolatory, You Can learn English within 3 months(집에서)
전화 : 533-7324, 533-4966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보약제와 신경통약이 다량 수입되었읍니다.
교민들에게 특별 염가 제공코져 합니다.
한약분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전화 : 596-8407, 596-7373 최호권

하르빈한약상사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743-0752 서춘봉

서울한의원
한의사 김장석 (New York, U. S. A.)
전화 : 1-212-762-4694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영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화랑

KIM'S ART GALLERY
각종 유화, 동양화 도매, 각종 Picture Frame
1286 Weston Rd. 전화 : 243-0233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영철

김인규 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전화: 960-5736(B), 844-0178(R)

공인회계사 이명세
사무실:1454 DUNDAS ST. E. SUITE 110
전화: 273-7300 MISSISS.

정필주 회계사무소
전 C.A.Firm Accountant.
4750 Jane St. Suite No.608 전화: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광고문의
☎ : 533-2361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VISA master charge

광고 접수
533~2361

* 한국일보 안내광고 *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렌.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한국 자개농 에 관해 조예가 깊은 분으로서 자개농, 약장등 수리도 하 실 수 있는분 구합니다.
전화 : 486－0397 (Mrs. Kim)

다운타운에 거주하시는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유경험자 우대함).(현찰지불)
전화 : 533－7709 Mr. 박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전화: 534－5068

한국음식(밑반찬)에 조예가 깊으신분 연락바랍니다.
Full Time과 Part Time 가능
전화 : 749－0579

한국음식에 조예있으신분 연락바랍니다.
전화 : 537－0432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매일 현찰 지불
전화 : 922－3061 Mr. 김

조용한 동네안에 위치한 미장원 장소 Rent
원하시는 분이나, 미용사자격증 가지신분 구합니다.
전화 : 851－1731, 851－3866

지렁이 잡이 경험이 많은, Mrs. 윤 이 지렁이 잡으실 분 구합니다. 특별우대함.
전화 : 291－4547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남.녀관계없음)
서부지역 전화 : 742－0800

지렁이 잡으실분, 당일지불(Cash)
친절하고 편안한 서비스로 우대함. 경험자 환영
전화 : 537－6345(톰), 531－0773(김)

81년도 7, 8월경에 아버지와 같이 이민온 서현주씨를 찾읍니다.
전화 : 633－5231, 669－6714 (유 선 옥)

유경험자 캐셔구함(남녀관계없음)

다운타운지역
전화 : 598－2546

Juice Bar Helper (Full Time)구함
전화 : 438－0403 7시이후 연락바람. Mrs.유

구 직

그로서리, 버라이어티 Max Milk 또는 Becker, 매니져가 필요하신분 연락바람.(많은경력있음)
5월초부터 8월말까지 일할 수 있음. 265－0436

매매및 양도

틀림없는 이윤을 보장하는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4,000, 아스킹: $35,000+스탁
전화 : 465－4385

여자 혼자할 수 있는 그로서리 겸한 버라이어티 급매. 시설비만 받고 매매할 예정임.(꼭히 관심있는 분 내방바람)
61 Main St.

아파트 4채가 있는 집수리 끝낸 건물팝니다.(서쪽끝) 아스킹 : $199,900
전화 : 465－2073 오전 10:00 － 밤12:00

BECKER MILK 후렌차이즈 매매
꼭히 관심있으신 분 내방바람
4746 Dundas St. W. (Islington)

건물및 상점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급매
주매상 : $8,000 아스킹 : $229,500
237 PARKLAWN RD.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성업중인 그로서리 및 버라이어티 딸린 건물 급매
전화 : 532－8260

Soft Icecream기계팝니다.
관심있으신분 연락바랍니다.
전화 : 279－8871

스카브로에 있는 세탁소 급매
Asking Price : $6,300
Call Nick, (R)439－7796, (B)751－6850

가게 급매(4 베드룸 건물포함)
주매상 : $3,500～$4,500
가격 : $84,000 + 스탁 (First Mortgage 13.5%,$51,000 Second Mortgage, Bank에서 $20,000 가능)
전화 : 1－383－8232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 $3,000
전화 : 699－4804

성업중인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 렌트: $300(Mon.) 리스: 5년
2988 Lakeshore Blvd. W.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19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399 etc.
937 QUEEN ST. W.
전화 : 364－0984 REMA FURNITURE

MODERN CLOTHING STORE FOR SALE
중앙지역, 적당한 가격에 급매코저 함.
전화 : 465－2073 10:00a.m.－12:00p.m.

"그로서리 스토아 급매" Good Location, Good Lease.
Asking Price : $12,000
전화 : 652－1647 (Mrs. Maria)

Using Language Labolatory, You Can learn English within 3 months(집에서)
전화 : 533－7324, 533－4966

Grocery, Variety, Dry Cleaning
Best Location for Good Money Making,
Very Reseasonable price for Sale, 783－0134 (Bobby)

성업중인 쥬니어 데파트먼트 스토아 급매
Open Hour : 월－토 (9:00a.m－9:00p.m) 꼭히 관심있는분의 연락바람. 전화 : 1－576－7021, 1－576－9899(밤9시이후)

성업중인 미니 수퍼마켓 급매
1주5일 영업 (화요일－토요일)
문의전화 : 259－7422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렌 트

1베드룸, 한국인으로서 미혼직장여성원함
월세$200 Don Mill지역
(언제라도입주가능)전화:449－3071

기관및단체

- 총 영 사 관 : 598－4608
- 한 인 회 : 755－9288
- 노 년 회 : 755－8079
- 실 업 인 협 회 : 752－7771
- Y M C A : 536－1166
- 외 환 은 행 : 364－2890
- K A L : 862－8250
- 코리아타운 번영회 : 532－2727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전화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도 서 판 매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매매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R) 298－8558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황 순 일)
전화 : 481－3443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David Chae (채 준성)
전화:633－7892(R)497－8900(B)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 : 264－2311 조 의 문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미 용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248－2437(R)

ANNIE'S BEAUTY CARE CENTER
6093 Yonge St. (영 × 휜치)
전화 : 223－7884 Mrs. Lee

백 화 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203, 2R1 전화 : 759－9505 (5시이후)

각종서류 번역및 법정통역,
정부기관 통역등 해드림
전화 : 281－1677 이 영 화 (전 대학강사)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482－0166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불 교

대 각 사
11 Dawson Ave. Tor.Ont. 전화 : 463－8998

불 광 사
288 Hownslow Ave. 전화 : 223－9152

선 련 사
46 Gwynne Ave. 전화 : 532－3491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전화 : 535－7772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무 지 개 칼 라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MISTER O FOR MEN
전화 : 964－2606, 869－0589, 275－2187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스 포 츠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요일 10AM－6PM
880 Ellesmere Rd.Scarboro. ☎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Kipling×Albion)
☎ : 742－1205(B), 745－1632(R) Mr. 마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신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전기시설 • 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전화: 270－3118 오 현 구

FINE WOODWORK 목공소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전화: 676－1173, 769－9468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싸우나 설치, 진열장 찬장등 가구제작

VACUUM CLEANER 출장수리
카페트 CLEANER & SHAMPOOER
전화 : 881－4915 Mr. 조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클 링 턴 하 우 스
693 BLOOR ST. W.
전화: 535－9541 김 영 규

한 국 관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대소연 200석 완비
OPEN 11 : 00AM～1 : 00AM
628 BLOOR ST. W. 전화: 536－0[illegible] . 531－0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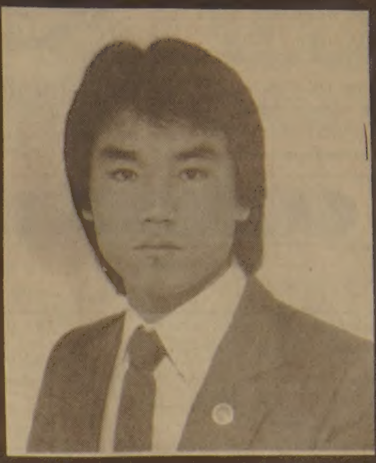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 한국일보 안내광고 ＊

1982 전미주태권도대회
PAN AMERICAN OPEN
TAEKWON-DO
(KARATE·KUNG FU)
CHAMPIONSHIP

FROM CANADA AND U.S.A.



SATURDAY, APRIL 24. 1982.

ELIMINATION STARTS AT 12 NOON
FINAL START AT 7 P.M.

ETOBICOKE OLYMPIUM

590 RATHBURN RD. ETOBICOKE, ONT.

TICKETS (AT DOOR)

ADULTS	$ 5.00
STUDENTS UNDER 10 AND CHILDREN	$ 3.00

Master Demonstration

PRESENTED BY
임송학태권도장
RIM'S TAEKWON-DO SCHOOL
(INSTRUCTOR: RIM, SONG HACK)
1963 WESTON RD. WESTON, ONT. M9N 1W8 PHONE; 247-7577

SPONSORED BY
INTERNATIONAL TAEKWON-DO FED.
CANADIAN TAEKWON-DO FED.
ONTARIO TAEKWON-DO FED

2ND CLASS MAIL NO. 5248